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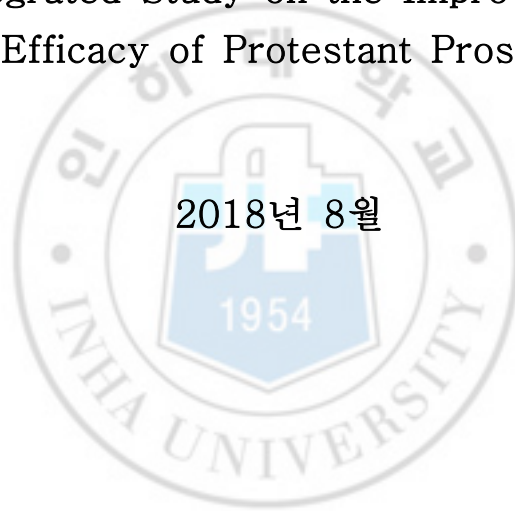
[Disclaimer](#)

다문화학 박사학위 청구논문

개신교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
증진방안에 대한 통합연구

An Integrated Study on the Improvement in
Multicultural Efficacy of Protestant Prospective Pastors

2018년 8월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학과(이민·다문화학전공)

황재동

다문화학 박사학위 청구논문

개신교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
증진방안에 대한 통합연구

An Integrated Study on the Improvement in
Multicultural Efficacy of Protestant Prospective Pastors

2018년 8월



지도교수 김 영 순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인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학과 이민·다문화학전공

황 재 동

이 논문을 황 재 동의 박사학위논문으로 인정함.

2018년 08월 일



주심 _____

부심 _____

위원 _____

위원 _____

위원 _____

국 문 초 록

현재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지만 다문화인식 개선을 위해 정부와 종교차원의 다양한 노력이 수행되고 있으며, 특히 개신교에서는 다문화 교육과 종교 교육의 개념을 결합한 다문화 종교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이때 다문화 교육의 주체인 목회자의 올바른 다문화인식과 다문화 교육 역량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선행 연구에 의하면 목회자의 경우, 부정적인 다문화인식을 갖고 있는 목회자가 다수 존재하였고, 다문화 교육에 대한 정의 역시 동화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목회자도 많았다. 따라서 목회자로 하여금 올바른 다문화인식 형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하나의 대안이 목회자 양성 단계에서의 다문화 교육이다. 즉, 예비목회자들이 올바른 다문화인식과 다문화 교육 역량을 가진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통합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수준과 다문화 교육 역량이라 할 수 있는 다문화 효능감에 대한 현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다문화 효능감 증진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5장으로 구분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제 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서술하였으며, 연구 내용과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연구자의 연구 동기를 기술하였다.

제 2장에서는 이 연구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한국사회 구성원의 다양성’, ‘다문화 교육과 다문화 효능감’, ‘다문화인의 성경적 이해’와 같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한국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에서는 최근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이주민의 통계 현황을 통해 기술하였으며, ‘다문화 교육과 다문화 효능감’에서는 다문화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정의와 이론을 기술하고 추가적으로 다문화인식에 대한 내용도 다루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예비목회자의

다문화적 교육역량이라 할 수 있는 다문화 효능감에 대한 내용도 함께 기술하였다. ‘다문화인에 대한 성경적 이해’에서는 신약과 구약에서 나타난 다문화적 배경을 기술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문화 교육에 대한 성경적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통합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고, 이를 제 3장에 제시하였다. 다양한 통합적 연구 모형 중에 이 연구에서는 Morse의 연구 모형을 활용하였으며, 이는 양적 연구에서 질적 연구로 순차적 설계가 이루어지는 모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700명의 신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문화인식과 다문화 효능감 수준을 파악하였다. 이후 다문화 교육전문가 7인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개신교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 증진 방안을 도출하였다.

제 4장에서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효능감 실태를 제시하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인식은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 교육과정 존재 여부’, ‘다문화 프로그램 진행 여부’, ‘성별’, ‘최종 학위’, ‘연령’과 같은 변인에 따라 다문화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또한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 프로그램 진행 여부’, ‘다문화 교육 이수 여부’, ‘학부 출신’, ‘외국어 능력’, ‘나이’, ‘외국 체류기간’에 따라 다문화 효능감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또한 4장에서는 양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 증진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목회자의 다문화인식 수준이 보통 이상인 점에 대해 전문가들은 ‘신앙은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연민으로부터 출발한다.’, ‘목회자는 사람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신앙인은 기본적으로 약자를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와 같은 원인 등을 꼽았으며,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이 낮은 원인으로는 ‘현재 신학대학원에서는 다문화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예비목회자들이 다문화와 관련된 경험이 많지 않다.’, ‘현재 신학대

학원 내에는 집단주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등을 들었다. 둘째, 개신교 예비 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 증진방안으로 전문가들은 ‘교육과정 개편’,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경험’, ‘긍정적 네트워킹을 통한 소명의식 함양’, ‘외적인 환경변화’를 제시하였다.

제 5장에서는 위에서 도출된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시된 결론을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교육에 대한 과급력은 실제 목회를 수행하는 목회자의 역량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에는 본 연구를 토대로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문가와의 면담 결과,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이 개신교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현장 경험이 다문화 효능감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향후에는 다문화와 관련된 종교적 연구 예컨대 ‘개신교 영역의 다문화 연구 실태 조사’ 혹은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 교육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등과 같은 종합적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키워드 : 다문화인식, 다문화 효능감, 예비목회자, 다문화, 다문화 교육, 통합연구

목 차

국문 초록	i
목 차	iv
표 목 차	vi
그림 목차	viii
I. 서론	1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2. 연구 내용	5
1.3. 선행 연구	6
1.4. 연구 동기	15
II. 이론적 논의	20
2.1. 한국사회 구성원의 다양성 ⁴	20
2.2. 다문화 교육과 다문화 효능감	28
2.3. 다문화인의 성경적 이해	41
2.4. 소결	50
III. 연구 방법	54
3.1. 연구 설계	53
3.2. 자료 수집 및 자료 분석	57
3.3. 연구 윤리와 자료 처리	79
IV. 연구 결과	81

4.1. 양적 연구 결과	81
4.2. 질적 연구 결과	158
V. 결론 및 제언	195
5.1. 요약	195
5.2. 논의 및 제언	199
참고문헌	202
부 록	211
ABSTRACT	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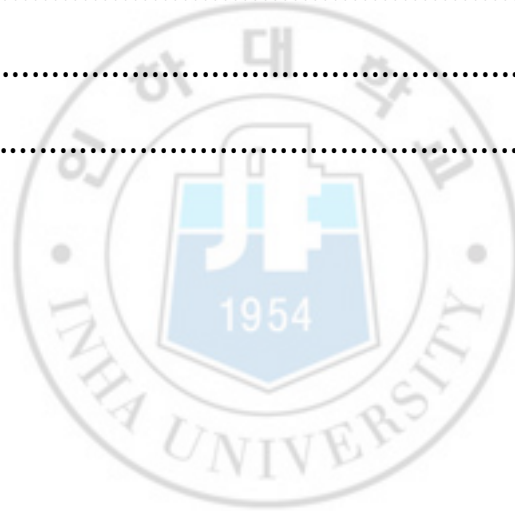


표 목차

<표 II-1>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 연도별 현황	20
<표 II-2> 다문화 가족 자녀 연령별 현황	21
<표 II-3>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 지역별 현황	22
<표 II-4> 다문화 가족 자녀 지역별 현황	23
<표 II-5> 다문화 효능감 척도	37
<표 III-1> 심층면담 질문 내용 구성	58
<표 III-2> 연구 참여자 현황	61
<표 III-3> 전문가 집단 인원내 따른 내용 타당도 기준	64
<표 III-4>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모형 적합도)	64
<표 III-5> 설문도구 신뢰도	67
<표 III-6>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설문지	68
<표 III-7> 다문화 효능감에 대한 설문지	70
<표 III-8> 심층면담 인터뷰 내용	72
<표 III-9>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77
<표 IV-1>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81
<표 IV-2> 변인별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t-test)	84
<표 IV-3> 변인별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ANOVA)	85
<표 IV-4> 변인별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수준 차이(regression)	97
<표 IV-5> 다문화 효능감	98
<표 IV-6> 변인별 다문화 효능감 차이(t-test)	100
<표 IV-7> 변인별 다문화 효능감 차이(ANOVA)	101
<표 IV-8> 변인별 다문화 효능감 차이(regression)	113

<표 IV-9> 지식 영역의 변인별 다문화 효능감 차이(t-test)	114
<표 IV-10> 지식 영역의 변인별 다문화 효능감 차이(ANOVA)	115
<표 IV-11> 지식 영역의 변인별 다문화 효능감 차이(regression)	127
<표 IV-12> 기술 영역의 변인별 다문화 효능감 차이(t-test)	127
<표 IV-13> 기술 영역의 변인별 다문화 효능감 차이(ANOVA)	128
<표 IV-14> 기술 영역의 변인별 다문화 효능감 차이(regression)	141
<표 IV-15> 태도 영역의 변인별 다문화 효능감 차이(t-test)	142
<표 IV-16> 태도 영역의 변인별 다문화 효능감 차이(ANOVA)	143
<표 IV-17> 태도 영역의 변인별 다문화 효능감 차이(regression)	155
<표 IV-18> 예비목회자의 다문화인식 차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	192
<표 IV-19> 변인별 다문화 효능감 차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	193



그림 목차

[그림 II-1] Bennett(2001)의 다문화 교수법 개념도	31
[그림 III-1] 통합 연구 모형	56
[그림 III-2] 설문도구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66
[그림 III-3] 질적 연구 모형	76
[그림 IV-1]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수준	82
[그림 IV-2] 다문화 교우 존재 여부에 따른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	86
[그림 IV-3] 다문화 관련 교육과정 존재 여부에 따른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	87
[그림 IV-4] 다문화 프로그램 진행 여부에 따른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	88
[그림 IV-5] 다문화 교육 이수 여부에 따른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	89
[그림 IV-6] 성별에 따른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	90
[그림 IV-7] 활동지역에 따른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	91
[그림 IV-8] 학부 출신에 따른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	92
[그림 IV-9] 직업에 따른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	93
[그림 IV-10] 외국어 능력에 따른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	94
[그림 IV-11] 최종 학위에 따른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	95
[그림 IV-12] 직책에 따른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	96
[그림 IV-13]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	99
[그림 IV-14] 다문화 교우 존재 여부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 차이	102
[그림 IV-15] 다문화 관련 교육과정 존재 여부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 차이	103
[그림 IV-16] 다문화 프로그램 진행 여부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 차이 ...	104
[그림 IV-17] 다문화 교육 이수 여부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 차이	105
[그림 IV-18] 성별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 차이	106

[그림 IV-19] 활동 지역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 차이	107
[그림 IV-20] 학부 출신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 차이	108
[그림 IV-21] 직업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 차이	109
[그림 IV-22] 외국어 능력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 차이	110
[그림 IV-23] 최종학위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 차이	111
[그림 IV-24] 직책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 차이	112
[그림 IV-25] 다문화 교우 존재 여부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지식) 차이	116
[그림 IV-26] 다문화 관련 교육과정 존재 여부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지식) 차이	117
[그림 IV-27] 다문화 프로그램 진행 여부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지식) 차이 ..	118
[그림 IV-28] 다문화 교육 이수 여부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지식) 차이	119
[그림 IV-29] 성별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지식) 차이	120
[그림 IV-30] 활동 지역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지식) 차이	121
[그림 IV-31] 학부 출신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지식) 차이	122
[그림 IV-32] 직업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지식) 차이	123
[그림 IV-33] 외국어 능력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지식) 차이	124
[그림 IV-34] 최종 학위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지식) 차이	125
[그림 IV-35] 직책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지식) 차이	126
[그림 IV-36] 다문화 교우 존재 여부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기술) 차이 ..	130
[그림 IV-37] 다문화 관련 교육과정 존재 여부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기술) ..	131
[그림 IV-38] 다문화 프로그램 진행 여부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기술) 차이 ..	132
[그림 IV-39] 다문화 교육 이수 여부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기술) 차이 ..	133
[그림 IV-40] 성별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기술) 차이	134
[그림 IV-41] 활동 지역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기술) 차이	135
[그림 IV-42] 학부출신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기술) 차이	136
[그림 IV-43] 직업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기술) 차이	137

[그림 IV-44] 외국어 능력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기술) 차이	138
[그림 IV-45] 최종 학위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기술) 차이	139
[그림 IV-46] 직책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기술) 차이	140
[그림 IV-47] 다문화 교우 존재 여부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태도) 차이 ..	144
[그림 IV-48] 다문화 관련 교육과정 존재 여부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태도) 차이 ..	145
[그림 IV-49] 다문화 프로그램 진행 여부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태도) 차이 ...	146
[그림 IV-50] 다문화 교육 이수 여부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태도) 차이	147
[그림 IV-51] 성별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태도) 차이	148
[그림 IV-52] 활동 지역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태도) 차이	149
[그림 IV-53] 학부 출신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태도) 차이	150
[그림 IV-54] 직업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태도) 차이	151
[그림 IV-55] 외국어 능력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태도) 차이	152
[그림 IV-56] 최종 학위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태도) 차이	153
[그림 IV-57] 직책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태도) 차이	154

I.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들어 한국사회는 많은 외국인의 국내유입으로 인해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세계화의 영향으로 국가 간의 상호협력이 증가하면서 한국사회에 유입되는 외국인의 숫자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국적이나 출신지 및 종교도 다양화되고 있다. 법무부(2018)의 자료를 살펴보면, 2007년 약 107만 명에 불과했던 체류외국인 수는 2011년 약 140만 명, 2015년 약 190만 명, 2018년 4월 현재는 약 225만 명으로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현재 전체 국민 중 체류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7%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우리는 주위에서 외국인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불법체류자(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한 문제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2007년 약 22만 명이었던 불법체류자 수는 2012년에는 약 17만 명으로 감소했지만, 2013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추세를 보여 현재는 약 26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이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법무부, 2018). 최근에는 불법체류자에 의한 범죄와 불법체류자에 대한 범죄¹⁾가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면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이슈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는 비단 불법체류자 뿐만 아니라 다른 다문화가정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결혼이주여성들은 언어문제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가

1) 의한 범죄는 말 그대로 불법체류자들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로써 2008년 일어난 여중생 살인 사건과 아동 납치 사건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불법체류자에 대한 범죄는 임금체불, 언어폭력, 폭행 등과 같이 불법체류자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이때 불법체류자라는 호칭은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게 만드는 낙인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 비록 이 연구에서는 독자의 이해와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 불법체류자라는 호칭을 그대로 사용했지만 본 연구자는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보다는 미등록외국인체류자, 부적합한 외국인 체류자라는 용어 사용을 권장하는 바이다.

족구성원 및 이웃과 갈등을 겪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는 열악한 근무 환경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차별과 동료들의 편견으로 인해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들 역시 학교 교육에서 언어적 어려움과 학교문화에 대한 부적응 및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김성영, 오영훈, 2013).

현재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경우,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만약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의 긍정적 변화를 이루고자 한다면 먼저 다문화인식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김영순, 2018). 이에 정부에서는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여 다양한 형태로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문화인식 개선을 위해 다수의 관계부처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은 범정부 차원에서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그 중 하나로 종교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인식 개선 방안을 들 수 있다.

현재 개신교에서는 다문화 교육과 종교 교육의 개념을 결합하여 ‘다문화 종교 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다문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박종수, 2010). 이때 다문화 종교 교육이라 함은 “개신교 신앙을 배우는 과정에서 다문화적 지식, 태도, 가치, 기술을 발달하려는 노력”을 의미하며, 개신교 종교교육과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오현선, 2011). 즉, 다문화 종교 교육은 다문화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종교 교육이라 말할 수 있고, 이는 현재 초·중등교육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교 교육의 차원과도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러한 개신교회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한데 모여 있는 작은 다문화사회이다. 따라서 다문화 교육을 통한 다문화인식 개선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당한 장소이며, 이때 교육의 중심에는 목회자가 있다. 성경에서는 목회자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로 ‘교육’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해볼 때 다문화인식 개선에 목회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김성영, 2014). 따라서 종교적 차원의 다문화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다문화 종교 교육을 수행하는 목회자가 먼저 올바른 다문화인식을 갖고 있어야 하며, 동시에 효과적인 다문화 교육이 가

능할 수 있도록 적절한 다문화 교육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목회자에게 필요한 다문화 교육 역량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특히 주목해야 할 요소가 바로 다문화 효능감이다. 다문화 효능감이란 다문화와 관련된 자신감이라 말할 수 있는데, 이는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과 그 맥을 같이한다. 즉 다문화 효능감이란 다문화와 관련하여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능력 수준 혹은 다문화적 상황에 직면했을 때의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한다. 현재 교육학 분야의 다양한 연구를 통해 효능감이 교육성과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 밝혀진 것을 감안할 때 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 역시 다문화 교육의 성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에 보다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이경윤, 2011).

현재 다문화 효능감과 관련하여 다수의 서적과 연구가 출판되었으며, 이를 통해 다문화 효능감이 다문화 교육의 성패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다문화인식과도 상관이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장봉석, 2010; 조운주, 2010; 김남희, 임선영, 2014; 장익준, 이기용, 2014). 즉, 다문화 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다문화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경향이 있으며 다문화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높은 수준의 다문화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다문화 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목회자에 대한 다문화 효능감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목회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에 앞서 예비목회자²⁾의 다문화 효능감 실태는 어떠한지, 또한 증진 방안은 무엇인지를 다루고자 한다. 왜냐하면 목회자 양성 단계에서 어떠한 교육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향후 목회자의 역량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신학대학원에서 적절한

2) 단어를 원어 그대로 해석해보면 ‘목회자가 되기 위한 예비단계에 있는 자’ 혹은 ‘목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때 목사가 되는 절차는 일반적인 교단의 신학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2년간의 수련 과정을 거쳐 목사고시에 합격하는 경우, 군소교단의 신학원 혹은 일반대학교의 신학대학원 과정을 졸업하고 목사고시에 합격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로가 존재한다. 하지만 대부분이 전자 즉, 일반적인 교단의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여 목사고시에 응시하는 경로를 따른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예비목회자를 ‘일반 교단의 신학대학원 과정에 등록된 신학대학원생’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다문화 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올바른 다문화인식과 다문화 교육 역량을 갖춘 목회자가 배출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성공적인 다문화 종교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개신교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 증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 내용

앞서 제시한 것처럼 이 연구의 목적은 예비목회자의 올바른 다문화인식 함양과 다문화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현재 개신교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효능감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다문화 효능감 증진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개신교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 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개신교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 증진방안은 무엇인가?

첫 번째 연구문제는 개신교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때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효능감은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먼저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수준과 변인별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를 범주형 변인과 연속형 변인에 따라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개신교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의 수준과 변인별 다문화 효능감의 차이를 범주형 변인과 연속형 변인에 따라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개신교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 증진방안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 7인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개신교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 증진 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첫 번째 연구문제에서 도출한 변인별 차이에 대한 해석과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특히 다문화 인식과 다문화 효능감은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는 상이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였다.

1.3. 선행 연구

다문화에 대한 인식 연구는 대상별로 그동안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인식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교사의 다문화인식 연구’, ‘학생의 다문화인식 연구’, ‘일반인의 다문화인식 연구’, ‘목회자의 다문화인식 연구’와 같은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교사의 다문화인식 연구이다. 다문화 교육에 있어 교사의 다문화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교사의 다문화인식은 다문화가정의 학생뿐 아니라, 일반 학생의 다문화인식과 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현재 다문화 학생은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교사의 다문화인식에 대한 연구는 주로 보육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김영순, 이미정(2010)은 다문화 교육사의 실천적 역량과 기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문화 교육사는 의사소통 능력과 인간존중의 역량을 갖추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위한 교육 방안으로 다문화 교육의 이해 교과목의 중요도가 가장 높았음을 제시하였고, 추가적으로 ‘주요 국가 언어 및 교수법’, ‘상담 기술’, ‘다문화가정론’ 등의 교과목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박순덕, 김영순(2013)은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미술교육에 다문화적 요소를 추가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초등교사 인식 분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교사들이 다문화 미술교육의 개념과 필요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교사의 다문화 지식 부족, 교수·학습 자료의 부족 등은 향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장익준, 이기용(2014)은 초등학교 교사의 다문화인식이 다문화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교 교사가 지각하는 다문화인식과 다문화 효능감은 모두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다문화인식이 다문화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다문화 태도 변인이 부분매개 효과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인식이 다문화 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문화 태도를 통해서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용, 박창언(2014)과 권미은, 권미지, 이미아(2012)의 연구에서도 초등학교 교사의 다문화인식과 다문화 효능감을 분석한 결과, 다문화인식이 다문화 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통해 다문화인식은 다문화 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박선미, 성민선(2011)은 다문화 교육 연수나 교수 경험이 다문화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 교육 경험이 있는 교사가 그렇지 않은 교사에 비해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담임 경험이나 교과지도 경험에 비해 강한 영향력을 보였다. 또한 다문화 교육이 보람된 일이라 인식하는 반면, 업무 증가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등 실천적 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교사가 동화주의적 혹은 문화다원주의적 관점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경환, 황혜원(2007)은 중등 교사의 다문화인식을 ‘다문화적 태도’,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이해 수준’, ‘다문화 교육 목표에 대한 관점’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보람된 일이라 느끼는 등의 긍정적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이해 수준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 교육의 목표에 대한 관점을 분석한 결과, 상호 이해와 배려를 강조하는 배려중심의 접근법을 가장 많이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40대 이상의 교사들은 동화주의적 관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연구자는 다문화 교육이 동화주의적 관점을 극복하며 발달해온 것을 감안할 때 이러한 동화주의적 관점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둘째, 학생의 다문화인식 연구이다. 아동 시기에는 인지적 발달이 아직 진행 중이고,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이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인식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고, 앞서 말한 아동의 부정적 다문화인식 가능

성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예컨대 심우엽(2010)의 연구에 의하면 일반 초등학생의 경우, 다문화 친구들에 대해 부정적이고 차별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단일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큰 아이들이 다문화 친구들에 대한 개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서는 다양한 요인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 비중이 높은 하나의 요인이 부모의 다문화 태도이다.

조운주(2010)는 초등학생의 다문화인식이 다문화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다문화인식이 높음을 언급하며, 남학생에게 좀 더 집중적이고 차별적인 다문화 교육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다문화인식이 다문화 효능감의 배려 측면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초등학생의 다문화 효능감 증진을 위해서는 먼저 다문화에 대한 올바르게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남희, 임선영(2014)은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인식과 다문화 효능감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이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환자수를 감안할 때 시의 적절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이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인식 수준은 3.55점으로 평균 수준이었고, 다문화 효능감은 3.89로 평균 이상의 수치를 나타냈다. 또한 다문화인식이 긍정적일수록 다문화 효능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다문화 체험, 다문화가정 봉사활동 등과 같은 다양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박순덕, 김영순(2014)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미술 교과에 적용 가능한 다문화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전반적인 다문화인식 수준이 상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양성 수용, 편견 및 차별 감소, 타문화 존중 등에서도 효과가 있음이 나타났다.

최종임, 김영순(2016)은 다문화 교육 중점학교 학생의 다문화 시민성 인식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다문화 교육 중점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영역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첫째, 다문화 교육 중점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타문화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였으며, 다문화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높은 다문화 감수성을 나타냈

다. 둘째, 다문화 교육 중점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대인관계에 있어 협력하고 배려하는 등의 책임 의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문화 교육 중점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다문화 교육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긍정적 유대감을 형성하였다. 이처럼 다문화 중점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과 다문화 이해 그리고 세계시민 의식의 함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백은경, 김영순(2015)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기술·가정 교과서에 나타난 다문화 교육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6종의 기술·가정 교과서에는 다양성 영역의 내용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다음으로 정체성과 협력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평등성에 대한 내용은 낮은 비중을 보였다고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향후 개발되는 교과서에서는 소수자를 향한 편견과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평등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셋째, 일반인의 다문화인식 연구이다. 한국인은 다문화인을 대할 때 이들을 보편적 인격체로 대하기보다 자신과의 이해관계에 따라 차별적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장태한, 2001; 황정미 외, 2007; 윤인진, 2011). 즉, 다문화인이 ‘국민인가’, ‘동포인가’, ‘합법 신분인가’, ‘선진국 출신인가’와 같은 네 가지 기준에 따라 차별적 태도를 취하며, 이는 다문화인을 수용할 것인가 혹은 다문화인과 친밀함을 유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에 일반인의 다문화인식에 대한 선행 연구를 고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숙현(2000)은 현재 대한민국의 성인은 대부분 다문화에 대한 이해부족과 편견으로 인해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형성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성인의 부정적 다문화인식은 자녀들의 다문화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문제는 현재 대부분의 성인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 소통한 경험이 부족하고 타문화권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공존하는 법을 학습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성인의 다문화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영순, 배현주(2013)는 현재 문화적 교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케이팝이 성인 여성의 다문화 시민성 함양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케이팝에 관심이 있는 4인의 여성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구 대상들은 케이팝 팬덤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모든 인간을 존중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문화정체성 및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자들은 대중문화가 다문화 시민성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인 학습의 측면에서 강조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김영순, 방현희, 홍정훈(2014)은 멘토링이 멘티와 멘토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를 보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돕는 대학생 멘토의 다문화 인식과 자아존중감 수준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멘토링 프로그램은 멘토의 다문화적 경험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로 인해 긍정적 다문화인식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멘티와의 만남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음을 밝혔다.

윤인진(2016)은 다문화인에 대한 국민인식의 변화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국민의 비율이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³⁾. 또한 특정 집단의 다문화인에 대해서는 느끼는 거리감이 커지고 있다. 예컨대 ‘북한이탈주민이나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는 한국 국민이라고 느낀다.’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으며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에 대해서는 남이라 생각한다.’에 대한 응답률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이러한 원인에 대해 장기적 경제침체, 외국인 범죄에 대한 부정적 매스컴 보도,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는 난민 문제 등의 이슈 등을 제시하였다.

3)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10년에는 다문화 국가에 대한 지지율이 60.6%였지만 2015년에는 49.6%로 감소하였다.

넷째, 목회자의 다문화인식 연구이다. 연구의 필요성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다문화에 대한 연구에서 종교적인 접근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에도 불구하고 현재 목회자의 다문화인식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이에 선행 연구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다문화인식 관련 선행 연구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김성영, 오영훈(2013)은 개신교 목사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고,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개신교 목사의 경우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일신을 섬기는 개신교 특성상 타 종교를 섬기는 특정 민족에 대해 편견이나 고정 관념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 몇몇 개신교 목사의 경우, 다문화 교육에 대해 이중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현재 일부 개신교 목사는 다문화 교육에 대해 배타적이고, 부정적 고정관념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평등을 묻는 문항의 수치는 매우 높았지만 여전히 다문화인을 대할 때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셋째, 개신교 목사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교육 인식 개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상황에 맞는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하며, 특히 개신교 목사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이다. 개신교 목사의 다문화인식과 태도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종교단체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나이, 목회 경력 등을 고려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김성영(2016)은 목회자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큰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개신교 목회자의 다문화 교육 태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목회자가 다문화 교육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9.5%에 해당하는 목회자가 여전히 동화주의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 이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다문화 효능감은 주로 교사 대상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 이유는 효능감이 특정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예측하는 변수이기 때문이며, 이는 곧 교육학 분야에서 교육성과를 예측하는 변수로 활발히 사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에 교사 대상의 다문화 효능감은 다문화 교수 효능감이라는 용어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다문화 효능감에 대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 대상 다문화 효능감에 대한 연구이다.

Dilworth(2004)는 교사의 다문화 교수 효능감이 다문화 관련 교육과정을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즉, 교사가 다양성 측면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면 교육과정에 다문화적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 노력하며, 학생 개개인의 능력 수준, 문화, 흥미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Tucker 등(2005)은 다문화 교육을 수행하는 교사들 대상으로 다문화 워크숍 실시 후 이들의 다문화 교수 효능감 변화 여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효능감 증진 워크숍에 참석한 교사들은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교사들에 비해 다문화 교수 효능감이 월등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Tucker 등은 다문화 교수 효능감이 다문화 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교실의 경영과 혁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만약 교사 스스로가 다문화 교육에 대한 자신감과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갖고 있다면 다문화 학생들의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 강조하였다. Castro(2010)는 1985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 저널에 게재된 예비교사의 다문화 태도 관련 논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재 미국 교사들의 다문화 태도는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있으나 전반적인 다문화 효능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주류에 해당하는 사람과의 상호 교류에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예비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다문화 교육을 수행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밝혔다.

국내에서는 최충옥, 모경환(2007)이 경기도 지역에 재직 중인 초·중등 교사의 다문화 교수 효능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구 대상들은 다문화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이해도는 높은 수준이었으며, 긍정적인 다문화 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 수업과 관련된 교수 효능감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는 것을 밝혔다. 이에 연구자들은 다문화 교실에 적용할 수 있는 학습 자료가 개발되고, 효율적인 수업 방법이 보급되어야 하며, 특히 교사의 수업 능력 제고를 위해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 및 연수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장봉석(2010)의 연구에서는 중등 예비교사의 다문화 효능감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중등 예비교사의 다문화 효능감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앞서 최충옥, 모경환(2007)의 연구에서와 달리 인종적 고정관념과 편견을 찾아낼 수 있다는 질문에 과반수가 동의하였고, 인간관계 증진 측면에서 역시 과반수가 높은 효능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충옥, 모경환(2007)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수업 기능과 관련된 측면과 학생 지도 측면에서 낮은 효능감 수준이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주장하였다.

둘째, 학생 대상 다문화 효능감에 대한 연구이다.

지술현, 김고은(2011)은 부모의 다문화 태도가 초등학생의 다문화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이때 다문화 효능감은 다문화 친구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연구 결과, 초등학생의 다문화 효능감은 중간 이하의 수준이었으며, 부모의 다문화 태도와 부모의 수입이 초등학생의 다문화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광미, 안병환(2016)은 초등학생의 다문화 경험이 다문화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 경험은 다문화 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이에 향후 초등학생의 다문화 효능감 증진을 위해서는 다문화 관련 직·간접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밝혔다.

선곡유화, 이영선, 서우석(2016)은 청소년 대상의 다문화 효능감 척도를 개발하였다. 그 결과, 두 가지 요인의 16문항이 개발되었고, 이때 첫 번째 요인은 다문화에 대한 자신감이었으며, 두 번째 요인은 다문화에 대한 자기 조절 효능감이었다. 또한 개발된 척도는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관분석, 모형적합도 평가, 평균분산추출 등을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처럼 다문화 효능감과 관련된 연구는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현재 일반인과 목회자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일반인과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효능감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볼 때 현재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인식과 다문화 효능감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목회자 대상의 다문화인식과 다문화 효능감을 연구한 논문은 미미한 실정이며, 특히 예비목회자의 다문화인식과 다문화 효능감을 분석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다문화인식과 다문화 효능감에 대한 선행 연구 역시 대부분 양적 연구이거나 혹은 질적 연구만을 사용한 연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구체적 해석이 부족하거나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다문화인식과 다문화 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통합적인 연구 방법론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예비목회자의 다문화인식과 다문화 효능감을 양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뒤, 전문가 면담 등의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개선사항과 방안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4. 연구 동기

연구자는 어릴 적 넉넉하지 않는 가정 형편이었지만 부모님께서 나그네와 어려운 이웃들에게 늘 나누는 삶을 보면서 자랐다. 형제가 많고 연구자의 집도 넉넉지 않는 시절이었지만 부모님의 그런 모습에 대해 반기를 든 가족은 없었다. 마치 당연한 듯 그렇게 살아왔다. 부모님의 무언의 가르침은 성인이 되고 목회자 길을 걸어 온 지금까지 연구자의 삶의 토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나그네를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굶주려 밥 달라고 찾아오는 사람을 냉정하게 보내지 말고 그들에게 꼭 먹을 것을 나눠주라.”는 부모님의 교훈, 이 교훈은 성경에서도 언급되어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후 신학을 전공하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내국인 이외의 이주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깊은 이해는 전혀 없었다. 그때는 목사로서 전도와 교회 내 성도들의 신앙 훈련에 집중했고, 교우들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애환 등을 위로하고 들어주며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힘을 주는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기였다. 부교역자로 8년 간 밤 낮 없이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배운 목회를 현장에서 접목시켜야 되겠기에 군산 터미널 근처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

젊음의 패기와 8년 간 배운 현장목회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척은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 有(유)를 만들어가는 모험 그 자체였다. 터미널 근처에서 만난 사람들은 힘겹게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술집 여성들로부터 가출한 청소년들 그리고 부랑자들,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었다. 그들은 밤낮 교회를 찾아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했다. 본 연구자는 그들의 애환을 경청하면서 ‘아~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의 한 부분이구나’를 깨닫게 된 시기였다.

그 시기에는 군산 지역에 외국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때만 해도 내국인 중심 목회를 지향했던 연구자였기에 일반적인 시각으로 외국인들을 볼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몽골 근로자들이 교회에 찾아왔다. 그들은 손짓발짓으로 그들의 상황

을 연구자에게 하소연하기 시작하였고 어떻게 교회까지 찾아오게 되었을까를 물어보니 몽골의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교회를 찾아가라고 해서 교회에 찾아왔다고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연구자가 외국인 사역을 담당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한 시기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연구자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연구자에게 보내주신 천사가 아니었나 싶다. 그들은 근로현장에서 월급을 받지 못했고, 회사 사장으로부터 폭행까지 당한 상태였다.

그들과의 첫 만남은 결국 연구자가 외국인사역에 뛰어들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 또 다문화에 대한 인식전환을 갖게 해 주었을 뿐 아니라 20년이 지난 지금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에 대한 영향을 준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그 만남을 이후로 연구자는 교회 안에 몽골식 게르방 즉, 나그네를 위한 쉼터를 만들었다. 몽골 근로자들은 주말이면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고 자조모임을 가졌다. 그 후 한 명 한 명 외국인들이 소문을 듣고 교회를 찾아오는 경우가 점점 많아졌다.

연구자는 교회에 등록 출석하는 이주민, 노동자들이 많아지면서 그들의 삶이 한국에서 얼마나 부당한 대우와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살고 있는지,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고 함부로 취급받으며 일하다가 직장에서 쫓겨나는지, 또한 일이 버거워서 또는 부당한 대우 때문에 회사에서 도망 나와 불법 이민자가 되어 강제 추방을 당하는 것 등을 생생하게 느끼고 보게 되었다. 코리언 드림으로 희망을 품고 왔던 사람들이 도망자, 강제추방자, 불법이민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목사로서, 한국인으로서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이에 연구자는 군산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 가까이서 만나기 위해 그들이 가장 많이 일하고 생활하는 지금 이 곳, 산업단지가 있는 새만금지역 공단 오식도동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이곳 교회 안에 외국인들을 위한 ‘이주민센터’와 결혼이민자로 시집와서 부당하게 이혼당한 여성들이 본국으로 들어가지도 못한 채 이 지역 저 지역 떠돌아다니는 여성들을 위한 ‘하갈의 쉼터’를 설립하여 그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또한 경찰서 외국인도움센터와 외국인 자유펙범대 조직

하여 이민자들이 지역 치안 봉사와 자율적인 봉사 활동을 함께 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위원, 해양경찰서 인권자문위원,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운영기관을 통하여 가족·인권·고충 상담, 체류자격 변경, 법률문제와 의료지원, 한국문화와 한국어 무료 교육 등으로 섬겼다.

그 외에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유학생, 난민 신청자들을 돕기 위해 다방면으로 뛰어다니면서 그들이 차별 당하는 현장 속에서 과거 속 한국도 결국 이주민이었고, 나그네였다는 걸 알게 되면서 “역사를 통해 보는 다문화와 다문화 인물”이라는 책도 발간하여 역사적 고증을 통해 다문화인식 개선에 앞장을 섰다.

군산시내에서 몽골 근로자들을 만난 이 후 외국인들과 함께 한 20년 동안 연구자는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목회현장에서도 기독교 교인들과 목회자들이 사회의 소외 계층, 현대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인 천국시민 이주민들, 외국인 노동자들, 다문화인들을 사랑으로 보듬고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편협한 종교적 신념과 잘못된 역사인식과 동화주의적인 편견으로 인해, 오히려 이민자들을 무시하고 어렵게 한다는 점, 이주민을 돕고 다문화 사역을 하면 할수록, 나 혼자 힘과 노력, 한 교회의 역량만으로는, 이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없다는 점을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 이러한 고민은 다문화 교육에 대한 갈증으로 이어졌고, 다문화 교육과 관련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그래서 대학원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이론을 배우고 현장 실천가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실천적 지식 역시 습득할 수 있게 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레비나스의 ‘타자’ 이론과 몰트만의 ‘십자가 신학’이다.

헤겔의 ‘정신현상학’, 플라톤의 ‘인식론과 존재론’ 등 그동안 다뤄져왔던 서구 철학 대부분은 타자성보다는 동일성을 중요하게 생각해 왔다. 예컨대 플라톤은 나에게 필요한 지식은 모두 영원 전부터 내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나의 지식을 위해 타자의 지식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고, 후설은 지향성 개념을 통

해 타자성을 하위 개념으로 종속시켰다(박충일, 2006). 하지만 레비나스는 ‘전체성과 무한’이라는 작품을 통해 타자를 전체성으로부터 구분하여, 타자 주체의 자유를 위해 타자의 흡수를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역설하였다(Robbins, 1991; Levinas, 1996). 그리고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요 신학자인 몰트만은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이들을 변호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타자성을 강조하였다.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 역시 ‘Christ the Center’라는 강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였다. 다음은 본문 중 일부이다.

그가 누구인가? 라는 물음은 초월에 대한 물음이다. 그가 누구인가라는 물음은 낯센(strangeness)과 타자성(ootherness)을 나타내는 동시에 그것을 질문하는 사람의 참 존재에 관한 질문이다. 그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매우 종교적인 물음이다. 그것은 이웃을 위한 사랑에 관한 질문이다. 초월에 관한 질문과 존재에 관한 질문은 사람에게 관한 질문이 된다.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대답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Bonhoeffer, 1966, 정정호, 1995 재인용).

이처럼 본회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질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을 억압하고 통치하려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고통 받는 민중과 사회 속에서 함께 계신다는 것이 본회퍼의 주장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개신교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고통 받고 차별 당하는 다문화인을 도와야 한다.

그러나 한국사회 구성원들, 특히 기독교 내 목회자와 교우들의 다문화사회와 가정들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인 목회자와 교회 직분자들 그리고 교우 전반에 다문화와 이주민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특히, 연구자는 교인들이 다문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데는 목회자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타자 지향성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목회자가, ‘타자 지향적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당당히 대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러한 인식조차 부재하거나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구약의 제사장, 오늘날의 목회자의 중요한 책무가 교육이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다문화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은 대부분 정부차원 특히 교육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교사의 경우, 다양한 연수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교실에서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목회자의 경우, 다문화 사역에 대한 공식적 세미나 혹은 교육들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교회 사역에 바쁜 목회자들을 다문화 사역 세미나 혹은 교육 참여를 요청하는 것은 매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아직 본격적인 사역의 현장으로 발을 내딛지 않은 신학대학원 과정 중에 있는 예비목회자들에게 이주민과 다문화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이론적이며 실천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경우, 그들이 현장으로 나와 사역을 감당하게 될 시기에 이미 많은 실제적인 대안들을 가지고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이주민들과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다문화사회에 조금 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그들의 삶의 질적 변화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할 것이다.

Ⅱ. 이론적 논의

2.1. 한국사회 구성원의 다양성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체류외국인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약 158만 명이었던 체류외국인 수가 2018년 4월말 현재 225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장기체류자는 대략 160만 명으로 단기체류자 64만 명에 비해 약 2.5배가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체류기간이 지났음에도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의 수 역시 2013년 18만 명에서 2018년 3월 28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국내 체류 외국인은 최근 5년 간 9%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 추세는 외국 노동력의 필요, 결혼이민자 증가, 유학생 증가 등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당분간 지속될 예정이다.

위에서 제시한 225만 명의 외국인 체류자 중 다문화 가족은 약 96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2017년 11월에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의 자료를 살펴보면, 96만 명의 다문화 가족 가운데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국적취득자)는 31.9만 명, 이들의 자녀는 21.1만 명, 배우자 등 기타 가구원이 44만 명에 달하고 있다(통계청, 2018). 이 중 배우자 등 기타 가구원을 제외한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와 이들의 자녀에 대한 연도별, 지역별 현황은 <표 II-1>, <표 II-2>, <표 II-3>, <표 II-4>와 같다.

<표 II-1>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 연도별 현황

연도	합계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016	318,948	61,544	257,404	159,501	28,728	130,773	159,447	32,816	126,631
2015	294,663	56,652	238,011	144,912	25,263	119,649	149,751	31,389	118,362

2014	295,842	48,787	247,055	149,764	21,953	127,811	146,078	26,834	119,244
2013	281,295	45,348	235,947	147,591	20,887	126,704	133,704	24,461	109,243
2012	267,727	42,459	225,268	144,214	19,630	124,584	123,513	22,829	100,684
2011	252,764	39,825	212,939	141,654	18,561	123,093	111,110	21,264	89,846
2010	221,548	34,144	187,404	125,087	15,876	109,211	96,461	18,268	78,193
2009	199,398	30,988	168,410	125,673	15,190	110,483	73,725	15,798	57,927
2008	168,224	26,339	141,885	102,713	13,711	89,002	65,511	12,628	52,883
2007	142,015	21,905	120,110	87,964	12,497	75,467	54,051	9,408	44,643

출처 : 통계청(2018). 다문화가족 관련 연도별 통계

<표 II-1>을 살펴보면, 2007년 약 14.2만 명이었던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가 2014년 29.6만 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2016년에는 31.9만 명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증가는 남자보다 여자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남자의 경우, 2007년 약 2.2만 명에서 2016년 약 6.2만으로 약 4만 명 정도가 증가한 반면, 여자의 경우, 2007년 약 12만에서 2016년 약 25.7만 명으로 약 13만 명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차이는 결혼이주여성의 증가와 관련된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에서 2016년까지의 결혼이민자 증가 추세를 살펴보면, 10년간 약 7.2만 명이 증가하였는데 이 가운데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77%에 해당한다. 국적취득자 역시 10.5만 명 가운데 여자의 증가율이 78%를 차지하고 있다.

<표 II-2> 다문화가족 자녀 연령별 현황

연도	연령별 현황				
	계	만6세 이하	만7~12세	만13~15세	만16~18세
2016	201,333	113,506	56,768	17,453	13,606
2015	197,550	116,068	61,625	12,567	7,290
2014	204,204	121,310	49,929	19,499	13,466
2013	191,328	116,696	45,156	18,395	11,081

2012	168,583	104,694	40,235	15,038	8,616
2011	151,154	93,537	37,590	12,392	7,635
2010	121,935	75,776	30,587	8,688	6,884
2009	107,689	64,040	28,922	8,082	6,645
2008	58,007	33,140	18,691	3,672	2,504
2007	44,258	26,445	14,392	2,080	1,341

출처 : 통계청(2018). 다문화가족 관련 연도별 통계

<표 II-2>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별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먼저 2007년 4.4만 명에 불과하던 다문화가족 자녀의 수가 2016년에는 20.1만 명으로 약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증가는 만 6세 이하의 연령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2007년 약 2.6만 명의 다문화가족 자녀의 수는 2016년 약 11.4만 명으로 약 8.8만 명이 증가하였다.

수적 증가는 만 6세 이하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지만, 비율의 증가는 만 16~18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만 6세 이하의 경우,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의 증가율이 약 4.3배에 불과한 반면, 만 16~18세의 경우, 약 10.1배에 달하고 있다. 만 7~12세의 증가율은 약 3.9배, 만 13~15세의 증가율은 약 8.4배이다.

2007년 다문화가족 자녀 수 가운데 아동(만 12세 이하)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92%로 거의 대부분의 자녀가 아동 연령대에 분포되어 있었지만, 2016년에는 약 84%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통해 현재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분포 연령대가 점차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3>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 지역별 현황

연도	합계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318,948	61,544	257,404	159,501	28,728	130,773	159,447	32,816	126,631
서울	73,914	21,935	51,979	33,139	9,524	23,615	40,775	12,411	28,364
부산	11,853	1,598	10,255	6,672	984	5,688	5,181	614	4,567

대구	8,403	1,082	7,321	4,793	694	4,099	3,610	388	3,222
인천	20,988	4,646	16,342	9,873	2,031	7,842	11,115	2,615	8,500
광주	6,001	595	5,406	3,298	361	2,937	2,703	234	2,469
대전	5,899	739	5,160	3,361	422	2,939	2,538	317	2,221
울산	6,217	873	5,344	3,332	444	2,888	2,885	429	2,456
세종	1,053	154	899	598	97	501	455	57	398
경기	95,848	21,679	74,169	46,297	9,712	36,585	49,551	11,967	37,584
강원	6,768	517	6,251	3,547	265	3,282	3,221	252	2,969
충북	9,433	1,112	8,321	4,841	548	4,293	4,592	564	4,028
충남	14,863	1,797	13,066	8,020	824	7,196	6,843	973	5,870
전북	10,568	679	9,889	5,768	388	5,380	4,800	291	4,509
전남	11,749	554	11,195	6,645	281	6,364	5,104	273	4,831
경북	13,640	1,163	12,477	7,473	670	6,803	6,167	493	5,674
경남	17,929	1,842	16,087	9,554	1,177	8,377	8,375	665	7,710
제주	3,822	579	3,243	2,290	306	1,984	1,532	273	1,259

출처 : 통계청(2018). 다문화가족 관련 연도별 통계

<표 II-3>에서 제시하는 결혼이민자와 국적취득자의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약 9.6만 명, 서울이 약 7.4만 명으로 과반 수 이상(약 53%)의 결혼이민자와 국적취득자가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와 국적취득자 비중이 가장 낮은 두 곳은 세종과 제주이며, 전체 가운데 이 두 시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에 불과하다.

<표 II-4> 다문화 가족 자녀 지역별 현황

시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44,258	58,007	107,689	121,935	151,154	168,583	191,328	204,204	197,550	201,333
서울	5,305	7,500	16,772	19,014	24,084	26,008	29,285	30,226	30,447	30,761
부산	2,269	3,057	5,091	5,698	6,837	7,375	8,311	9,022	9,157	8,852

대구	2,019	2,254	3,656	3,904	4,475	5,125	5,829	6,305	6,423	6,388
인천	2,313	3,054	6,662	7,805	8,868	9,552	11,082	11,964	11,845	12,440
광주	1,231	1,608	2,420	2,752	3,403	3,926	4,519	4,997	5,090	4,881
대전	824	985	2,441	2,881	3,439	3,847	4,365	4,666	4,561	4,594
울산	884	1,068	2,489	2,798	3,233	3,582	4,092	4,437	4,376	4,400
세종	-	-	-	-	-	-	563	660	729	829
경기	6,617	11,131	25,648	29,953	37,519	42,365	48,138	51,960	50,313	52,446
강원	2,366	2,590	4,017	3,900	5,161	5,780	6,498	6,917	6,042	6,046
충북	2,288	2,584	3,748	4,710	5,675	6,445	7,272	7,718	7,089	7,424
충남	3,432	3,421	6,399	6,953	9,119	10,023	11,010	11,863	10,908	11,574
전북	3,275	4,283	5,474	5,849	7,755	8,766	9,989	10,316	9,744	9,751
전남	4,153	4,902	7,279	7,453	9,764	10,763	12,149	12,832	11,524	11,590
경북	3,289	4,235	6,353	7,715	9,246	10,251	11,574	12,578	11,775	11,755
경남	3,599	4,601	8,060	9,260	10,996	12,762	14,294	15,143	14,476	14,388
제주	394	734	1,180	1,290	1,580	2,013	2,358	2,600	3,051	3,214

출처 : 통계청(2018). 다문화가족 관련 연도별 통계

<표 II-4>에서 제시하는 다문화 가족 자녀의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결혼 이민자와 국적취득자와는 다르게 수도권외의 비중이 약 27%밖에 되지 않고 비수도권의 비중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비수도권 가운데 다문화 가족 자녀수가 많은 두 곳은 전남과 경남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4조를 기반으로 3년마다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2009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현재는 3차 조사가 완료된 상태이다. 이에 2015년 3차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다문화가족의 평균 가구원 수는 3.16명으로 3인 가구(29.1%)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2인 가구

(26.3%)와 4인 가구(23.9%)가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전체 다문화가족 중 4.8%에 해당하는 수가 한 부모 가구이며, 이 가운데 4%는 이민자·귀화자&자녀 가구이고, 나머지 0.8%는 배우자&자녀 가구였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취학률은 초등학교가 97.6%, 중학교가 93.5%, 고등학교가 89.9%, 대학교 이상이 53.3%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국민의 취학률과 비교해 볼 때 초등학교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격차가 커져 대학교이상의 급에서는 14.8%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월 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200~300만이 30.4%, 100~200만이 23.8%, 300~400만이 20.5%, 400만 이상이 16.5%로 50% 이상이 3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주목할 만한 부분은 다문화가정 가운데 5.1%의 가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이며, 부부 모두 외국출신인 경우가 한쪽이 외국출신인 경우에 비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결혼이민자와 국적취득자의 88%는 현재 배우자가 있는 상태였다. 현재 이혼 혹은 별거 중인 다문화인의 비율은 6.9%였으며, 이전의 혼인지속기간은 약 7.1년이었다. 이때 이혼 및 별거 사유로는 성격차이가 45.3%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무능력(17.7%), 외도 등 애정문제(10%),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8.7%), 음주 및 도박(7.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부부간 문화적 차이를 경험한 비율은 59.2%로 절반이 넘는 다문화가정이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식습관(36.9%)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가족의례(23%), 자녀양육방식(19%), 경제생활방식(15.3%)이 그 뒤를 이었다.

다문화인의 경우,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89.4%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자녀의 친구들에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은 54.2%에 불과했다. 특히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바쁠 때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약 77%가 부모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자녀의 교과목이나 학교생활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경제적 지원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

로 약 77%가 학부모로서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문화인의 85% 가량이 한국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언어문제(34%)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외로움(33.6%), 경제적 어려움(33.3),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23.2%)가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다수의 다문화인이 한국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한 경우는 70%에 불과했다. 이는 2012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볼 때 사회적 소외가 심화되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다문화인 중 취업자의 비율은 63.9%로 우리나라 전체 고용률 60.3%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러한 취업자 비율은 한국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였으며, 15년 이상 거주자의 취업자 비율은 72.5%에 달하였다. 하지만 다문화인의 취업 직종을 살펴보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비율은 12.2%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 단순노무종사자(29%), 서비스종사자(18.7%), 단순조립종사자(14.6%)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문화인이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들에 비해 전문 직업이 아닌 3D 업종에 편중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일자리를 구한 경로를 분석한 결과, 친구나 이웃과 같은 지인의 소개가 43.5%로 가장 많았고, 광고나 공공기관의 소개 등을 이용한 경우는 24.8%로 다소 적게 나타났다. 이처럼 현재 다문화인이 직업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다문화인에 대한 직업교육과 직업정보에 대한 안내 서비스가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결혼이민자의 40.9%가 국적을 취득하였으며, 15.8%가 영주자격을 소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문화를 버리고 한국의 문화나 관습을 따라야 한다는 것에 58.1%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절반 이상의 다문화인이 한국문화 동화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층이 높을수록,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동화를 지지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소득수준이 높거나 학력이 높은 경우 동화에 대한 지지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인의 35.9%는 지난 1년 동안 우울한 감정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7.4%의 다문화인은 우울한 감정을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필리핀과 베트남 등과 같은 동남아 출신이 높은 우울감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다문화인의 11.6%가 치료비의 부담과 한국어 사용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인해 지난 1년간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었다(정해숙 외, 2016).

지금까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현 주소를 기술하였다. 다음에는 다문화사회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다문화 교육과 다문화 효능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2. 다문화 교육과 다문화 효능감

최근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했거나 또는 진입중에 있으며, 대한민국 역시 그러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국가적 이데올로기나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곧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 증대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김영순 외, 2017). 이와 같은 이유로 현재 다문화 교육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다문화 교육의 정의와 특징을 다룰 뿐만 아니라, 다문화 교육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다문화 효능감도 함께 살펴보려고 한다.

1) 다문화 교육과 다문화인식

다문화 교육은 흔히 이주근로자, 결혼이민자 등과 같은 소외된 집단을 돕기 위한 복지적 차원의 교육으로 간주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화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등장은 다양한 문화와 언어에 대한 이해와 적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교육적 수요 역시 높아지고 있다. 서종남(2008)은 문화의 경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됨과 동시에 교육에서 다뤄져야 할 교육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다문화 교육은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다문화 교육은 타문화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지양하고 다름(difference)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다.

한편 Banks(2008)는 다문화 교육을 모든 사회계층, 인종, 성별, 문화적 집단 등에 학습을 위한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학교나 다른 교육기관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교육 개혁운동이라 정의하였다. 또한 그는 다문화 교육에 대해 범하기 쉬운 오해 세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교육은 소수만을 위한 교육이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기 쉬운 사실 중 하나가 다문화 교육을 사회적 약자, 여성 등만을 위한 복지프로그램 혹은 교육과정이라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다문화 교육은 문화적·민족적 다양성이 증대되는 현 시점에서 모든 학생들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함양하는 총체적 교육이다. 즉, 다문화 교육은 특정 인종이나 성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현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학생들이 다문화적 식견을 갖추고 타인을 배려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다.

둘째, “다문화 교육은 반(反)서구적이다.” 몇몇 학자들이 다문화 교육은 반 서구적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다문화 교육에는 자유, 정의, 평등이라는 서구 민주주의적 이데올로기가 함축되어 있다. 즉, 다문화 교육은 미국 개국 초기의 극소수 계층에만 부여되었던 시민적 이상을 모든 시민에게 부여하고자 노력한 민권 운동과 그 맥을 같이한다. 현재 다수의 다문화 교육학자들이 서구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반서구적인 것이 아니라 주장하고 있다. 즉, 서구사회의 발전이 많은 유색인종과 여성의 희생과 기여 덕분에 인정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교육과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셋째, “다문화 교육은 국가를 분열시킨다.” 일부 비판가들은 다문화 교육에서 인종과 문화를 강조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통합을 방해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은 국민이 자신의 과거와 민족성을 벗어 던지게 함으로써 하나의 공통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었음을 주장한다. 하지만 Schlesinger(1991)는 다문화 교육이 분열된 국가를 통합하기 위한 교육이지 국가를 분열시키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역설하였다.

이러한 벅크스의 주장을 통해 우리는 다문화 교육이 특정 민족 혹은 특정 집단만을 위한 차별교육이 아닌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이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다문화적 현 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Bennett(2007)은 다문화 교육을 민주주의적 신념에 기반 하여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회에서 문화 다원주의를 지지하는 교수·학습 접근법이라 정의하였다.

그는 미국과 같은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는 공교육의 주된 목표가 모든 학생의 지적·사회적·개인적 발달을 도모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있다고 주장하며, 다문화 교육의 구성주의적 접근을 강조하였다. 또한 베넷은 다문화 교육을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평등-균등 교육을 지향하는 운동, 개혁-다원주의적 접근에서 교육과정을 재고하는 것, 문화교류-상호작용을 위해 타 문화와 자 문화에 대한 관점을 지각하는 것, 사회정의와 차별, 특히 인종차별, 남녀차별, 계급주의와 같은 모든 편견과 맞서는 실행교육이 그것이다(서종남, 2008).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볼 때, 다문화 교육의 기본 개념은 인종, 성, 사회적 계급 등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이며, 이를 위해 교육기관에서는 학생들이 교육적 평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다문화 교육 결과로, 학생들은 타 집단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다양한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의 상호이해와 평등관계를 중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다문화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올바른 다문화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행위이며, 이때 올바른 다문화인식이란 자신과 다른 문화, 민족, 성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며 개인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조운주,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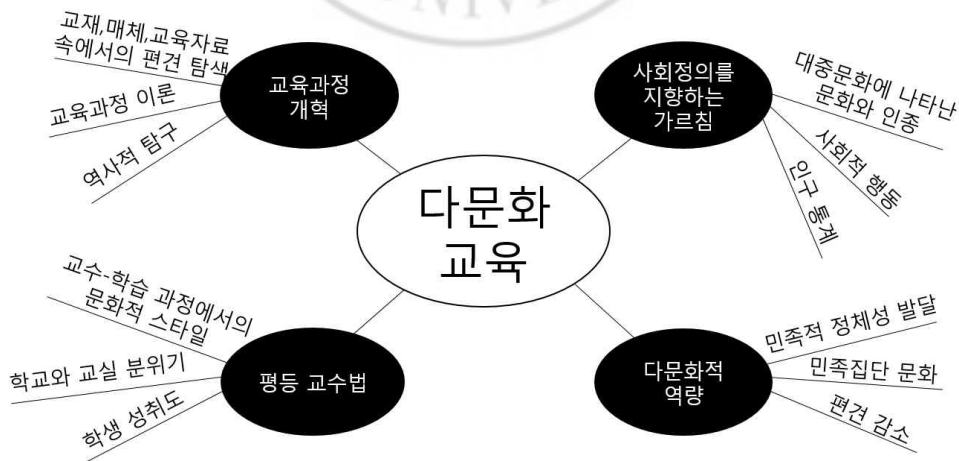
Bennett(2001)은 [그림 II-1]과 같이 다문화 교육을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평등 교수법’, ‘교육과정 개혁’, ‘사회정의를 지향하는 가르침’, ‘다문화적 역량’이다. 이러한 다문화 교육의 네 가지 영역에 대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등 교수법은 교사가 학급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조성하고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절한 교수기법을 사용하며, 학생들의 다양한 맥락을 이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다문화집단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평등의 증대는 다문화집단과 같은 소외집단의 학생들이 학교생활 가운데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완화시킬 것이며, 이는 곧 높은 수준의 학업성취로 이어질 것이다.

둘째, 교육과정 개혁은 기존의 교육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조사하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즉, 단일 민족 중심의 관점에서만 다뤄졌던 기존의 교육과정에 다민족적인 관점을 포함하여 국제화 시대에 맞는 교육내용을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 개혁은 다문화 집단뿐만 아니라 비(非)다문화 집단에게도 관심을 기울이며, 이는 다문화 집단에만 초점을 맞추는 평등 지향 운동과는 다른 부분이다.

셋째, 사회정의를 지향하는 가르침은 교사가 불평등한 사회 혹은 문화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와 해결방안을 신중히 고민하고, 이를 학생과 함께 나누는 과정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성, 인종, 민족이 다른 사람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통념을 바로잡고 인간의 평등성을 강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넷째, 다문화적 역량은 교사가 자신과 다른 다문화 학생을 편안하게 대하는 방법과 그들과 상호작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다문화적 역량은 국가 간(between) 혹은 국가 내(within)에 존재하는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이를 조율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다문화 교육에서는 역량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왜냐하면 결국 다문화적이 되어 간다는 의미는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림 II-1] Bennett(2001)의 다문화교수법 개념도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볼 때, 현재까지 다문화 교육에 대한 실천과 연구는 매우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학교 현장에서 그 활용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예비목회자를 양성하는 국내 신학대학원에는 선교학 등에서 부분적으로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뿐 체계적인 다문화 교육과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는 ‘다문화 선교’, ‘목회의 다문화적 환경’, ‘다문화 신학’, ‘문화 간 연대 경험’ 등과 같은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는 미국 ATS(신학교협의회) 소속의 학교들과는 대비되는 부분이다(박종석, 2012).

최근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다문화 교육을 수행하는 교수자의 다문화역량 역시 강조되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다문화역량을 다문화인식, 다문화지식, 다문화기능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연구자로 D. W. Sue를 제시할 수 있다(박선미, 최정호, 정이화, 2012). Sue는 다문화역량을 신념과 태도(Belief and attitude), 지식(Knowledge), 기능(Skill)으로 구분하였으며 이후 신념과 태도를 인식(Awareness)으로 바꾸어 이를 토대로 다문화상담역량모델을 제시하였다(Sue, 1990). 이때 다문화지식은 자신의 세계적 가치관을 이해하고, 자신과 함께할 타 집단의 구체적 지식을 습득하며, 사회·정치적 영향력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문화기능은 언어적·비언어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본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문화가 다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상황을 적절히 중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문화인식은 가치관, 편견, 개인의 한계 등에 대한 자기인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 가지 요인 가운데 다문화인식은 다문화역량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개념의 모호성 때문에 현재 학자들마다 다른 정의를 내리거나 용어를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Holcomb-McCoy & Myers, 1999; Glockshuber, 2005; 박선미, 최정호, 정이화, 2012).

인식이라는 단어는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사물에 대한 개념을 획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다문화인식은 다문화라는 현상을 판단하는 개인적 관점 혹은 다문화에 대한 지각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다문화인식을 위와 같은 인지적 측면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수용성, 태

도, 문제 해결과 같은 실천적 측면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정지현, 김영순, 홍정훈(2014)은 다문화인식을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비판적으로 행동하고 주변인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실천적 차원의 개념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Pope & Reynolds(1997)는 다문화인식을 7 가지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타문화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는 신념’, ‘자신의 편견에 대한 인식과 시정 의지’, ‘사회적 변화를 위한 의지와 헌신’, ‘자문화와 타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세계관 수용’,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이 문화는 아닐 것이라는 믿음’, ‘자신의 행위가 타인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자각’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Constantine & Ladany(2001)는 다문화인식을 ‘자기인식’, ‘다문화적 효능감’, ‘열린 마음’, ‘헌신’, ‘융통성’, ‘책임감’, ‘호기심’, ‘사회·정치적 인식’, ‘문화적 민감성’의 9 가지 하위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Gay(1977)는 다문화인식 대신 다문화태도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를 문화적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태도, 자기 인식, 다문화 교육에 대한 효능감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용어의 차이만 있을 뿐 앞서 Sue(1990)가 제시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Banks(2008) 역시 다문화인식 대신 타문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처럼 현재 다수의 연구자가 다문화인식이 갖는 용어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문화인식 대신 다문화태도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박선미, 최정호, 정이화(2012)는 다문화태도는 다문화인식과는 다르며 그 이유로 자신에 대한 의식이나 신념 등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음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다문화인식은 용어의 모호성으로 인해 이를 하위 요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거나 다문화인식이 아닌 다른 구체적인 용어로 변환하여 제시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다문화인식의 개념을 전달하고 있으며 아직 다문화인식에 대한 합의된 정의나 개념이 도출되지 않고 있다(박선미, 최정호, 정이화, 2012). 하지만 적어도 다문화인식이 다문화역량에 포함되는 중요한 요인이며, 이는 개인의 신념과 태도에 대한 자기인식 뿐만 아니라 효능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는 사실에 다수의 연구자가 동의하고 있다(모경환, 2009; 이종식, 2013; 이기용, 박창언, 2014).

한 개인의 인식은 그 사람의 태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올바른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다문화 교육을 수행하는 목회자들 역시 올바른 다문화인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한국 국민의 대부분은 다문화인에 대해 편견과 고정관념 같은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윤인진, 2016). 특히 개신교의 경우, 사회적 약자인 다문화인을 적극적으로 돕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유일신을 섬기는 종교적 특징으로 인해 타민족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는 등 다문화에 대한 이중적 인식이 존재하기도 한다(김성영, 오영훈, 2013).

이러한 다문화에 대한 개인의 부정적 인식은 한 번 고착되면 이를 수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부정적 인식이 고착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만약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고착된다면 이를 수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올바른 다문화인식이 먼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목회자로 하여금 올바른 다문화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곳이 바로 개신교 신학대학원이다. 그 이유는 신학대학원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 교육은 곧 예비목회자의 올바른 다문화인식과 다문화 교육 역량 함양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향후 올바른 다문화인식과 다문화 교육 역량을 가진 목회자를 양성하게 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학생들 즉, 예비목회자들이 올바른 다문화인식과 다문화 교육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신학대학원에서부터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는데, 대표적인 다문화 교육 역량 중 하나가 다음 절에서 설명할 다문화 효능감이다.

2) 다문화 효능감

다문화 효능감은 Bandura(1977)가 제시한 자기효능감이란 용어로부터 시작

되었는데,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어떤 행동 혹은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하며 이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신념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채민성(2008)은 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특정 상황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해당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효능감이 낮은 학습자는 활동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다문화 효능감은 다문화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라 말할 수 있는데, 만약 다문화 효능감이 부족할 경우, 문화적 갈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다문화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증가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Perkins & Mebert, 2005).

모경환(2009)은 다문화역량 가운데 하나의 요인으로 다문화 효능감을 제시하였다. 다문화 효능감은 교사가 다문화 환경에서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교수를 수행하고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는 신념을 의미하는데, 이는 Sue(1990)가 제시한 다문화역량의 신념/태도 영역과 비슷한 맥락의 개념이다. 따라서 모경환이 제시한 다문화 효능감은 다문화역량 가운데 하나인 다문화인식과 비슷한 의미로 볼 수 있다.

상술한 것처럼 다문화 교육의 목표는 학생들이 공평한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그들이 지닌 고정관념과 편견을 없애는 것이므로, 교사의 다문화적 교수역량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이때 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학생들의 실패에 너그럽고 학생들의 낮은 성취를 외부 요인으로 설명하려 노력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Gibson & Dembo, 1984). 이처럼 다문화 교육의 목표와 효능감의 특징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다문화 효능감은 현재 다문화 교육 관련 연구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문화 효능감이라는 용어는 Guyton & Wesche(2005)의 다문화 효능감 척도(Multicultural Efficacy Scale) 개발 연구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자기효능감과 교수 효능감이라는 개념에서 부분 발전하였다. 이때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특정 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하는데, 자기효

능감이 높은 사람은 개인의 행동이 변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 신념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전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만약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다문화적 상황에 놓이게 환경의 변화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긍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높다(이정인, 2009). 또한 교수 효능감은 교수자가 자신의 능력에 대해 내리는 개인적 평가로 교수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다문화인을 긍정적으로 대할 수 있으며, 자신과 다른 다문화인의 특징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김태동, 2011).

한편 Guyton & Wesche(2005)는 다문화적 환경에서 교사가 갖고 있는 교육적 자신감을 다문화 효능감이라 정의하였다. 즉, 교사가 다문화적 환경에 적합한 교수법과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다문화사회에 적합한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바로 다문화 효능감(Multiultural Efficacy)이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들은 교사의 다문화 효능감을 측정할 수 있도록 다문화 효능감 척도(Multicultural Efficacy Scale)를 개발하였고, 이 척도는 경험에 대한 7문항, 태도에 대한 7문항, 효능감을 측정하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충욱, 모경환(2007)은 이 척도의 장점으로 그동안 간과되었던 다문화적 효능감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즉, 기존의 다문화 관련 척도는 대부분 다문화적 태도나 다문화 교육 태도 등을 측정하고 있지만, 교사의 일반적인 다문화 태도가 반드시 수업에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다문화적 수업에 대한 교사의 신념, 즉 다문화 효능감이 오히려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현재 다문화 효능감, 특히 교사의 다문화 효능감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대부분 Guyton와 Wesche의 다문화 효능감 척도를 활용하고 있다.

효능감의 경우, 특정과업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는 영역 일반적 개념이 아닌 영역 특수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다문화 효능감 역시 영역 일반적 개념이 아닌 영역 특수적 개념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해 다문화 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학교, 교사, 학생 등과 같이 교육학 분야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다문화적 상황에 놓여 있는 다양한 실천현장 예컨대, 상담학, 사회학, 복지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다문화 효능감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학교와 관련된 실천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영역 특수적 개념의 다문화 효능감을 측정할 측정 도구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최소연, 이상철(2015)은 사회복지학 관련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다문화 효능감 설문 도구를 개발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현재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다문화 효능감 연구의 대부분이 외국척도를 번역하여 활용하고 있어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제기하며 개발된 척도의 타당도 검증을 함께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로 다문화 효능감은 문화적 태도, 지식, 기술, 인식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척도에 대한 내용은 <표 II-5>와 같다.

이 연구의 설문 조사에서는 최소연, 이상철(2015)의 다문화 효능감 척도 중 예비목회자에 해당할 수 있는 항목들을 선택하여 재구성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문화 효능감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능력으로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다문화 교육의 성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교수자의 역량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표 II-5> 다문화 효능감 척도

요인	문항
다문화 태도	나는 도움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내가 선호하는 것과 내가 만나는 다문화 대상자가 선호하는 것이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나는 내가 만나는 다문화대상자가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나는 돕는 전문가로서 나의 문화적 배경과 정체성을 알고 있다.
	나는 다문화 대상자와 관계형성을 위해 그 대상자가 속한 문화의 요소를 활용할 수 있다.

요인	문항
	나는 돕는 관계에서 다문화 대상자와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
	나는 다문화 대상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지역사회의 여러 체계(기관)와 협력할 수 있다.
	나는 돕는 과정에서 다문화 대상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수 있다.
	나는 다문화 대상자가 내가 제공하는 정보를 이해하지 못하여 반복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할 때에도 최대한 친절하게 대할 수 있다.
	나는 다문화 대상자의 권리향상과 옹호를 위한 노력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
	나는 다문화 대상자와의 관계에서 공감적인 태도로 경청할 수 있다.
	나는 다문화 대상자와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관된 태도로 대할 수 있다.
다문화 지식	나는 다문화 대상자를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과 서비스를 파악하고 있다.
	나는 다문화 대상자의 인종, 민족, 피부색 등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
	나는 다문화 대상자들의 종교, 사회계층, 성적 취향과 관련된 지식을 갖고 있다.
	나는 다문화 대상자를 만나면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다.
	나는 다문화 대상자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
	나는 다문화 대상자를 대할 때 어떤 상황에서 가치가 충돌하는지를 알 수 있다.
다문화 기술	나는 다문화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나는 다문화 대상자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의미를 알 수 있다.
	나는 다문화 대상자가 직면하고 있는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요인	문항
	나는 다문화 대상자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나는 내가 만나는 다문화 대상자의 강점을 활용하여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나는 내가 만나는 다문화 대상자가 문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을 알 수 있다.
	나는 전문가로써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다문화 대상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다문화인식	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 대상자는 한국 사람과 같은 사회의 구성원이다.
	다문화 대상자가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먼저 그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해야 한다.
	나는 내가 만나는 대상자의 출신국가, 피부색, 종교에 따라 차별을 하지 않는다.
	나는 다문화 대상자를 대할 때 한국의 서비스 이용자와 똑같은 태도로 대할 수 있다.

출처 : 최소연, 이상철(2015). 다문화 효능감 척도 개발 연구

이 설문 도구에서 다문화태도 문항은 다문화인과의 상호작용과 대처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문화지식 문항은 다문화에 대한 지식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다. 또한 다문화기술 문항은 의사소통, 문제해결 등 다문화적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술적 측면을, 다문화인식 문항은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인식에 대한 측면을 다루고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현재 다수의 학자가 다문화인식과 다문화 효능감이 서로 연관이 있음을 주장한다(조윤주, 2010; 권미은, 권미지, 이미아, 2012; 김남희, 임선영, 2014; 이기용, 박창언, 2014; 장익준, 이기용, 2014). 또한 Melendez & Beck(2007)은 효율적인 다문화 교육을 위해서는 교사 본인과 학

생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편견과 차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짐으로써 성공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 즉 효능감을 가져야함을 강조하였다(김영인, 2011 재인용). 앞서 <표 II-5>를 통해 제시한 바와 같이 다문화 효능감의 하위요인에는 다문화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이 포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다문화 효능감을 다루기 위해서는 다문화인식을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개신교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과 함께 다문화인식 수준이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2.3. 다문화인⁴⁾의 성경적 이해

다문화인에 대한 성경적 해석이 필요한 이유는 성경 자체가 다문화적 가치관에 기반하여 쓰였기 때문이다. 이는 [표준새번역] 레 19: 34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 때에는 외국인 나그네 신세였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예수님도 성별, 인종, 계급, 몸의 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였고, 그 제자인 사도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이처럼 기독교 역사는 나라와 국경을 넘어 확장되어왔다. 다문화는 세계화가 진행되는 현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 다시 말해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다문화가 우리의 삶에 더 밀접하게 연결되었을 뿐 타 종교 상황에서 시작한 기독교는 서구와 한국의 기독교를 꾸준히 세워왔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구약과 신약에서 나타나는 다문화인에 대한 배경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구약의 다문화인

구약성경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이에 따른 윤리적 결단을 요구하는 주요 진술들을 포함한다. 이 고대 진술들은 오늘의 다문화인에 대한 인식과 효능성에 대해 의미하는 바가 크다. 그 중 이스라엘의 ‘짧은 신앙고백(short creed)’과 십계명 중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 그리고 이스라엘의 핵심 신앙요소인 성전제의에 비판적이며 보충적인 이른바 예레미야의 “성전설교”는 이스라엘의 다문화인식과 다문화에 대한 윤리적 결단을 포함하는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이때 짧은 신앙고백이란 신명기 26:5-9의 진술을 말하며 이는 이스라엘 온

4) 다수의 정부 정책과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 이주한 외국인들을 다문화인이라 칭한다. 이처럼 이주민을 다문화인으로 칭하는 것에 대한 많은 비판과 논의가 있으며, 본 연구자 역시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통용되는 용어인 다문화인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백성들이 추수절기이며 동시에 신년절기인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 낭송하고 기억해야하는 신앙적 고백이다(Von Rad, 1966).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매우 압축적인 것으로서 이스라엘의 시조가 아람 땅에서 “유리하는” 사람이었으며, 자신의 땅에서 정착민으로 살기 전에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이다.

5.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6. 애굽 사람이 우리를 확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7.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8.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9. 이곳으로 인도하시어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신명기 26장 5-9 절)

위 내용 가운데 5절은 “유리하는 아람인”은 이스라엘의 억울한 과거를 상기시킨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출처이며 이스라엘 백성으로 조상으로 추앙받는 야곱은 가나안의 아버지 집을 떠나 아람의 외삼촌 집에서 일군으로 살았었다. 그는 빈털터리로 노동을 제공하며 숙식을 해결했고, 물질이 없기 때문에 아내들을 얻기 위한 값으로 14년간 노동을 제공했다. 이는 당시 그곳의 신부 값의 배나 되는 불평등 노동이었다. 첫 아내를 얻기 위해 7년간이란 무임금 노동을 요구받았는데 이것은 매우 비싼 값이다. 주전 15세기의 바벨론 누지에서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불하는 신부 값이 평균 은 30-40세겔로 알려지고 있다. 함무라비 법전(약 1750년)에 의하면, 고대 바벨론 사회에서 임시노동자의 임금은 한 세겔이었다(함무라비 법전 §273). 야곱의 임금으로 매월 은 한 세겔로 계산하면 7년 노동의 대가 84세겔은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지불한 것이다(Walton, 2009).

외삼촌 라반은 야곱이 원하지 않은 여자를 아내로 주며 큰 딸이 먼저 시집가는 것이 관습이라며 야곱을 타문화인으로 구별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다른 여자가 들어 온 것을 보고 외삼촌 라반에게 항의하자 라반은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고 말한다(창 29:25-26). 야곱은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인으로 취급받았다. 가족임에도 야곱은 십 수 년간의 노동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수차 계약위반을 당했으며 그의 아내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처럼 구약성경에서는 다문화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시각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사건 몇 가지를 구약의 순서대로 제시하고자 한다.

모세오경에서 나타나는 이방인에 대한 관점은 고대의 다른 경전이나 법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예컨대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이 본인을 모두 나그네 혹은 이방인으로 지칭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하면서 철저히 이주민의 설움을 당하기도 하였으며, 해방 후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이방인을 선대하라는 법을 제정하기도 한다.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다문화인의 관점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히브리’ 즉, 이주민의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찾아 사막을 여행하였다. 아브라함은 정치 없이 이곳저곳을 방황하는 이주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좇아 새 땅을 찾는 이주민이다(Habel, 1995). 또한 아브라함은 다양한 문화를 지닌 여러 족속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였다. 창세기 16장과 21장에서는 하갈과 그녀의 아이인 이스마엘의 이야기 속에서 다문화적 삶의 원리를 찾아볼 수 있다. 하갈은 이집트 출생의 몸종이었으며 후손을 낳기 위한 대리모였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이를 질투해 하갈을 적대시켰고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요구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방인 노예이며 첩의 아들인 하갈과 이스마엘의 울음에 반응하셔서 이스마엘을 통해 큰 백성을 이룰 것이라 축복하신다. 이러한 축복의 말씀은 오늘날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게 큰 소망의 빛을 주는 말씀이다. 강성열(2010)은 이를 통해 공평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하나님은

이삭이라고 혹은 이스마엘이라고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경외하고 의지하며 사랑하는 자를 만나고 찾아주신다는 것이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핵심인물인 모세는 다문화 정체성을 가지고 자란 사람이다. 그는 히브리와 이집트 양쪽의 문화, 언어, 학식에 탁월하였으며, 훗날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을 확고히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위해 노력하였다. 출애굽기 22:21을 살펴보면 “이방 사람을 학대하거나 억압하지 말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사람이었다.”는 구절이 등장하고, 23:9에서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는 구절이 등장한다. 이처럼 출애굽 때에는 이방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기도 하였으며, 이방인의 처지를 공감하고 이들에 대한 개방성을 지니고자 노력한다. 출애굽기에서 나타나는 다문화적 선교사상은 출애굽기 12:38의 다양한 족속들이 함께 출애굽 하였다는 기록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즉, 이스라엘은 혈통을 중요시하기도 하지만 합류하는 이방인 역시 신앙공동체로서 같은 백성이 된다. 이러한 선교적 사명을 잊고 선민의식에 빠져 타락했을 때 이스라엘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최경순, 2011).

레위기에서는 법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방인을 언급하는데, 초기에는 이방인을 보호대상으로 보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과 동등하게 율례를 지켜야만 했다. 레위기 19장에서는 ‘이방인을 돕기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한다. 또한 22장에서는 개종한 이방인은 이스라엘인과 동일한 법이 적용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신명기에서는 ‘이방인을 학대하지 말고 추수한 것을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을 위해 남겨두라’ 말하고 있다.

신명기 26장 6-8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받은 고통을 진술한다. 야곱의 후손들은 자유인으로 이집트로 이주했으나 제국의 욕망에 희생되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하는 강제 노역에 동원되었다. 이에 신명기 26장 5-8절에서는 거류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이 담겨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으로서의 기원역사일 뿐 아니라 타문화 거류민들에 대한 환대와 호의를 요구하는 신조이며 선언이다. 영토가 확장되고 경제가 부흥하고 수많은

은 다문화인들이 거주하는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자신들이 고통 받던 다문화 경험 진술이 이스라엘이 겸허함을 잊지 말 것과 자신들의 땅에 거주하는 다른 다문화인에 대한 적합한 인식과 행동을 요구하는 명령이 된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나타나는 십계명 중 제 4계명은 안식일 계명으로, 그 핵심내용은 매주 하루씩 절대적 노동 중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출애굽기 20장은 이 중지의 안식일이 창조역사에서 하나님의 일 중지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금지명령이라고 설명한다. 노동금지는 당연히 노동하는 사람들의 휴식에 대한 절대적 요구로 이어진다. 신명기 5장은 다음과 같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안식일 준수를 설명한다.

12.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13.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4.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15.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 5장 12~15절)

인간은 생산을 위한 수단도 짐승도 아니다. 노동으로부터의 휴식은 하나님이 부여한 권리이며, 이것은 일에 나서는 모든 생명에게 해당된다. 가축도 쉬어야 하는데, 가축이 쉬어야 종이 쉴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으로부터 쉬어 주어져야 하는 대상에는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다. 이는 다른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에 들어와 거주하며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 혹은 노동이주민을 말한다. 십계명은 이와 같이 다문화에 대한 바른 인식과 적합한 행동들을 규정한다.

역사서 중에는 룻기에서 다문화와 관련된 관점이 드러나고 있다. 먼저 룻은

모압 여인으로, 멸망한 가문에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모심으로써 결국에는 다윗의 증조가 되는 이야기이다. 이는 하나님이 혈통이 아닌 그 사람의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인종이나 문화의 벽을 넘어 선다는 교훈을 준다. 이처럼 룻기에 나타난 다문화가정의 이야기는 본인의 의지와 가족의 협력 그리고 사회의 도움이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선지서 가운데에는 예레미야와 요나서에 다문화에 대한 관점이 잘 드러나고 있다. 예레미야 7장에 나타난 예레미야의 성전설교는 참다운 종교란 교리나 예전에 있지 않고 약자에 대한 바른 태도와 행동이라고 말해준다.

1.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2.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3.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4.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5.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6.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7.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무궁토록 준 땅에니라 (예레미야 7장 1~7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이래 성전과 성전예전 그리고 성전종사 종교인들은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로 인정되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흔들림 없는 신학이다. 그곳에 주기적으로 가는 것, 예물봉헌, 그리고 종교적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전한다. 세 번 반복되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것은 “거짓말”이며 헛소리라는 것이다. 열심을 넘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길과 행위”로 요약되는 바른 삶이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는 것과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는 보호자나 보호막이 없는 사람들이다. 가난할 뿐 아니라 자주 억울한 대접을 받게 된다. 예레미야는 참다운 신앙이란 예전이 아니라 사회약자에 대한 바른 인식과 행동거지라고 말한다. 예레미야가 보호해야 할 약자 중 첫 대상으로 이방인을 언급한 것은 교회와 목회자에 대해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스라엘 고아와 과부도 있지만,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는 당시의 다문화인의 상황이다. 이방인은 앞에서 본 본문들에서 말한 “객”과 같은 단어이다. 이방인 아버지가 없는 고아와 홀로 버려진 과부는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성경은 신앙공동체가 이러한 사회약자, 특히 열약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다문화인을 보살펴야함을 명령한다.

요나서에서는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계획을 잘 나타내고 있다. 요나서는 오랜 시간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이방의 회개와 구원을 촉구하는, 이스라엘 선지자로서는 다소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다. 요나는 이방인에 대한 심판이 감해지는 것을 반대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불순종하고자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향한 그의 구원계획을 끝까지 관철하신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오랜 대적이라도 관심을 가지시며, 그들의 회개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스라엘인만을 향한 사랑이라는 편견을 깨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교훈을 증거하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구약성경은 주류사회에서 자주 멸시와 소외와 억압의 대상이 되는 다문화인에 대한 호의와 배려를 강력히 주문한다. 현재 다수의 개신교인뿐만 아니라 목회자 역시 성경을 이스라엘 중심의 시각으로 보고 있다. 이에 다문화에 대한 구약성경의 주요 인식과 명령들을 빠뜨릴 때가 종종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구약성경의 저변이 다문화에 대한 바른 인식과 적합한 태도와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나 교역자들이 구약성경의 주요 관점에 주의하지 않은 것은 시정되어야 할 점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연구는 개신교 예비목회자가 다문화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숙지하고 또 목회적

차원에서 다문화에 대한 바른 인식과 능력을 갖추는 데 일조하리라 본다.

2) 신약의 다문화인

앞서 구약에서 드러난 다문화인의 관점을 통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드러났다. 구약과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이방인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알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방인을 대하셨으며, 이방인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살펴봄으로써 신약에 드러난 다문화 세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예수님은 종교적, 사회적, 인종적, 경제적, 성적, 인종적 차별을 넘어 보편적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전도사역을 명하실 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마 10:5-6)”고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음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이방인에 대한 선교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사복음서에는 죄인과 세리 등 소외계층과 가까이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문화적으로 소외된 다문화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친구가 될 때 예수님의 제자도를 실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기적이고 편협한 사고를 지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후에는 약자를 도울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순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Coleman(1989)은 기독교교육의 과제로 그리스도인의 제자도(discipleship)를 강조하였는데, 이는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기독교인을 의미하며, 기독교인들이 사회의 기득권층에 대항하고 약자들을 보호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소외계층과 다문화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는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한 올바른 자세이다.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고, 이에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가 나타난다. 사마리아의 역사적 배경

으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사마리아인들을 더럽혀진 지역의 사람이라고 여겼다. 즉,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시를 들며 우리 중 누구라도 다른 종교나 문화의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다면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이에 우리도 인종과 문화를 초월한 사랑을 줄 때 영생이 주어짐을 말하였다. 또한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우리가 하나이듯 저들도 주안에서 하나가 되게”라는 예수님의 대제사장기도는 우리가 다문화인 선교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은 이방인과의 식사 중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해 자리를 피하려고 한 바나바를 질책한다. 바울은 강하거나 자유로운 파벌의 형성에는 동의하지만 그들이 우위성과 배타성을 지니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강한 자는 자신의 강함을 자랑치 않고 약한 자는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롬 14:1~3). 이처럼 우리는 다문화인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거나 소통할 때 혹은 사소한 갈등을 겪을 때 위선 없는 사랑으로 이를 극복해야 한다. 또한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대한 내용이 나타난다. 만약 다른 문화와 종교를 가진 사람과 식탁 교제를 할 자리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에게 어떤 음식을 대접할 것이며 반대로 무슬림이 우리에게 할랄 음식을 대접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바울은 이에 대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하고 있다. 즉, 그리스도인의 식탁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성경은 다문화인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유사하게 사용하는 용어로 ‘나그네’와 ‘거류민’ 혹은 ‘이방인’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경에서는 나그네를 도와주고 사랑하며 섬기고 보살피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처럼 다문화인에 대한 관심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중 가장 중심점에 놓여 있으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즉, 오늘날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우리를 다문화인들과 함께 공존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우리의 사명이다.

따라서 목회자들이 ‘이방인’인 다문화인들을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이

며 복음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다문화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문화인에 대한 인식개선은 예비목회자 과정부터 교육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경우, 성경의 말씀대로 ‘이방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보살펴 줄 수 있을 것이다. 목회자들이 사역현장에서 성경의 말씀대로 실천할 경우, 다문화인들은 한국교회가 지향하는 선교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눅 14장 12~14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았음이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4장 12~14절)

2.4. 소결

최근 한국사회는 체류 외국인의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곧 우리나라 역시 서구 대부분의 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임을 암시한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 자료로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자료를 들 수 있는데, 2013년 약 158만 명에 불과했던 체류 외국인 수는 2018년 현재는 약 225만 명으로 5년 만에 67만 명 이상이 증가하였다. 국내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 가운데 다문화가족은 약 96만 명으로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약 32만 명, 배우자 등 기타 가구원이 약 44만 명,

이들의 자녀가 약 21만 명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과 같은 법제화를 통해 체류 외국인을 돕고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와 관련된 다수의 연구 결과는 한국사회의 다문화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며 체류 외국인의 지원과 복지 기반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주민들의 요구를 채워주고, 일반인들의 다문화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다문화 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초창기의 다문화 교육은 주로 소외된 집단을 돕기 위한 복지적 차원의 교육 형태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반인의 다문화인식 개선과 글로벌 시대에 맞는 역량 함양이 교육 과제로 대두되면서 이주민과 일반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다문화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다문화 교육을 수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요소가 바로 다문화 교육을 수행하는 교수자의 다문화역량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다문화역량을 다문화인식, 다문화지식, 다문화기능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비록 용어의 모호성 때문에 다문화인식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내려지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다문화인식은 다문화역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다문화인식은 개인의 신념과 태도에 대한 자기인식 뿐만 아니라, 효능감 등과 같은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그 이유는 효능감 역시 개인이 어떤 행동 혹은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하며, 이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신념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의 성과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교사의 교수 효능감이 자주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성공적인 다문화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수자의 올바른 다문화인식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다문화 효능감이 필수적이다. 또한 상술한 것처럼 다문화 교육의 목표는 학생들이 공평한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그들이 지닌 고정관념과 편견을 없애는 것이다. 이때 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학생들의 실패에 너그럽고 학생들의 낮은 성취를 외부 요인으로 설명하려 노력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하고자 노력한다는 점을 감안해볼 때 다문화 효능감은 다문화 교육의 목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문화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첫 시도는 Guyton와 Wesche의 다문화 효능감 척도(Multicultural Efficacy Scale) 개발 연구에서 이루어졌다. Guyton와 Wesche는 교사가 다문화적 환경에 적합한 교수법과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다문화사회에 적합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바로 다문화 효능감이라 정의하며, 다문화 효능감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도구는 경험에 대한 7문항, 태도에 대한 7문항, 효능감을 측정하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국내 대부분의 다문화 효능감 연구는 Guyton와 Wesche의 다문화 효능감 척도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소연, 이상철(2015)은 이처럼 외국 척도를 단순히 번안하여 사용할 경우 타당성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며 국내 상황에 맞는 다문화 효능감 척도를 개발하였다. 그 결과, 문화적 태도, 지식, 기술, 인식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된 다문화 효능감 척도를 도출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문화 효능감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능력으로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다문화 교육의 성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교수자의 역량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 활용 시 국내 상황에 맞는 적절한 도구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최소연, 이상철(2015)에 의해 개발된 다문화 효능감 척도가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한 도구라고 판단된다.

또한 이 연구의 연구 대상이 개신교 예비목회자인 만큼 다문화에 대한 성경적 해석이 필요하다. 개신교 성서는 다문화적 가치관에 기반하여 쓰여 졌다. 예컨대 구약의 레 19: 34에서는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 때에는 외국인 나그네 신세였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구절을 제시

하고 있다. 또한 신약의 가장 중요한 인물인 예수님도 성별, 인종, 계급, 몸의 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였고, 그 제자인 사도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이처럼 다문화인에 대한 관심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중 가장 중심점에 놓여 있으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내한 선교사들 역시 종교적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목회자들이 ‘이방인’인 다문화인들을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복음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다문화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다문화인에 대한 인식개선은 예비목회자 과정부터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Ⅲ. 연구 방법

3.1. 연구 설계

현재까지 다문화인식과 다문화 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주로 양적 연구에 집중되어 왔다. 즉, 연구 대상에게 설문 조사 실시 후, 평균점수와 집단 간 평균차이를 분석하여 현 상태를 제시하는 방법이 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하지만 양적 연구의 경우, 객관성 확보와 일반화의 가능성이 높은 장점이 있는 반면, 현상을 미시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예비목회자의 다문화인식 수준과 다문화 효능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함께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혼합연구를 차용한 통합적 연구 방법(Mixed research methods)을 활용하였다.

통합적 연구 방법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편향된 방법론적 대립에서 벗어나 각 연구 방법이 갖는 장점을 활용하여 객관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세에서 시작되었다(김영천, 김경식, 이현철, 2011). 이처럼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이 갖는 장단점을 수용하고 이를 차용하여 통합적 연구를 수행할 경우,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 객관적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김영천, 2013a; 김영천, 2013b).

통합적 연구는 크게 다섯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결과의 수렴성 탐색’, ‘특정 현상의 증첩과 상이한 국면 탐색’, ‘역설, 모순, 신선한 관점의 발견’, ‘방법의 순차적 활용’, ‘연구의 폭과 범위를 넓히기 위한 통합적 방법의 활용’이 그것이다(Greene, Caracelli, & Graham, 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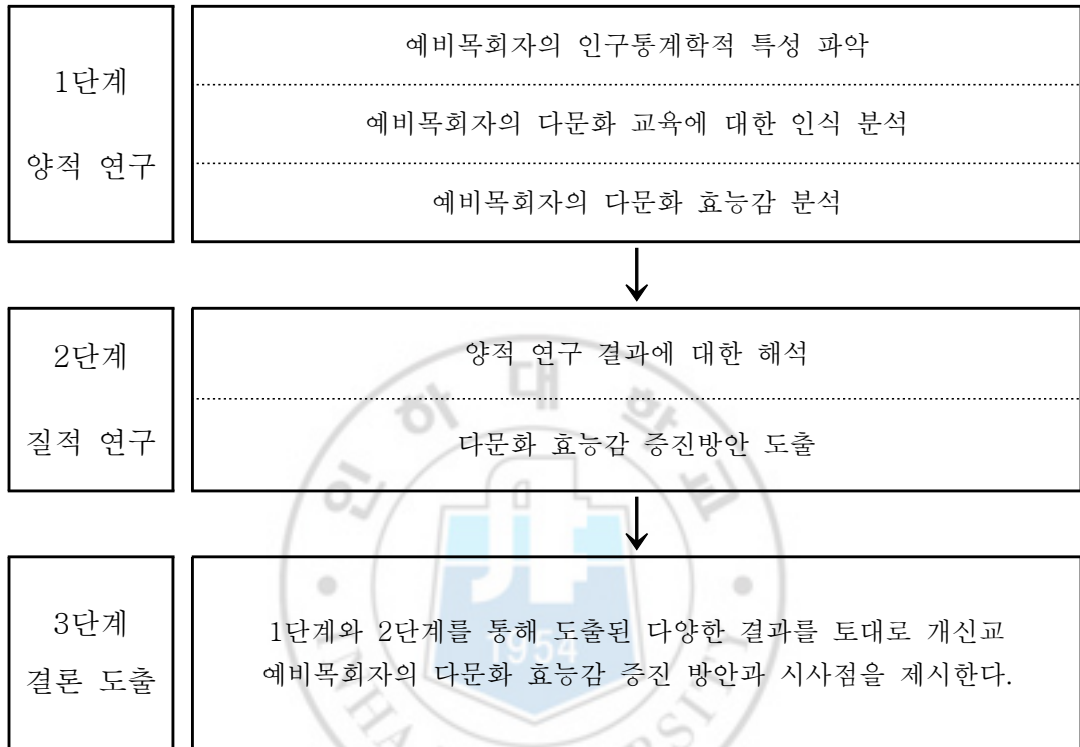
지금까지 통합적 연구 방법의 논의와 연구는 해외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예컨대 Tashakkori & Teddlie(1998)와 Creswell & Clark(2007)등

은 통합적 연구를 위한 연구 방법과 연구 설계 유형을 제시하였으며, Sage 출판사에서는 *Journal of Mixed Methods Research*를 통해 통합적 연구 방법에 대한 다양한 전략과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역시 통합적 연구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소수의 실험적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학위 논문, 특히 박사학위 수준의 논문에서 통합적 연구 방법을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김영천, 김경식, 이현철, 2011).

통합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기 위한 연구 모형에는 대표적으로 ‘Morse 모형’, ‘Creswell & Plano Clark 모형’, ‘Tashakkori & Teddlie 모형’ 등이 있다. 이 가운데 Morse 모형은 Morse(1991)의 연구에 의해 제시되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통합적 연구 방법 모형을 우선적 측면과 순차적 측면으로 구분한 네 가지 모형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모형은 양적 연구 중심의 설계로써, 양적 연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설문 문항을 제작하는 등의 활동으로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는 형태이다. 두 번째 모형은 질적 연구 중심의 설계로써, 첫 번째 모형과 반대로 질적 연구에 필요한 목적 표집, 면담 자료 수집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전에 양적 연구 방법을 수행하는 모형이다. 세 번째 모형은 양적 연구에서 질적 연구로 순차적인 설계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양적 연구 결과에 대한 미시적 분석과 이를 설명하기 위해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모형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모형은 질적 연구에서 양적 연구로 순차적인 설계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질적 연구 결과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을 위해 양적 연구를 활용하는 모형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개신교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증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Morse의 세 번째 모형, 즉, 양적 연구에서 질적 연구로 순차적 설계가 이루어지는 모형의 적용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양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 실태를 파악하였고, 이후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양적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과 다문화 효능감 증진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때, 앞서 2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다문화 효능감은 다문화인식과 밀접

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 실태 조사 단계에서는 예비목회자의 다문화인식, 특히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을 함께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 활용된 통합연구 모형은 [그림 Ⅲ-1]과 같다.



[그림 Ⅲ-1] 통합 연구 모형

[그림 Ⅲ-1]에 나타난 바와 같이, 1단계인 양적 연구 단계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한 후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효능감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2단계인 질적 연구 단계에서는 전문가 면담을 통하여 양적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 다문화 효능감 증진방안 제시, 다문화 교육 발전 방안 제시 등과 같은 다양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인 결론 도출 단계에서는 1단계와 2단계를 거치며 수집된 자료를 통해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 증진 방안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3.2. 자료 수집 및 자료 분석

자료 수집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데이터를 획득하는 과정이다. 이때 통합적 연구 방법의 자료 수집은 목적은 양적/질적 측면의 특징을 모두 고려함으로써 연구 방법의 삼각화를 추구하는 것이다(김영천, 김경식, 이현철, 2011). 따라서 통합적 연구 방법에서는 ‘설문 조사(Survey)’, ‘면담(Interview)’, ‘집단 심층면접(Focus Group Interview)’, ‘관찰(Observation)’ 등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양적 연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전문가 면담을 통해 질적 연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 대한 자료 수집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료 수집

(1) 양적 연구

이 연구의 모집단은 전국에 있는 예비목회자 전체이며, 현실적으로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표본 집단을 선정하였다. 이때 표본 집단 선정 방식은 비례유층표집 방법을 활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비례유층표집 방법의 경우, 모집단의 중요 특성을 사전에 고려하기 때문에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종승, 2009). 이에 이 연구에서는 지역별로 유층을 나누어 표본 집단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예비목회자 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전국 7개 학교⁵⁾에서 각각 100명, 총 700명의 학생을 표본 집단으로 선정하였으며,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를 위한 초기접촉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5) 연구에서 표본 학교로 지정된 7개 대학은 장로회신학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이다.

먼저 표본 학교로 선정된 7개 신학대학원 원우회에 연구협조 요청을 보냄과 동시에 유선으로 연구 목적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후 각 원우회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설문 조사를 수락하기로 결정할 경우,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방문이 여의치 않을 때는 원우회 대표에게 연구 목적과 연구 윤리적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받아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양적 자료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약 3달에 걸쳐 수집된 설문 조사 자료이다.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에게는 미리 준비한 기념품을 제공하였으며, 응답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익명으로 작성케 하였다. 그 결과 총 645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불성실 혹은 미응답 설문지를 제외한 493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2) 질적 연구

이 연구의 또 다른 연구 목표인 ‘개신교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 증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때 사용된 심층면담 질문지의 구성은 다음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심층면담 질문 내용 구성

질문 항목	질문 내용
· 신학대학원의 다문화 교육 실태	현재 신학대학원의 다문화 교육 실태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비목회자의 다문화인식 수준	예비목회자인 신학대학원생들의 다문화인식 수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학대학원의 다문화 교육과정 존재여부에 따른 다문화인식 수준 차이	신대원 학생들의 다문화인식 수준이 신대원에 다문화 교육 과정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항목	질문 내용
· 성별에 따른 다문화인식 수준 차이	요즘 들어 신대원에 여학생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신대원 남학생과 여학생의 다문화인식 수준에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차이가 있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연령에 따른 다문화인식 수준 차이	신대원 학생들의 연령분포도가 20, 30, 40, 50대인데 연령대에 따라 다문화인식 수준에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예비목회자의 다문화인식과 다문화 효능감 차이에 대한 해석	조사 결과 신학대학원생들의 다문화인식 수준은 보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문화 효능감은 보통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다문화인식이 높은 사람은 다문화 효능감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	신대원생들의 다문화 효능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낮으면 왜 낮다고, 높으면 왜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유무에 따른 차이	신대원 교육과정에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출신대학별 다문화 효능감 차이	신대원생들 중에서 일반대 출신과 신학대 출신들이 있습니다. 일반대 출신과 신학대 출신의 다문화 효능감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외국어 능력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 차이	신대원생들의 외국어 능력이 다문화 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해외 체류기간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 차이	신대원생들의 해외 체류기간도 다문화 효능감에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항목	질문 내용
· 연령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 차이	신대원 학생들의 연령분포도가 20, 30, 40, 50대인데 연령대에 따라 다문화 효능감에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 개선 방안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을 증진시키거나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성공적인 다문화 교육 방안	성공적인 다문화 교육 사례 혹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약 있으시다면 성공적인 다문화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필요하고, 또 해당 사례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을 살펴보면, 질문 1은 신학대학원의 다문화 교육 실태를 문의하고 있으며, 질문 2에서 질문 6까지는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부분을 질문하고 있다. 질문 7에서는 양적 연구 결과, 개신교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은 보통 이상으로 나타난 반면, 다문화 효능감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원인을 질문 8에서 질문 13까지는 다문화 효능감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질문 14에서는 개신교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 증진 방안을 질문 15에서는 성공적인 다문화 교육 방안을 질문하고 있다.

이와 같은 면담을 실시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을 선정하였으며, 이때 전문가 집단은 다음 <표 Ⅲ-2>와 같다.

<표 III-2> 연구 참여자 현황

번호	참여자	지역	성별	연령	경력	학력	활동 분야
1	A	서울	남	50대	17년	박사	신학대학교 교수, 목사, 다문화관련 저술
2	B	인천	남	50대	25년	박사	교수, 다문화 관련 저술가
3	B	안산	남	50대	24년	박사	교수, 목사, 이주민센터장. NGO 대표 / 다문화관련 저술
4	C	김포	남	40대	15년	박사 수료	외국인주민지원센터장, 목사
5	D	대전	여	50대	15년	박사	교수, 다문화관련 저술
6	E	호남	여	50대	20년	박사	신학대학교 교수, 목사, (전)이주민센터장
7	F	광주	남	50대	15년	박사	교수, 다문화 관련 논문, 책 다수발표, 다문화평화연구소장

<표 III-2>에 제시된 것처럼 연구 참여자는 총 7명이며, 서울, 인천, 안산, 김포, 대전, 호남, 광주지역의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성별은 남자가 5명, 여자가 2명이며, 연령은 40~50대에 분포하고 있다. 또한 모두 다문화 교육과 관련하여 15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으며, 학력은 박사가 6명, 박사수료가 1명이다. 활동 분야를 살펴보면, 신학대학교수, 목사, 일반대학교 대학원 다문화 관련 강연자, 이주민 센터장, NGO 대표, 외국인주민지원센터장, 다문화 관련 연구소 소장 등이 있으며, 현재 현장과 학교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 결과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시사점이 도출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역, 성별, 활동 분야와 같은 영역에서는 최대한 다양한 배경의 연구자를 선정하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동시에 면담 내용에 대한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력과 학력 등의 영역에서는 최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를 선정하고자 노력하였다.

2) 설문 도구

(1) 양적 연구

상술한 것처럼 양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설문 도구는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다문화 효능감’의 2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때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은 이 연구와 주제가 비슷한 김성영(2014)의 도구에서 제시된 문항을 이 연구의 연구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활용하였다. 이후 재구성된 설문 도구의 내용타당도 검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구인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문항내적일치도(Cronbach's α)를 통한 신뢰도 역시 확인하였다.

다문화 효능감은 최소연, 이상철(2015)의 도구에서 제시된 문항을 이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활용하였다. 원 도구에서는 다문화 효능감을 지식, 기능, 태도, 인식과 같이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내용을 따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인식 영역은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지식, 기능, 태도와 같은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때 앞서 제시한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도구와 마찬가지로 재구성된 설문도구의 내용타당도 검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구인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문항내적일치도(Cronbach's α)를 통한 신뢰도 역시 확인하였다.

① 내용 타당도

설문 도구의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5인의 전문가 집단⁶⁾을 선정하여 내용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때 전문가 집단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의 첫 번째 종속 변인은 다문화인식이다. 따라서 설문 문항이 다

6) 도구 내용 타당도 연구의 전문가 집단은 다문화인식 관련 전문가 1인, 다문화 효능감 관련 전문가 1인, 신학대학교 교수 2인, 설문 도구 개발 연구 전문가 1인으로 구성되었다.

문화인식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다문화인식과 관련된 연구 수행 경험이 있는 자를 전문가 집단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이 연구의 두 번째 종속 변인은 다문화 효능감이다. 따라서 설문 문항이 다문화 효능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다문화 효능감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를 전문가 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셋째, 이 연구의 연구 대상은 예비목회자이다. 따라서 설문 문항이 예비목회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예비목회자의 특성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예비목회자 양성기관인 신학대학교 교수를 전문가 집단으로 선정하였다. 넷째, 설문 도구의 경우, 문항 난이도와 문항 변별력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효과적이고 설명력이 강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수가 설문 도구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설문 도구 개발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를 전문가 집단으로 선정하였다. 내용 타당도에 대한 평가는 리커트 5점 척도를 활용한 양적 평가로 실시하였으며, 내용 타당도 측정은 Lawshe(1975)가 제안한 내용타당도비율(CVR)을 활용하였으며 이때 내용타당도비율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다.

$$CVR = (n_e - N/2) / (N/2)$$

여기서 n_e 는 ‘타당하다’ 이상에 응답한 응답자의 빈도를 뜻하며 N은 전문가의 수를 의미한다. 이때 내용 타당도의 기준은 <표 III-3>와 같다.

<표 III-3>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전문가 집단이 7인일 때 CVR의 최소값은 .99이다. 이 연구에서는 타당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문항에서 .99 이상의 CVR값이 나타나, 설문 도구의 내용 타당도가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표 III-3> 전문가 집단 인원내 따른 내용 타당도 기준

	전문가	최소값	전문가	최소값	전문가	최소값	
5	.99	9	.78	13	.54	25	.37
6	.99	10	.62	14	.51	30	.33
7	.99	11	.59	15	.49	35	.31
8	.75	12	.56	20	.42	40	.29

: Lawshe(1975). A quantitative approach to content validity, p.568

② 구인 타당도

앞서 밝힌바와 같이 본 검사도구의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구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이 검사도구의 경우 이미 선행 연구에서 신뢰도 및 타당도가 검증 되었으며, 본 연구의 주안점 역시 검사도구의 개발이 아닌 요인의 측정이기 때문이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모형 적합도 검증 결과는 다음 [그림 III-2]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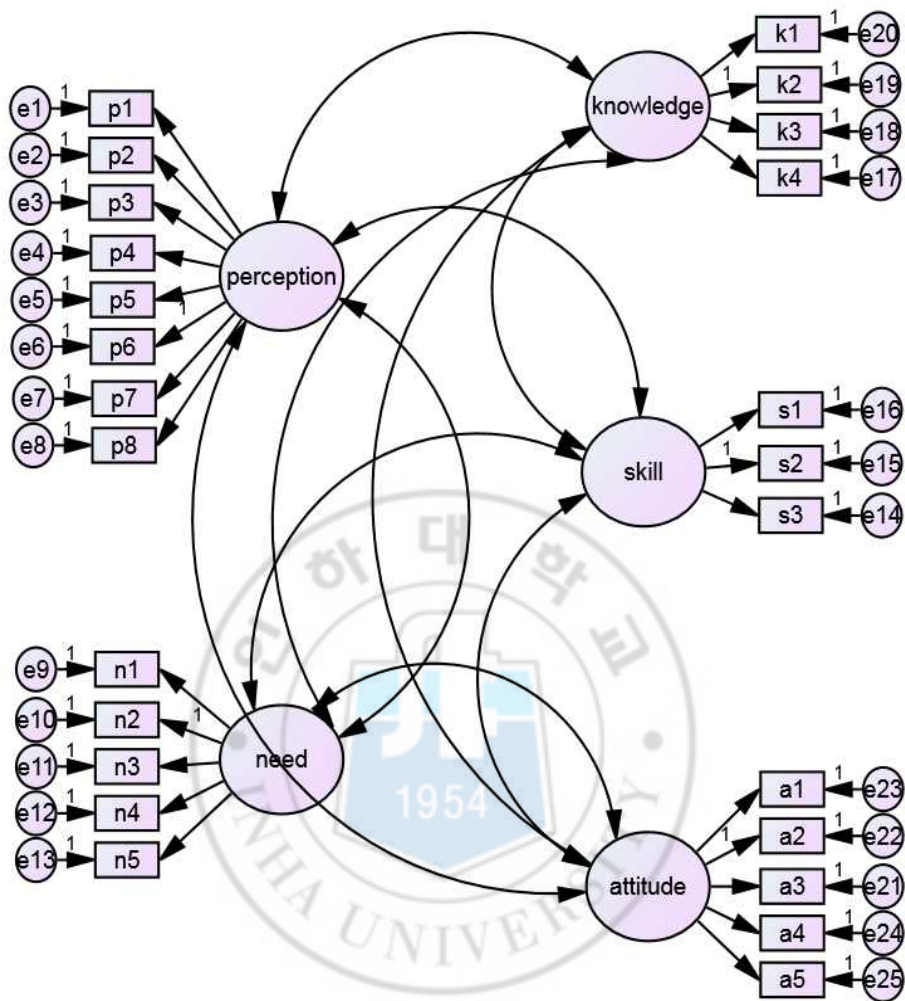
<표 III-4>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모형 적합도)

	CFI	TLI	RMSEA(90%)	RMR
946.217***	.901	.888	.072	.044

<표 III-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χ^2 을 통한 모형 적합도 비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이 나타났다. 이는 이론적으로 완벽한 모형과 연구 모형이 같다는 영가설을 기각하는 결과이므로 모형 적합도를 판단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χ^2 값의 경우 N수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경향이 있다(문수백, 2009). 이 연구의 N값은 493으로, 이는 구조방정식 모형 활용의 최솟값인

200에서 두 배가 넘는 수치이다. 즉, 이 연구의 비교적 높은 N수치는 의 유의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χ^2 에 비해 N값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나머지 적합도 지수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중심성 모수치를 고려하여 적합도를 제시하는 CFI값은 .901로 양호한 적합도 수준을 나타냈다. 둘째, 지수가 표준을 벗어난 상태를 제시하는 TLI는 .888로, 양호한 수준인 .9 이하의 수치이기는 하지만 모델의 적합성에 매우 큰 영향을 줄만큼의 수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보통 표본이 크거나 다수의 관측변수를 활용할 경우 적합도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시된 적합도 지수인 RMSEA는 .072로 나타났다. RMSEA는 .6 ~ .8이면 양호한 수치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양호한 수준의 적합도 수준이라 말할 수 있다. 평균 잔차의 공분산을 나타내는 RMR은 .044로 양호한 수준이 .05이하임을 감안할 때 이 역시 양호한 수준의 적합도 지수를 나타냈다 말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볼 때 이 연구에서 활용한 도구의 모형 적합도는 양호한 수준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설문 도구의 구인타당도를 확보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림 III-2] 설문도구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7)

7) perception : (인식 영역), need : 다문화인식(필요성 영역), knowledge : 다문화 효능감(지식 영역), skill : 다문화 효능감(기술 영역), attitude : 다문화 효능감(태도 영역)

③ 신뢰도

설문 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문항내적일치도계수(Cronbach's α)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II-5>과 같다.

<표 III-5> 설문도구 신뢰도

하위 요인		신뢰도
교육에 대한 인식	다문화인식	.767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	.889
다문화인식 전체 신뢰도		.849
다문화 효능감	다문화 효능감(지식)	.897
	다문화 효능감(기능)	.875
	다문화 효능감(태도)	.898
다문화 효능감 전체 신뢰도		.929

<표 III-5>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설문 도구의 전체 신뢰도는 .849였으며, 이때 다문화인식 요인의 신뢰도는 .767,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 요인의 신뢰도는 .889가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 효능감 설문 도구의 전체 신뢰도는 .929였으며, 지식 요인의 신뢰도는 .897, 기능 요인의 신뢰도는 .875, 태도 요인의 신뢰도는 .898이 나타났다. 이처럼 설문 도구의 신뢰도는 대부분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이 연구에 활용된 조사 결과는 신뢰할만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④ 최종 설문 도구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최종 도출된 설문 도구는 <표 III-6>, <표 III-7>과 같다.

<표 III-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도구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 두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다문화에 대한 인식’은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인식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고,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은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정도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표 III-6>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설문지

영역	문항	문항수
다문화에 대한 인식	외국인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잘 도와주는 편에 속한다.	8
	타문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편에 속한다.	
	나는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외국인을 만날 때 선입견을 갖지 않는 편이다.	
	타문화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갖지 않는 편이다.	
	우리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자부심이 강한 편에 속한다.	
	우리 민족에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나는 국제결혼이나 이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다.	
	나는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편에 속한다.	

영역	문항	문항수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	다문화 교육은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융통성과 개방성을 가진 인재 양성에 필요한 교육이다.	5
	다문화 교육은 모든 인간이 인종·성·소수자·종교 등에 관계없이 평등을 알게 하고 실천하는 교육이다	
	다문화 교육은 지역 및 사회공동체에서 타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공존할 수 있도록 일깨우는 교육이다.	
	다문화 교육은 문화적 다양성과 공통성을 경험하게 하는 교육이다.	
	다문화 교육은 자문화와 타문화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갖게 함으로써 합리적인 사고를 길러준다.	

<표 III-6>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문화에 대한 인식’에서는 “외국인이 어려움이 직면했을 때 잘 도와주는 편인지”, “타문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편인지”, “본인과 문화적 배경이 다른 외국인을 만날 때 선입견을 갖지 않는 편인지”, “타문화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없는 편인지”, “우리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자부심이 강한 편인지”, “우리 민족에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편인지”, “국제결혼이나 이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지”,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에 관심정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묻고 있다. 또한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에서는 “다문화 교육이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교육이라 생각하는지”, “다문화 교육이 평등을 가르치는 교육이라 생각하는지”, “다문화 교육이 타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과 공존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라 생각하는지”, “다문화 교육이 문화적 다양성과 공통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라 생각하는지”, “다문화 교육이 합리적 사고를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 생각하는지”를 묻고 있다.

<표 III-7>에 제시된 다문화 효능감에 대한 설문지는 ‘지식’, ‘기술’, ‘태도’의

세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때 ‘지식’은 다문화 효능감 가운데 인지적 측면을, ‘기술’ 영역은 다문화 효능감 가운데 기술적 측면을, ‘태도’ 영역은 다문화 효능감 가운데 행위나 태도와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표 III-7> 다문화 효능감에 대한 설문지

영역	문항	문항수
다문화 효능감(지식)	나는 다문화인(이주근로자, 결혼이주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위한 정책을 잘 알고 있는 편이다.	4
	나는 다문화인을 만나면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편이다.	
	나는 다문화인과의 관계에서 반응하고 대응하는 법을 알고 있는 편이다.	
	나는 다문화인을 대할 때 어떤 상황에서 문화적 가치가 충돌하는지를 알고 있는 편이다.	
다문화 효능감(기술)	나는 다문화인이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편이다.	3
	나는 다문화인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잘 아는 편이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다문화인의 문제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안다.	
다문화 효능감(태도)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다문화인이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편이다.	7
	나는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과 다문화인이 좋아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편이다.	
	나는 다문화인의 편견을 없애기 위해 지역사회에 다문화 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편이다.	

영역	문항	문항수
	나는 다문화인이 정보를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 친절하게 여러 번 반복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편이다.	
	나는 다문화인의 권리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편이다.	
	나는 다문화인들이 말할 때 공감적인 태도로 들어주는 편이다.	
	나는 다문화인과 의사소통에서 난감한 상황에 처할 때 지속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편이다.	

<표 III-7>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식’ 영역에서는 “다문화인을 위한 정책을 잘 알고 있는지”, “다문화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지하고 있는지”, “다문화인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법을 알고 있는지”, “다문화인과 발생할 수 있는 문화적 가치 충돌을 인지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 또한 ‘기술’ 영역에서는 “다문화인의 필요를 알고 있는지”, “다문화인과 비언어적 소통을 할 수 있는지”, “다문화인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 ‘태도’ 영역에서는 “다문화인이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편인지”, “본인의 좋아하는 것이 다문화인이 좋아하는 것과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지”, “지역사회의 다문화 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지”, “다문화인에게 반복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다문화인의 권리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지”, “다문화인과 대화할 때 공감적인 태도로 임하는지”, “다문화인과 의사소통 중 난감한 상황이 닦쳤을 때 다문화인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는지”를 묻고 있다.

(2) 질적 연구

양적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의 근거 확보와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및 다문화 효능감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표 III-8>와 같다.

<표 III-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면담지는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영역과 다문화 효능감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 면담을 실시하는 목적은 연구 방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양적 연구를 통해 도출된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수준과 다문화 효능감을 해석하고, 나아가 개선방안을 탐색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면담지에 나타난 문항은 양적 연구의 유의미한 결과에 대한 질문과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II-8> 심층면담 인터뷰 내용

분류	Q&A	1954 인터뷰 내용
다 문 화 교 육 에 대 한 인 식	Q1	현재 신학대학원의 다문화 교육 실태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Q2	예비목회자인 신학대학원생들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수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3	신대원 학생들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수준이 신대원에 다문화 교육 과정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Q4	요즘 들어 신대원에 여학생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신대원 남학생과 여학생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수준에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차이가 있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분류	Q&A	인터뷰 내용
	Q5	신대원 학생들의 연령분포도가 20, 30, 40, 50대인데 연령대에 따라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수준에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Q6	조사 결과 신학대학원생들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수준은 보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문화 효능감은 보통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다문화인식이 높은 사람은 다문화 효능감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Q7	신대원생들의 다문화 효능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낮으면 왜 낮다고, 높으면 왜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Q8	신대원 교육과정에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Q9	신대원생들 중에서 일반대 출신과 신학대 출신들이 있습니다. 일반대 출신과 신학대 출신의 다문화 효능감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Q10	신대원생들의 외국어 능력이 다문화 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Q11	신대원생들의 해외 체류기간도 다문화 효능감에 영향을 미칠까요?
다 문 화 효 능 감	Q12	신대원 학생들의 연령분포도가 20, 30, 40, 50대인데 연령대에 따라 다문화 효능감에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Q13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을 증진시키거나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Q14	성공적인 다문화 교육 사례 혹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약 있으시다면 성공적인 다문화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필요하고, 또 해당 사례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표 III-8>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다문화인식’ 영역에서는 “예비목회자들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수준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신대원 학생들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수준과, 신대원의 다문화 교육과정의 연관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비목회자의 성별에 다른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와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비목회자의 연령에 따라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원인이 무엇이라 보는지”,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다문화 효능감’ 영역에서는 “예비목회자들의 다문화 효능감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신대원 교육과정에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유무가 다문화 효능감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지”, “예비목회자의 목회 이전 전공이 다문화 효능감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지”, “예비목회자의 외국어 능력이 다문화 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예비목회자들의 해외 체류기간이 다문화 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예비목회자의 연령에 따라 다문화 효능감에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원인이 무엇이라 보는지”,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 증진의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자료 분석

Greene(2007)과 Onwegbuzie & Teddlie(2003)은 통합적 연구 방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 분석 전략을 제시하였고, 김영천, 김경식, 이현철(2011)은 이를 재구성하여 7단계의 자료 분석 전략을 기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7단계의 자료 분석 전략을 5단계로 재구성하여 활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 정리 및 축소’의 단계에서는 양적 자료의 경우 평균 및 표준편차, 요인 분석을 통해, 질적 자료의 경우 사례 기술과 요약정리 등을 통해 자료를 정리 및 축소하였다. 둘째, ‘자료 전시(Display)’ 단계에서는 양적 자료의 경우 표, 그래프, 그림 등을 통해 자료를 도식화하였으며, 질적 자료의 경

우 표와 예문을 통해 자료를 전시하였다. 셋째, ‘자료 변형’ 단계에서는 양적 연구의 경우 설문 조사를 통해 도출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자료를 EXCEL과 SPSS 프로그램에 코딩하였으며 질적 연구의 경우 면담 내용을 전사 후 내러티브 형태로 배열하였다. 넷째, ‘자료 상관관계’ 단계에서는 양적 연구의 경우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데이터의 상관을 살펴보고, 질적 자료의 경우 사례에 대한 교차분석을 통해 데이터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다섯째, ‘자료통합’ 단계에서는 양적 연구를 통해 도출된 현상과 질적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전문가 의견을 통해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 대한 자료 분석의 자세한 방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양적 연구

설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의 처리는 EXCEL 프로그램과 SPSS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유의 수준은 5%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자료 분석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 통계적 특성과 결측치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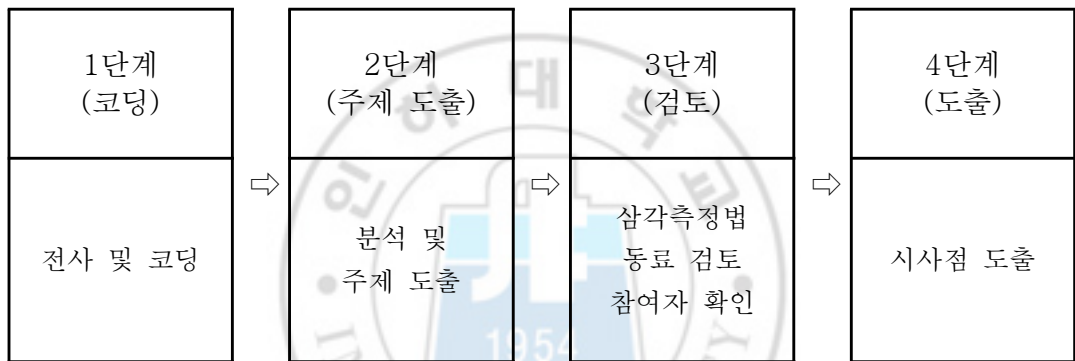
둘째, 신뢰도 분석을 통해 요인의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을 확인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인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이때 적합도 지수는 , CFI, RMR, RMSEA 수치를 활용하였다.

셋째, 범주형 변인 간 다문화인식 및 효능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 표본 t-검증과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넷째, 연속형 변인 간 다문화인식 및 효능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 질적 연구

질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자료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문가 면담 자료는 아래아 한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전사한 뒤 주제를 도출하는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면담 내용을 연구 목적에 맞게 분류하고 이를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때 도출된 의미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부여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Guba & Lincoln(1981)이 제시한 삼각측정법, 동료 검토, 참여자 확인을 실시하였다. 이를 모형화하면 [그림 III-3]과 같다.



[그림 III-3] 질적 연구 모형

4) 연구 대상

상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모두 493명이며, 분석 대상인 예비 목회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III-9>와 같다.

<표 III-9>를 살펴보면, 먼저 성별은 남자가 326명으로 약 66%의 빈도를 나타냈고, 여자가 167명으로 약 34%의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의 경우, 20대가 155명으로 31.5%, 30대가 195명으로 39.6%, 40대가 71명으로 14.4%, 50대가 60명으로 12.2%, 60대 이상이 12명으로 2.3%의 빈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활동지역의 경우, 서울권이 152명으로 31%, 경기권이 107명으로 21.8%, 경상권이 71명으로 14.5%, 충청권이 96명으로 19.6%, 전라권이 56명으로 11.4%, 강원권이 3명으로 0.2%, 기타 지역이 8명으로 1.5%의 빈도가 나타났으며, 직업의 경우, 전도사가 366명으로 74.4%, 학생이 93명으로 18.9%, 기타가 34명으로 6.7%의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어 보유 능력의 경우, 고급이 30명으로 5.9%, 중급이 97명으로 19.7%, 초급이 366명으로 74.4%의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학부 출신의 경우 일반대 출신이 200명으로 40.4%, 신학대 출신이 293명으로 59.6%의 빈도를 나타냈다. 최종학위의 경우, 학사가 326명으로 66.3%, 석사 이상이 54명으로 10.7%, 석사과정이 113명으로 23%의 빈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책의 경우, 파트 전도사가 397명으로 80.7%, 담임 전도사가 15명으로 2.8%, 기타가 81명으로 16.5%의 빈도를 나타냈으며, 다문화 교육 이수 경험 여부의 경우, 이수 경험이 있는 학생이 124명으로 25%, 이수 경험이 없는 학생이 369명으로 75%의 빈도를 보이고 있다.

<표 III-9>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항 목	세부내용	빈도(명)	백분율(%)
성 별	남	326	66.3
	여	167	33.7
연 령	20대	155	31.5
	30대	195	39.6
	40대	71	14.4
	50대	60	12.2
	60대 이상	12	2.3
활동지역	서울	152	31.0
	경기	107	21.8
	경상	71	14.5
	충청	96	19.6

항 목	세부내용	빈도(명)	백분율(%)
	전라	56	11.4
	강원	3	.2
	기타	8	1.5
직업	전도사	366	74.4
	학생	93	18.9
	기타	34	6.7
외국어 능력	고급	30	5.9
	중급	97	19.7
	초급	366	74.4
학부 출신	일반대	200	40.4
	신학대	293	59.6
최종학위	학사	326	66.3
	석사 이상	54	10.7
	석사과정	113	23.0
직책	파트 전도사	397	80.7
	담임 전도사	15	2.8
	기타	81	16.5
다문화 교육 이수 경험	있다	124	25.0
	없다	369	75.0
총합		493	100

3.3. 연구 윤리와 자료 처리

최근 타인의 연구 표절, 연구결과 조작, 원하는 결과 도출을 위한 의도적 연구 설계 등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면서 연구윤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연구 대상과의 사전 면담과 진행 중 개인의 생활과 감정이 고스란히 노출되고 그의 일상적 삶의 민감한 부분이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보호, 양심의 자유보장, 상호신뢰의 약속 보장 및 연구 참여에 대한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자발성 보장과 같은 윤리적 기준 준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바람직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설문 조사 수행 시 조사 대상자들에게 설문을 강요하지 않으며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설문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였다. 또한 설문 조사 수행 시 설문 대상자에게 특정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항목 체크를 의도적으로 유도하지 않았다. 분석 역시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데이터를 분석할 때 임의로 데이터를 조작하는 행위를 수행하지 않았다.

둘째, 전문가 면담 시 의도적으로 질문을 유도하거나 연구자가 임의로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내용을 논문에 반영하지 않았다. 특히 조사 결과를 학문적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면담 대상자에게 분명히 밝혔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연구 참여자 성명은 가명으로 처리하였다.

셋째, 이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 참여 동의서를 통해 연구의 목적과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소개받았으며, 만약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연구 참여가 어려울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전달하였다.

이처럼 이 연구에서는 연구 과정동안 참여자들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의 내용과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에게 참여의사가 없거나 중단의사가 있으면 즉시 중단할 수 있는 참여자의 안전과 권리에 관한 내

용을 전달하였다. 또한 면담 내용의 녹취, 참여자의 신분과 연락처, 연구 목적과 연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연구 참여자에게 동의 서명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밖에 연구 참여자에 대한 면담내용과 개인정보 등은 반드시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하였고, 참여자의 신원이 드러나는 내용은 비밀로 기록하였으며, 연구 결과가 출판될 경우에도 참여자의 신상정보는 익명으로 처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면담자료로 녹취된 파일이나 전사기록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5조(인간 대상연구의 기록 및 보관 등)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연구가 종료된 시점부터 3년간 보관하며, 그 이후에는 폐기할 예정이다.

연구 결과 신뢰성의 경우, 양적 연구는 신뢰도 분석을 통해, 질적 연구는 전문가 검증을 통해 확보하였다. 즉, 양적 연구의 경우, 문항내적일치도계수(Cronbach's α)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상술한 것처럼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5> 참고). 또한 질적 연구의 경우, 연구자와 전문가가 함께 결과를 검토하는 삼각측정법(triangulation), 연구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동료 검토(peer examination), 연구 참여자에게 직접 연구 결과를 확인하는 참여자 확인(member checks)을 통해 신뢰도를 확보하였다(김영천, 2012).

IV. 연구 결과

본 장에서는 연구 결과로써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효능감 수준을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전문가와의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다문화 효능감의 증진 방안을 도출할 것이다.

4.1. 양적 연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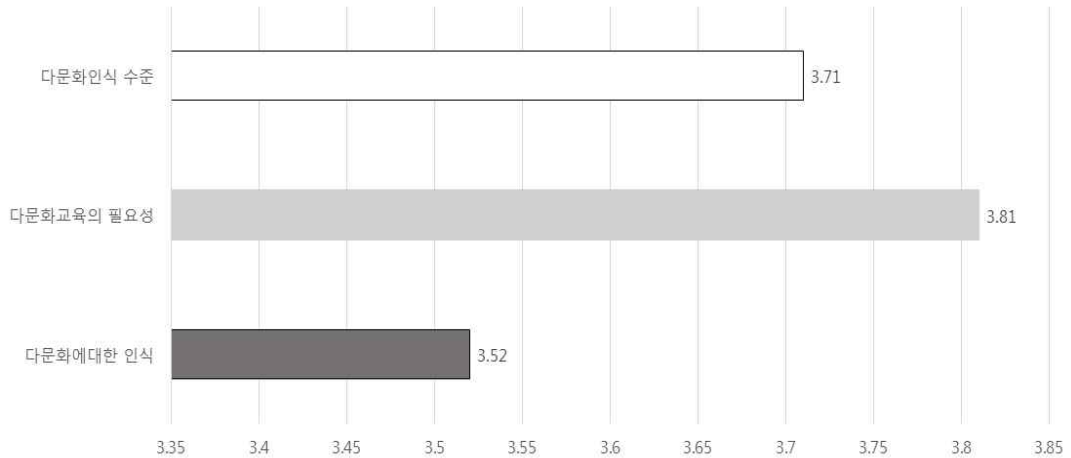
1)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수준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는 <표 IV-1>, [그림 IV-1]과 같다.

<표 IV-1>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다문화에 대한 인식	493	3.52	.509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	493	3.81	.668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3.71	.591

분석결과, 예비목회자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은 3.52점,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3.81점으로, 전반적인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수준은 3.71점으로 나타났다(그림 IV-1 참고).



[그림 IV-1]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수준

이와 같은 결과는 목회자의 다문화인식을 조사한 김성영(2014)의 연구결과인 3.8에 비해 약간 낮은 수치이지만 다른 집단을 대상으로 다문화인식을 조사한 선행 연구(권미은, 권미지, 이미아, 2012; 염미경, 2012; 김남희, 임선영, 2014)와는 비슷한 수치이다. 검사도구의 척도가 5점이며, 그 중앙값인 3점이 보통을 나타내는 수치임을 감안할 때 3.52의 수치는 중간 이상의 값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개신교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수준은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다문화인식은 다문화 구성원들로 하여금 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문화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한다(Banks, 2008). 즉,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타 문화권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이는 또한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의 동기가 되어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과 개방성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개신교 예비목회자의 긍정적인 인식 수준은 바람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현재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어떠한 현상을 예측하기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통계 기법이 활용되고 있다. 예컨대 집단의 차이가 평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

석하고자 할 때는 t-test나 분산분석등과 같은 평균비교분석을, 변인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할 때는 상관관계 분석을, 변인과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고자 할 때는 회귀분석 혹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통계 기법이 활용되는 이유는 연구 문제 혹은 가설 검증의 차이에서 기인하기도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유형의 차이에 기인한다. 다시 말해, 만약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둘 다 범주형일 때는 검증을, 독립 변수는 범주형이지만 종속 변수가 연속형이라면 평균비교분석을, 둘 변수 모두가 양적 변수일 때는 회귀분석 혹은 구조방정식을 사용하는 것처럼 변수의 유형이 분석 방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종속 변수는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효능감으로 이는 모두 연속형 변수이다. 하지만 독립 변수의 경우, ‘성별’, ‘직업’, ‘외국어 능력’ 등과 같은 범주형 변수와 ‘연령’, ‘해외 체류기간’과 같은 연속형 변수가 혼합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수준이 차이나는 이유를 밝히고자 변인을 범주형과 연속형⁸⁾으로 구분하여 평균 비교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범주형 변인으로는 ‘다문화 교우 존재 여부’, ‘다문화 교육과정 이수 여부’, ‘다문화 프로그램 진행 여부’, ‘성별’, ‘활동 지역’, ‘직업’, ‘외국어능력’, ‘학부출신’, ‘최종학위’, ‘직책’, ‘거주 지역’, ‘다문화 교육 이수경험’으로 구분하였다. 이때 ‘활동 지역’의 경우, 집단 간 편차가 심할 뿐만 아니라 집단의 개수가 많아 유의미한 결과 도출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범주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재코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연속형 변인으로는 ‘연령’, ‘해외체류기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8) 변수란 질적(qualitative) 변수라고도 하며 이는 말 그대로 변수가 범주형(Categorical) 혹은 명목형(Nominal)의 변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경험 여부, 성별, 학년, 지역 등이 범주형 변수에 포함된다. 연속형 변수는 양적(Quantitative) 변수라고도 하며 이는 변수가 연속적인(continuous) 성질을 가진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나이, 학업성취도, IQ 점수 등이 연속형 변수에 포함된다.

(1) 범주형 변인별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수준 차이

범주형 변인별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수준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2>, <표 IV-3>과 같다.

<표 IV-2> 변인별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t-test)

변인	집단	사례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다문화 교우 존재 여부	존재	224	3.73	.605	.801	.424
	미 존재	269	3.69	.572		
다문화 교육과정 존재 여부	존재	93	3.87	.627	3.05	.003**
	미 존재	400	3.66	.589		
다문화 프로그램 진행 여부	경험	81	4.06	.630	3.44	.001**
	미 경험	412	3.68	.589		
다문화 교육 이수 여부	이수	124	3.73	.657	.344	.731
	미 이수	369	3.70	.570		
성별	남자	326	3.67	.607	-2.34	.020*
	여자	167	3.79	.552		
활동 지역	수도권	259	3.71	.609	.120	.904
	비수도권	234	3.71	.573		
학부 출신	일반대	200	3.70	.600	-.261	.794
	신학대	293	3.71	.584		

<표 IV-2>를 살펴보면 ‘다문화 교우 존재 여부’, ‘다문화 교육 이수 여부’, ‘학부 출신’은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다문화 교육과정 존재 여부’, ‘다문화 프로그램 진행 여부’, ‘성별’은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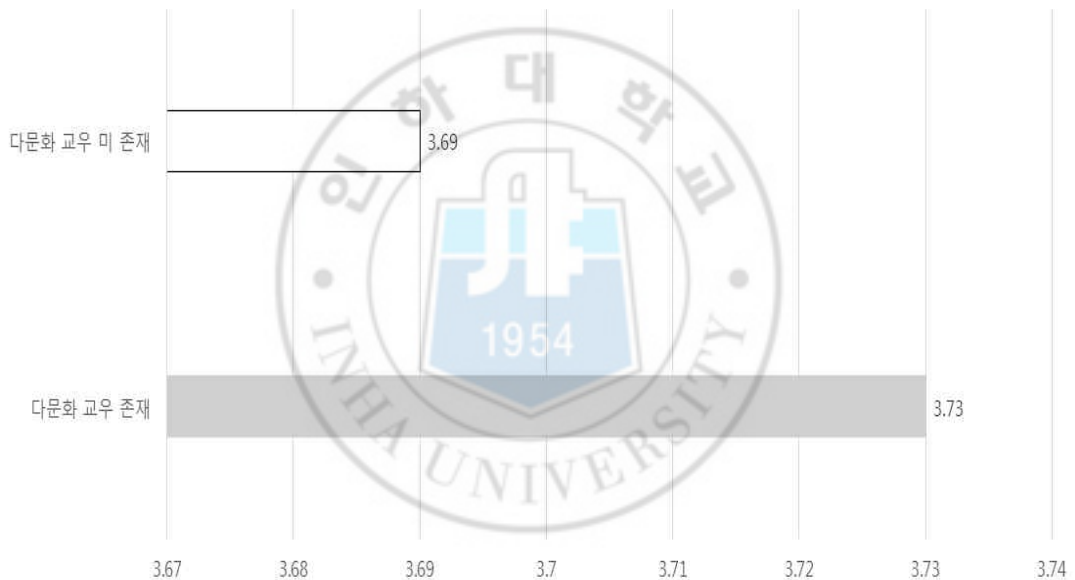
<표 IV-3> 변인별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ANOVA)

변인	집단	사례	평균	표준편차	F값	Scheffe
직업	전도사(a)	366	3.73	.591	1.388	
	학생(b)	93	3.63	.563		
	기타(c)	34	3.65	.659		
외국어 능력	고급(a)	30	3.55	.763	1.319	
	중급(b)	97	3.75	.612		
	초급(c)	366	3.71	.570		
최종 학위	학사(a)	326	3.68	.585	3.780*	a, b < c
	석사과정(b)	113	3.68	.490		
	석사이상(c)	54	3.92	.636		
직책	파트전도사(a)	397	3.71	.597	.199	
	담임전도사(b)	15	3.61	.399		
	기타(c)	81	3.70	.596		

<표 IV-3>을 살펴보면 ‘직업’, ‘외국어 능력’, ‘직책’은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최종 학위’는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다문화 교우 존재 여부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교우 존재 여부에 따른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 교우가 존재하는 집단의 평균은 3.73점으로 존재하지 않는 집단의 평균 3.69점에 비해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에 대한 t 점수는 .801로 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다문화 교우의 존재 여부가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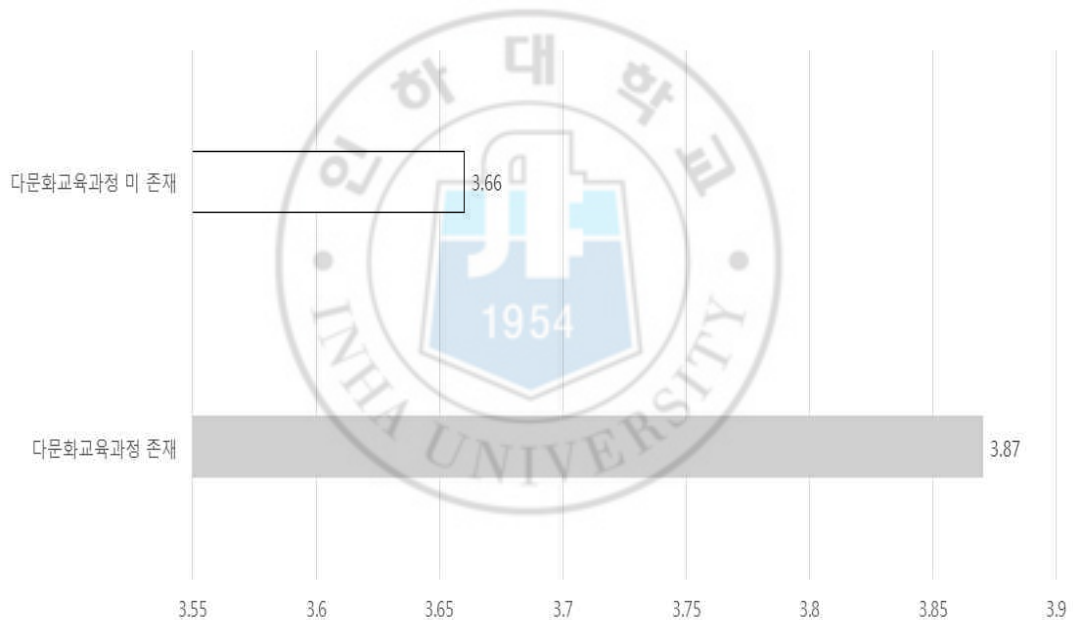


[그림 IV-2] 다문화 교우 존재 여부에 따른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

이와 같이 신학대학원 내에 다문화 교우가 존재할 경우에는 다문화 교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보다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② 다문화 관련 교육과정 존재 여부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관련 교육과정 존재 여부에 따른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현재 재학 중인 신학대학원에 다문화 관련 교육과정이 존재하는 집단의 평균은 3.87점으로 존재하지 않는 집단 3.66점에 비해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차이에 대한 t 점수는 3.05점으로 그 차이 역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다문화 교육과정의 존재 여부가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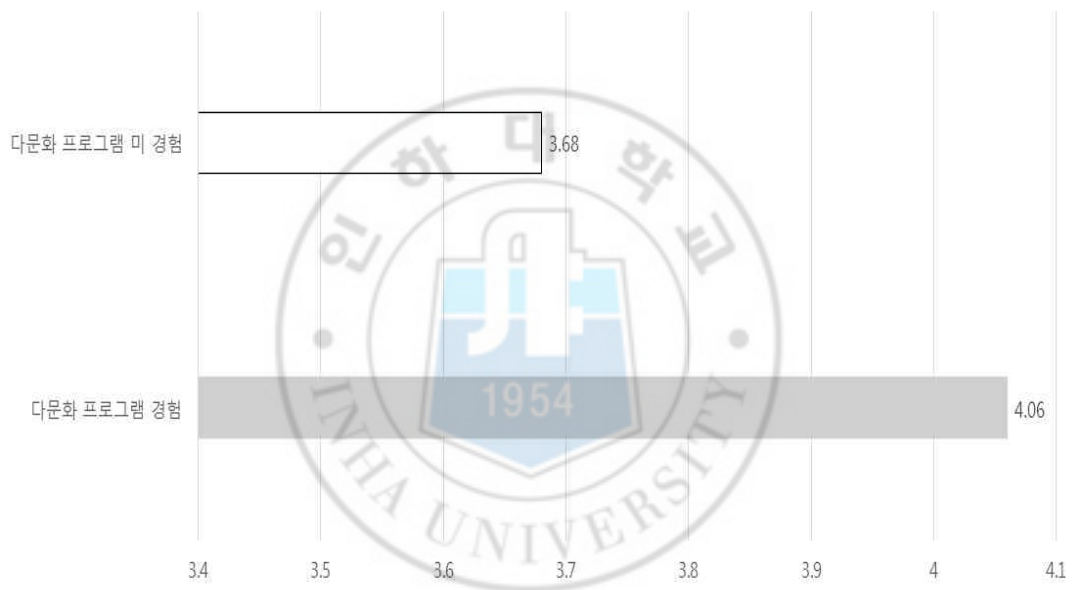


[그림 IV-3] 다문화 관련 교육과정 존재 여부에 따른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

이와 같이 신학대학원 내에 다문화 관련 교육과정이 존재할 경우에는 다문화 관련 교육과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보다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이다.

③ 다문화 프로그램 진행 여부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프로그램을 진행 여부에 따른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해본 집단의 평균은 4.06점으로 진행해보지 못한 집단의 평균 3.68점에 비해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차이에 대한 t 점수는 3.44점으로 그 차이 역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다문화 프로그램을 진행 여부가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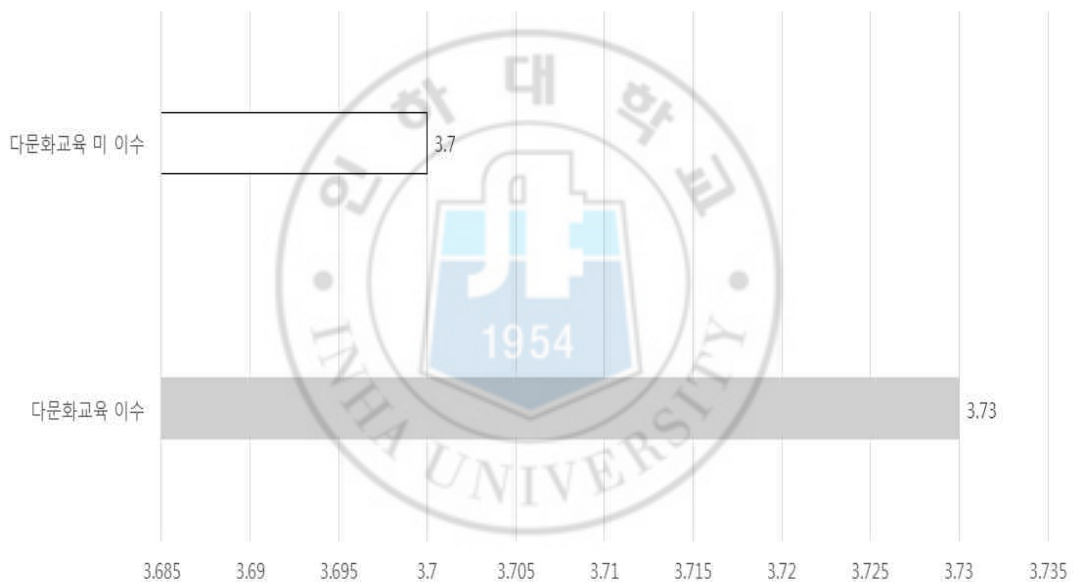


[그림 IV-4] 다문화 프로그램 진행 여부에 따른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

이와 같이 다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이다.

④ 다문화 교육 이수 여부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교육 이수 여부에 따른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 교육을 이수한 집단의 평균은 3.73점으로 다문화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집단의 평균 3.70점에 비해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에 대한 t 점수는 .344점으로 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다문화 교육의 이수 여부가 다문화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끼쳤지만, 유의미할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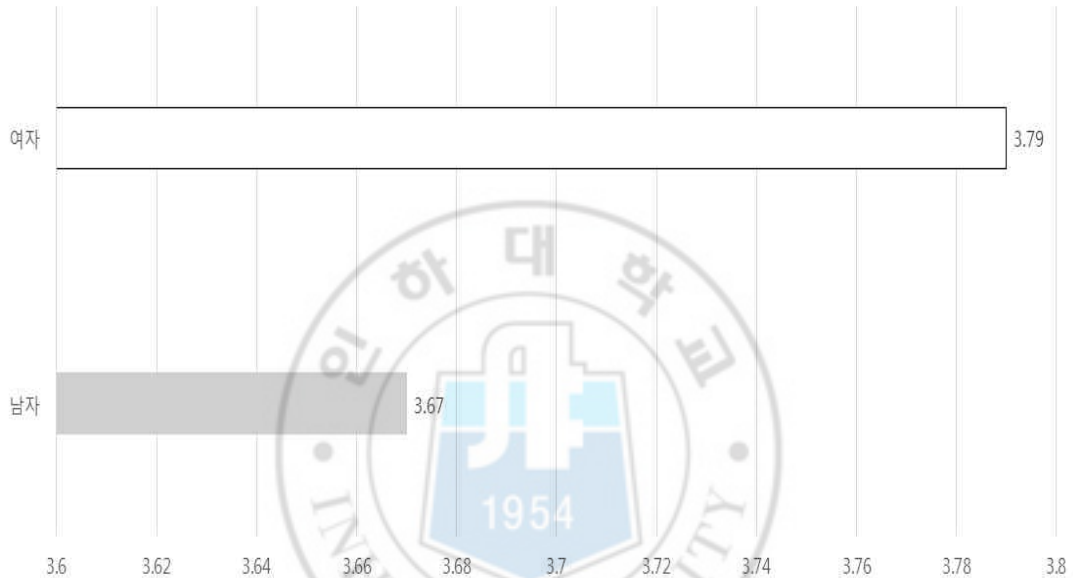


[그림 IV-5] 다문화 교육 이수 여부에 따른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

이와 같이 다문화 교육을 기 이수한 경우에는 다문화 교육을 미 이수한 경우보다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이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다문화 교육 이수 여부에 따른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⑤ 성별

예비목회자의 성별에 따른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여자의 평균은 3.79점으로 남자의 평균 3.67점에 비해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차이에 대한 t 점수는 2.34점으로 역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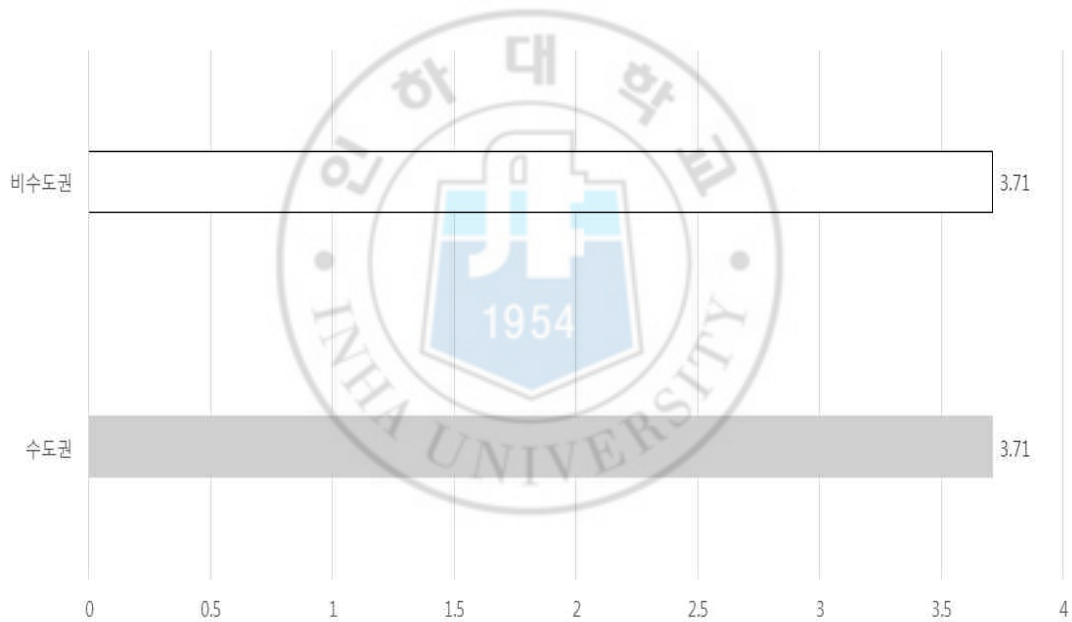


[그림 IV-6] 성별에 따른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

이와 같이 여자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은 남자의 인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이다. 이는 본 연구와 비슷한 연구인 김성영(2014)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수치인데, 김성영의 연구 결과에서도 남성 목회자보다는 여성 목회자가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더 크다고 언급하고 있다.

⑥ 활동 지역

예비목회자의 활동 지역에 따른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수도권 집단의 평균과 비수도권 집단의 평균은 모두 3.71점으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 차이에 대한 t 점수 역시 .120점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활동지역에 관계 없이 다문화 교육에 대한 예비목회자들의 인식은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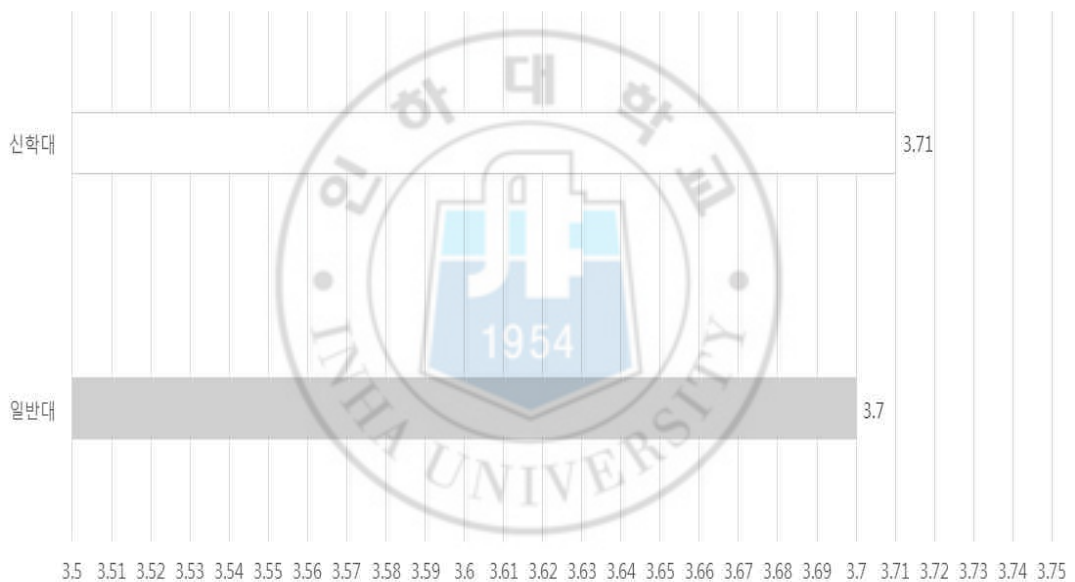


[그림 IV-7] 활동지역에 따른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

이와 같이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활동지역에 따른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⑦ 학부 출신

예비목회자의 학부 출신에 따른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신학대학을 졸업한 집단의 평균은 3.71점으로 일반대학을 졸업한 집단의 평균 3.70점에 비해 약간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에 대한 t 점수는 .261점으로 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일반대학교나 신학대학교 출신과는 관계없이 다문화 교육에 대한 예비목회자들의 인식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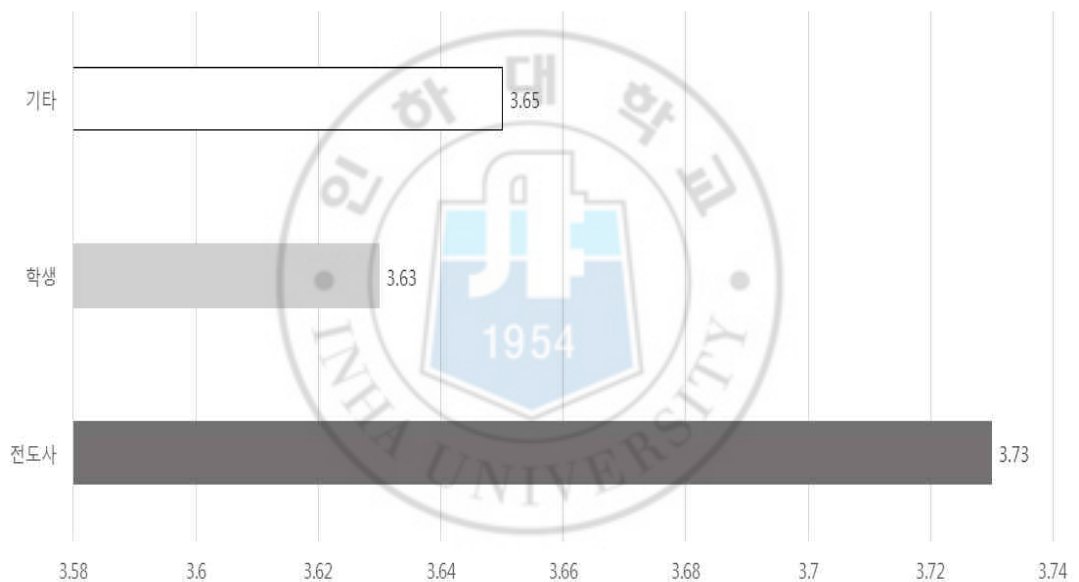


[그림 IV-8] 학부 출신에 따른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

이와 같이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은 신학대학 출신이 일반대학 출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학부 출신에 따른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⑧ 직업

예비목회자의 직업에 따른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도사 집단의 평균이 3.7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타 집단의 평균이 3.65점으로 그 다음이었으며, 학생 집단의 평균이 3.6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집단 간 차이에 대한 F점수는 1.388로 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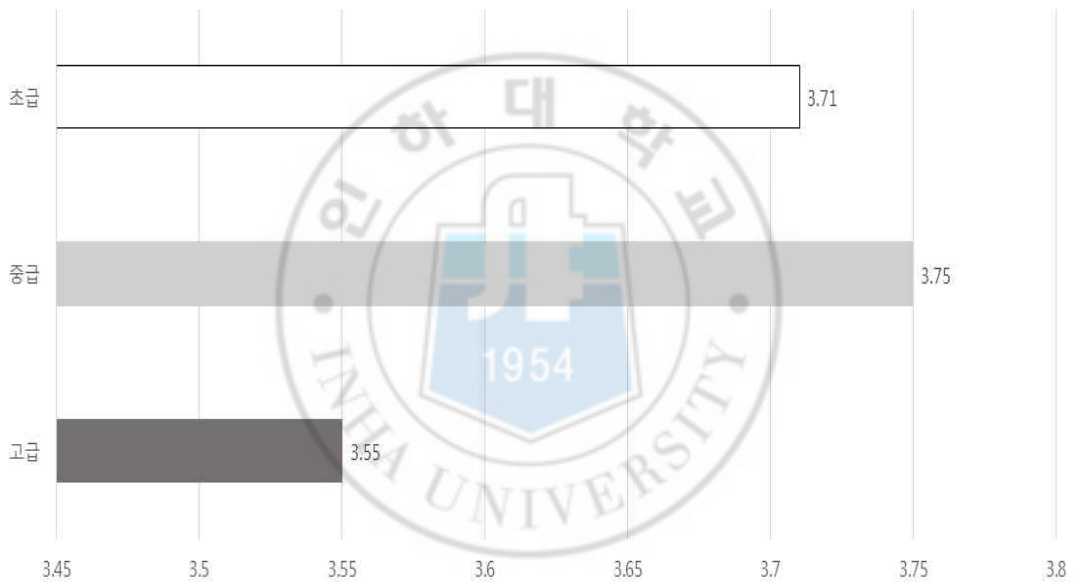


[그림 IV-9] 직업에 따른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

이와 같이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은 전도사가 가장 높고 기타가 다음으로 높으며 학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직업에 따른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⑨ 외국어 능력

예비목회자의 외국어 능력에 따른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중급 집단의 평균이 3.75점으로 가장 높았고, 초급 집단의 평균이 3.71점으로 그 다음이었으며, 고급 집단의 평균이 3.5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집단 간 차이에 대한 F점수는 1.319점으로 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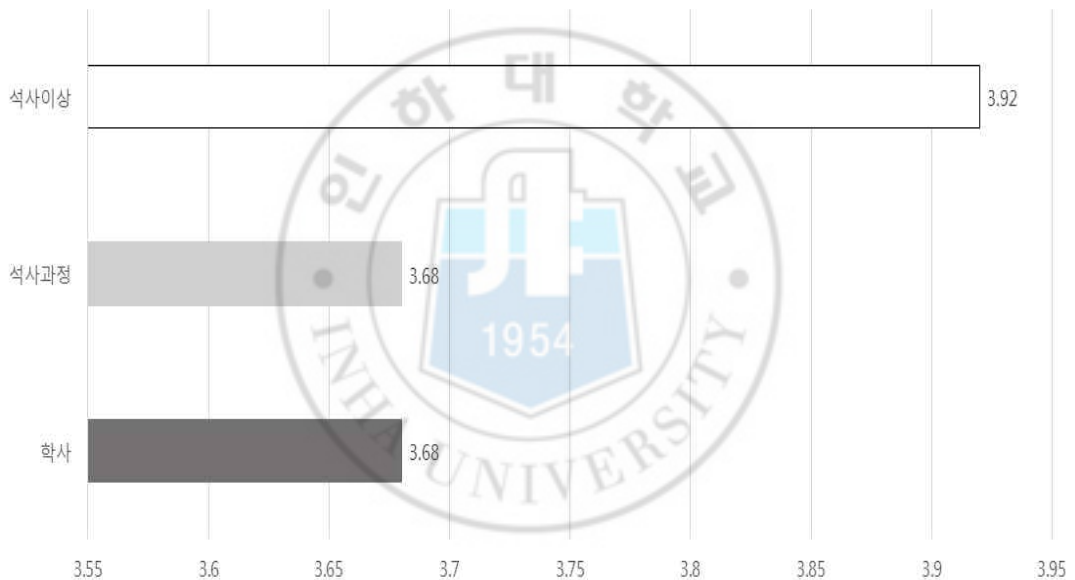


[그림 IV-10] 외국어 능력에 따른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

이와 같이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은 중급 집단이 가장 높고 초급 집단이 다음으로 높았으며, 고급 집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외국어 능력에 따른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⑩ 최종 학위

예비목회자의 최종 학위에 따른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석사이상 평균이 3.9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석사과정과 학사의 평균이 3.68점으로 동일하게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또한 집단 간 차이에 대한 F점수는 3.78점으로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었다. 다시 말하면, 석사이상 학위를 가진 예비목회자들이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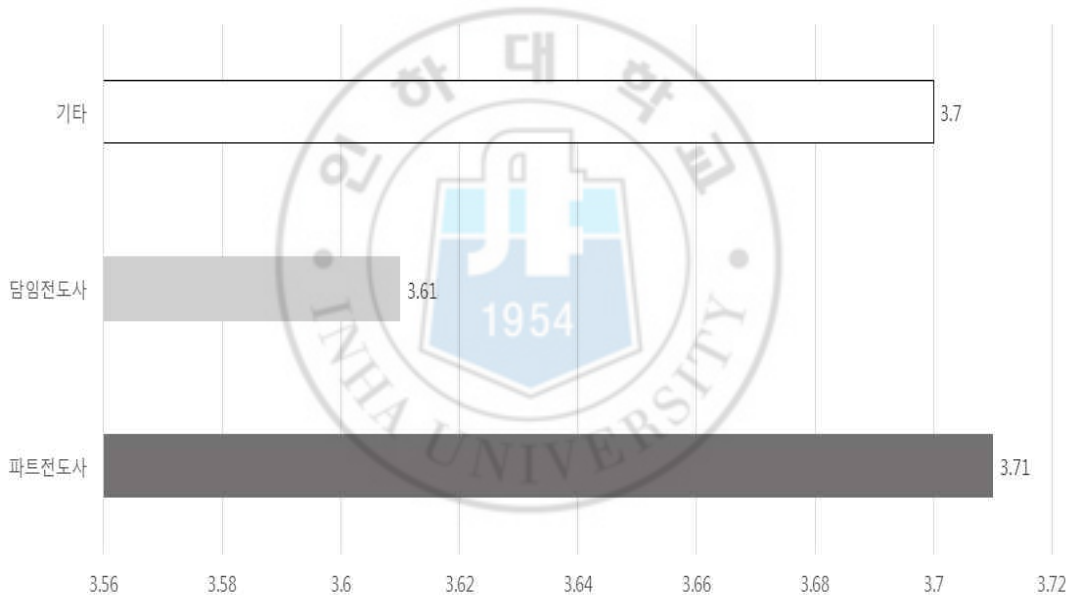


[그림 IV-11] 최종 학위에 따른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

이처럼 최종 학위에 따른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가 나타남에 따라 Scheffe 사후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학사와 석사과정 집단에 비해 석사이상 집단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⑪ 직책

예비목회자의 직책에 따른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파트전도사의 평균이 3.7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타 집단의 평균이 3.7점으로 그 다음이었으며, 담임전도사의 평균이 3.6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집단 간 차이에 대한 F점수는 .199점으로 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통계는 직책과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은 서로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IV-12] 직책에 따른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

이와 같이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은 파트전도사 집단이 가장 높고, 기타 집단이 다음으로 높았으며, 담임전도사 집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각 집단들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아니었다.

(2) 연속형 변인별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수준 차이

연속형 변인별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수준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IV-4>와 같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자기상관을 파악하기 위해 Durblin-Watson 지수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Durblin-Watson 지수는 1.859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종속변수인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은 자기상관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VIF(분산팽창요인) 지수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 ‘연령’과 ‘해외 체류기간’ 모두 10 이하의 수치가 나타나 다중공선성 역시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는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 말할 수 있다.

회귀분석 결과, ‘연령’의 기울기는 .092로 연령이 1 증가할 때 마다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은 .092만큼 증가하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 체류기간’의 기울기는 .016으로 해외 체류기간이 1 증가할 때 마다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은 .016 증가하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아니었다.

회귀모형의 적합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Kolmogorov-Smirnov’s p는 .057이 나타났고, Breusch-Pagan’s p는 .063이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 활용된 회귀모형은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표 IV-4> 변인별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수준 차이(regression)

구분	비표준화 계수(B)	표준 편차	표준화계수 ()	t값	유의 확률	VIF
상수	3.467	.070		49.466	.000***	
연령	.092	.025	.166	3.707	.000***	1.014
해외 체류기간	.016	.016	.045	.993	.321	1.014

Durblin-Watson = 1.859, Breusch-Pagan’s p = .063 , Kolmogorov-Smirnov’s p = .057

2) 다문화 효능감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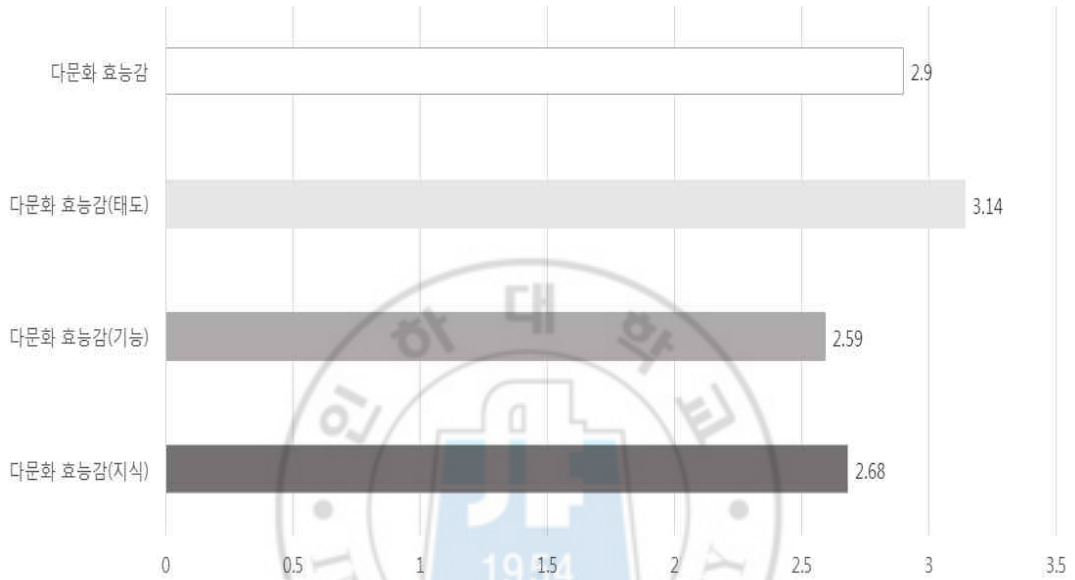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 실태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5>, [그림 IV-12]와 같다.

<표 IV-5> 다문화 효능감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다문화 효능감(지식)	493	2.68	.764
다문화 효능감(기능)	493	2.59	.783
다문화 효능감(태도)	493	3.14	.687
다문화 효능감		2.90	.655

분석결과, 예비목회자의 지식 영역은 2.68점, 기능 영역은 2.59점, 태도 영역은 3.14점, 다문화 효능감 평균은 2.9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예비교사의 다문화 효능감이 낮다고 밝힌 Castro(201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장봉석(2010)이 밝힌 중등 예비 교사의 다문화 효능감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과 마찬가지로 다문화 효능감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의 척도가 5점이며, 그 중앙값인 3점이 보통을 나타내는 수치임을 감안할 때 2.9라는 수치는 중간에 못 미치는 값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은 보통보다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설문 도구의 문항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다문화 효능감은 다문화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을 적절히 대처하고 다문화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한다. 이러한 다문화 효능감은 다문화인식과 높은 상관을 가지는데(이종식, 2013), 앞서 예비목회자의 다문화인식 수준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다문화 효능감을 보였다는 것은 다소 의외의 결과이다. 하지만 장익준, 이기용(2014)의 연구를 살펴보면, 다문화인식은 다문화 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이때 다문화 태도

가 다문화 효능감 향상에 부분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다문화인식 못지않게 다문화 태도 역시 다문화 효능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 결과로 나타난 예비목회자의 낮은 다문화 효능감의 원인을 낮은 다문화 태도에 기인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림 IV-13]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과 마찬가지로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 수준이 차이 나는 이유를 밝히고자 변인을 범주형과 연속형으로 구분하여 평균비교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범주형 변인별 다문화 효능감 차이

범주형 변인별 다문화 효능감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6>, <표 IV-7>과 같다.

<표 IV-6> 변인별 다문화 효능감 차이(t-test)

변인	집단	사례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다문화 교우 존재 여부	존재	224	2.94	.657	1.011	.313
	미 존재	269	2.88	.658		
다문화 교육과정 존재 여부	존재	93	2.96	.630	.639	.523
	미 존재	400	2.91	.656		
다문화 프로그램 진행 여부	경험	81	3.58	.697	6.00	.000***
	미 경험	412	2.87	.620		
다문화 교육 이수 여부	이수	124	3.13	.733	4.061	.000***
	미 이수	369	2.83	.612		
성별	남자	326	2.88	.659	-.916	.360
	여자	167	2.94	.644		
활동 지역	수도권	259	2.91	.669	.254	.800
	비수도권	234	2.89	.642		
학부 출신	일반대	200	3.02	.644	3.318	.001**
	신학대	293	2.82	.653		

<표 IV-6>을 살펴보면 ‘다문화 교우 존재 여부’, ‘다문화 교육과정 존재 여부’, ‘성별’, ‘활동 지역’은 집단 간 다문화 효능감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다문화 프로그램 진행 여부’, ‘다문화 교육 이수 여부’, ‘학부 출신’은 집단 간 다문화 효능감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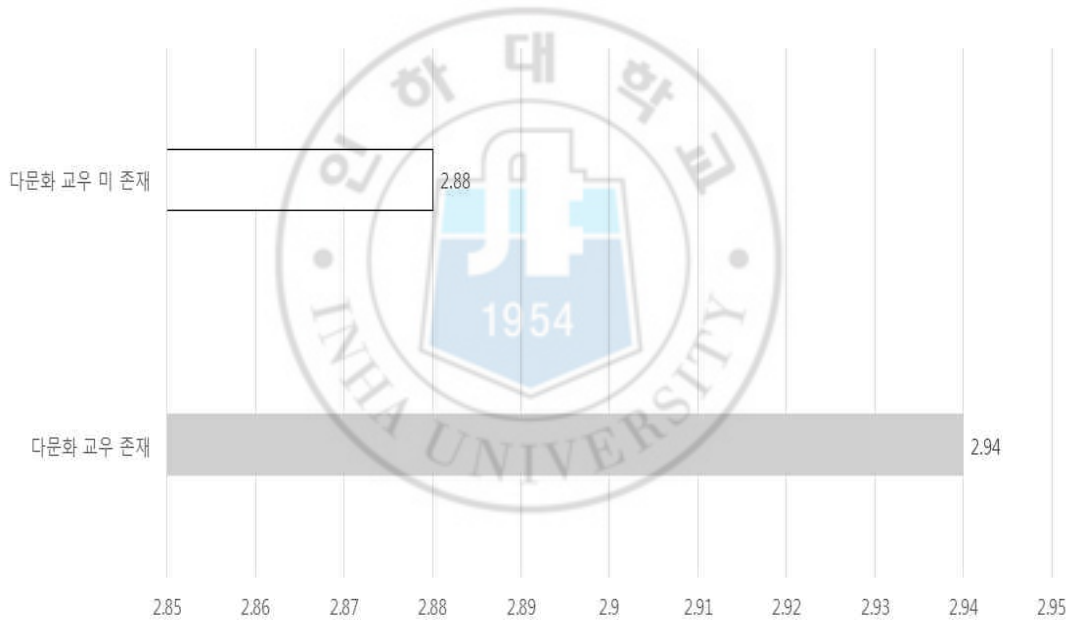
<표 IV-7> 변인별 다문화 효능감 차이(ANOVA)

변인	집단	사례	평균	표준 편차	F값	Scheffe
직업	전도사(a)	366	2.92	.667	1.799	
	학생(b)	93	2.79	.565		
	기타(c)	34	3.00	.732		
외국어 능력	고급(a)	30	3.48	.817	29.004** *	c < b < a
	중급(b)	97	3.18	.627		
	초급(c)	366	2.78	.601		
최종 학위	학사(a)	326	2.87	.652	1.081	
	석사과정(b)	113	2.96	.597		
	석사이상(c)	54	2.97	.778		
직책	파트전도사(a)	397	2.91	.650	.436	
	담임전도사(b)	15	2.95	.428		
	기타(c)	81	2.84	.710		

<표 IV-7>에서 제시된 것처럼 ‘직업’, ‘최종 학위’, ‘직책’에 따른 집단 간 다문화 효능감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외국어 능력’에 따른 집단 간 다문화 효능감 차이는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① 다문화 교우 존재 여부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교우 존재 여부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 교우가 존재하는 집단의 평균은 2.94점으로 존재하지 않는 집단의 평균 2.88점에 비해 약간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에 대한 t 점수는 1.011점으로 그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다문화 교우의 존재 여부가 다문화 효능감에 약간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지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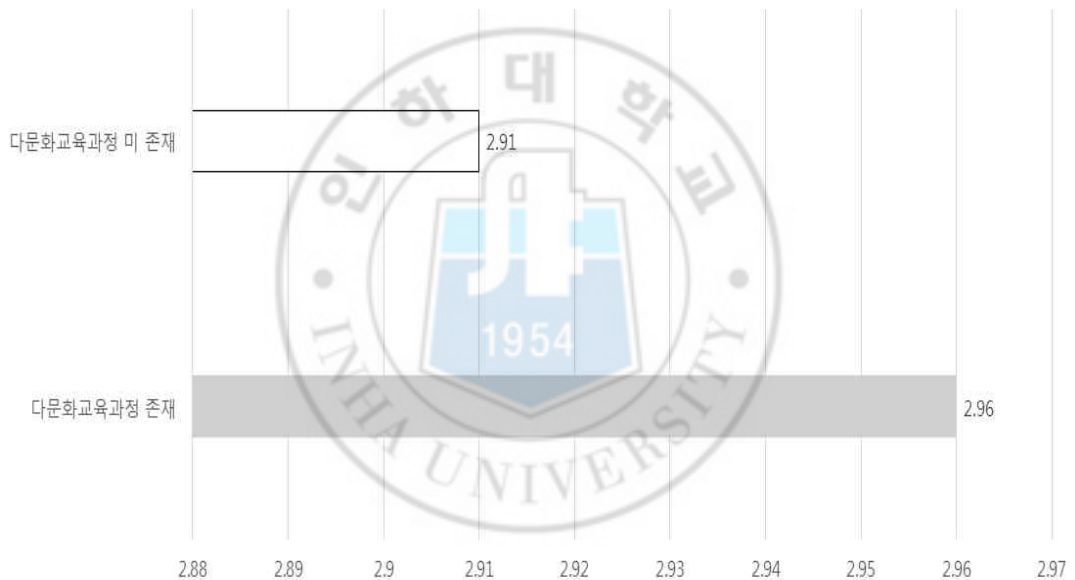


[그림 IV-14] 다문화 교우 존재 여부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 차이

이와 같이 신학대학원 내에 다문화 교우가 존재할 경우에는 다문화 교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보다 다문화 효능감이 높게 나타났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② 다문화 관련 교육과정 존재 여부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관련 교육과정 존재 여부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현재 재학 중인 신학대학원에 다문화 관련 교육과정이 존재하는 집단의 평균은 2.96점으로 존재하지 않는 집단의 평균 2.91점에 비해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에 대한 t 점수는 .639점으로 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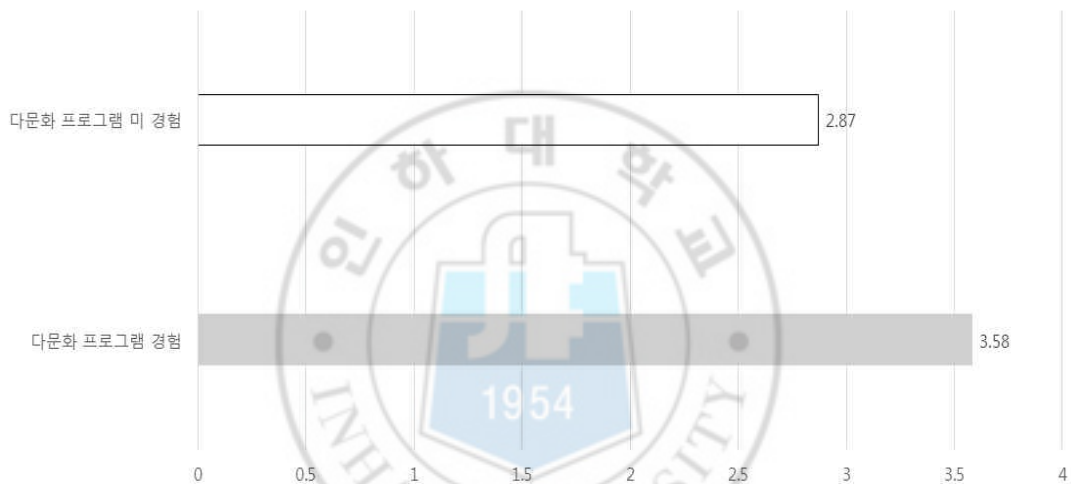


[그림 IV-15] 다문화 관련 교육과정 존재 여부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 차이

이와 같이 신학대학원 내에 다문화 관련 교육과정이 존재할 경우에는 다문화 관련 교육과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보다 다문화 효능감이 높게 나타났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③ 다문화 프로그램 진행 여부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프로그램 진행 여부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해 본 집단의 평균은 3.58점으로 다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해보지 못한 집단의 평균 2.87점에 비해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차이에 대한 t 점수는 6.0점으로 그 차이 역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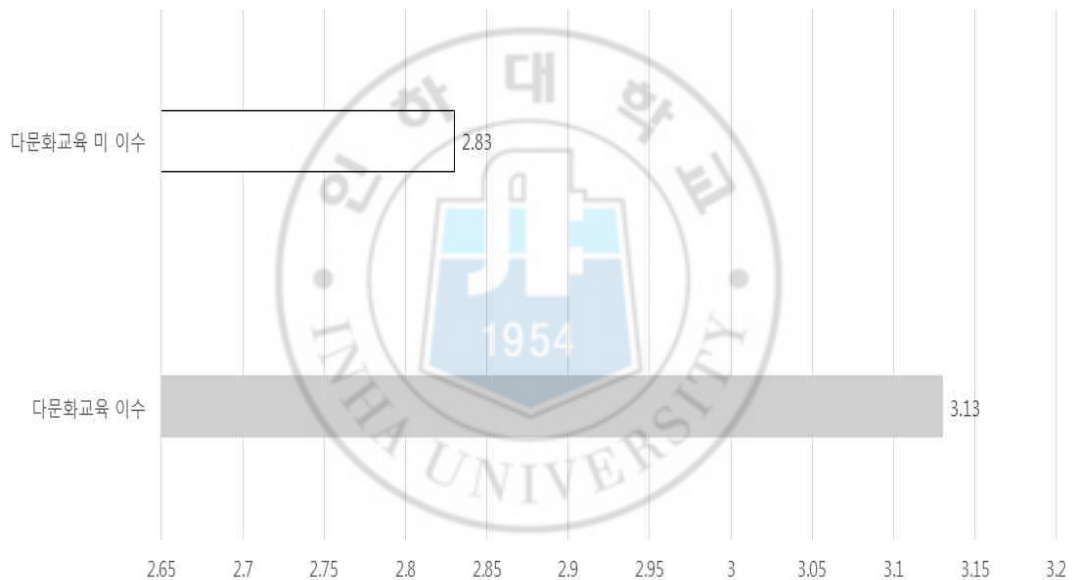


[그림 IV-16] 다문화 프로그램 진행 여부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 차이

Bandura(1977)에 의하면, 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요인은 ‘성공 경험’, ‘모델링’, ‘언어적 설득’이다. 즉, 특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경험, 타인을 통한 대리 경험, 전문가의 언어적 설득이 효능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처럼 경험이라는 요인은 효능감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나타난 다문화 프로그램 진행 여부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 차이는 ‘경험’의 차이라는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④ 다문화 교육 이수 여부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교육 이수 여부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 교육을 이수한 집단의 평균은 3.13점으로 다문화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집단의 평균 2.83점에 비해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차이에 대한 t 점수는 4.061점으로 그 차이 역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다문화 교육 이수 여부가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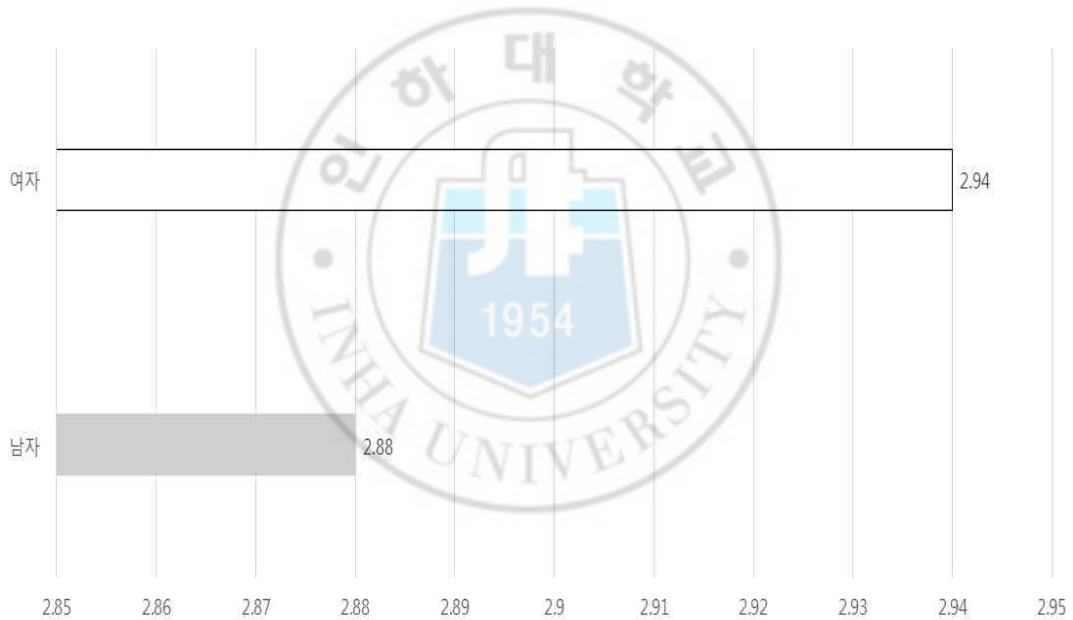


[그림 IV-17] 다문화 교육 이수 여부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 차이

이처럼 다문화 교육 이수 여부는 개신교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문화 관련 교육 이수 경험이 다문화 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정우(2013)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수치이다.

⑤ 성별

예비목회자의 성별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여자의 평균은 2.94점으로 남자의 평균 2.88점에 비해 약간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에 대한 t 점수는 .916점으로 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여자와 남자라는 성별이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에 약간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지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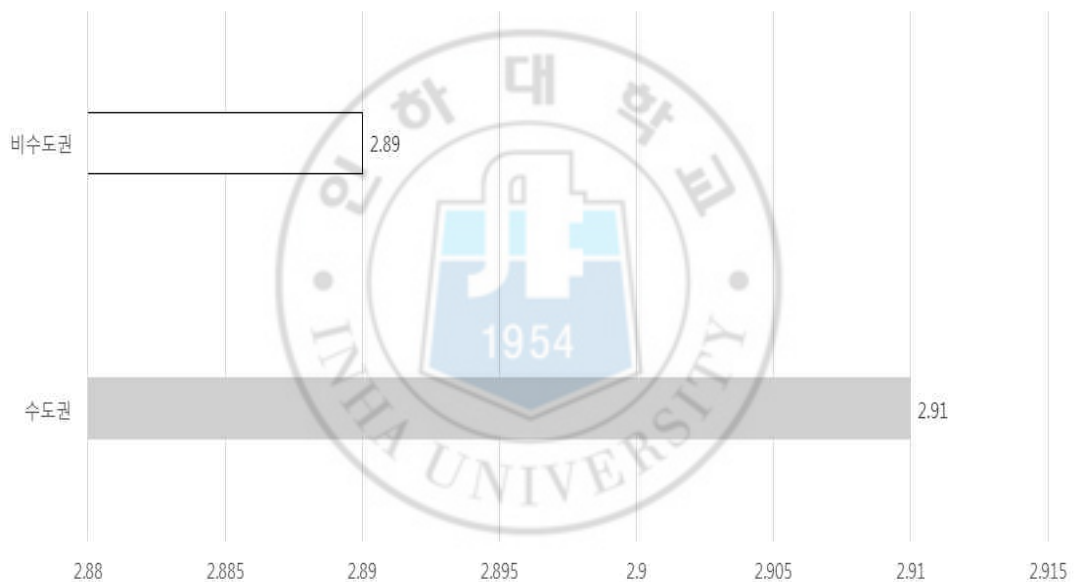


[그림 IV-18] 성별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 차이

이와 같이 여자의 다문화 효능감은 남자의 다문화 효능감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성별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⑥ 활동 지역

예비목회자의 활동 지역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 차이를 살펴본 결과, 수도권 집단의 평균은 2.91점으로 비수도권 집단의 평균 2.89점에 비해 약간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에 대한 t 점수는 .254점으로 그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예비목회자들의 활동지역이 다문화 효능감에 약간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수치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그림 IV-19] 활동 지역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 차이

이와 같이 수도권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비목회자들의 다문화 효능감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비목회자들의 다문화 효능감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활동 지역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⑦ 학부 출신

예비목회자의 학부 출신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일반대학을 졸업한 집단의 평균은 3.02점으로 신학대학을 졸업한 집단의 평균 2.82점에 비해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차이에 대한 t 점수는 3.318점으로 그 차이 역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일반대학교 출신의 예비목회자들이 다문화 효능감에 있어서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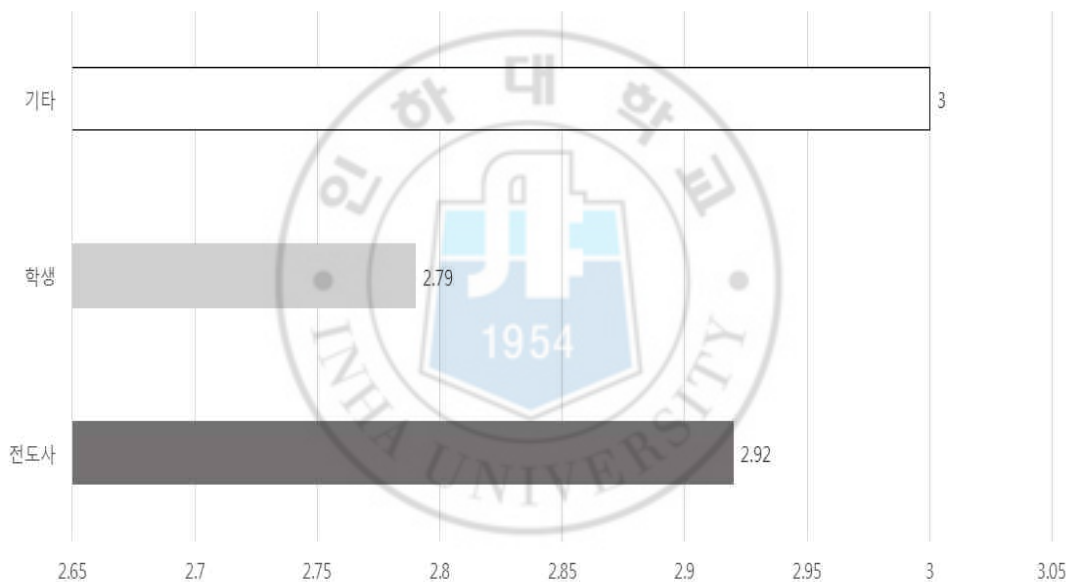


[그림 IV-20] 학부 출신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 차이

이와 같이 다문화 효능감은 일반대학 출신이 신학대학 출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학부 출신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⑧ 직업

예비목회자의 직업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타 집단의 평균이 3.0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도사 집단의 평균이 2.92점으로 그 다음이었으며, 학생 집단의 평균이 2.7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집단 간 차이에 대한 F점수는 1.799점으로 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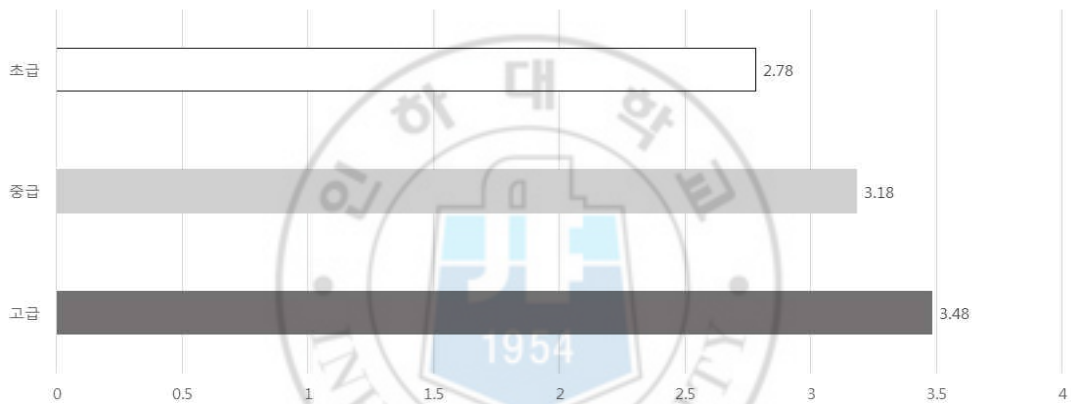


[그림 IV-21] 직업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 차이

이와 같이 다문화 효능감은 기타가 가장 높고 전도사가 다음으로 높으며 학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직업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⑨ 외국어 능력

예비목회자의 외국어 능력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 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고급 집단의 평균이 3.4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급 집단의 평균이 3.18점으로 그 다음이었으며, 초급 집단의 평균이 2.7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집단 간 차이에 대한 F점수는 29.004점으로 그 차이는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이에 Scheffe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다문화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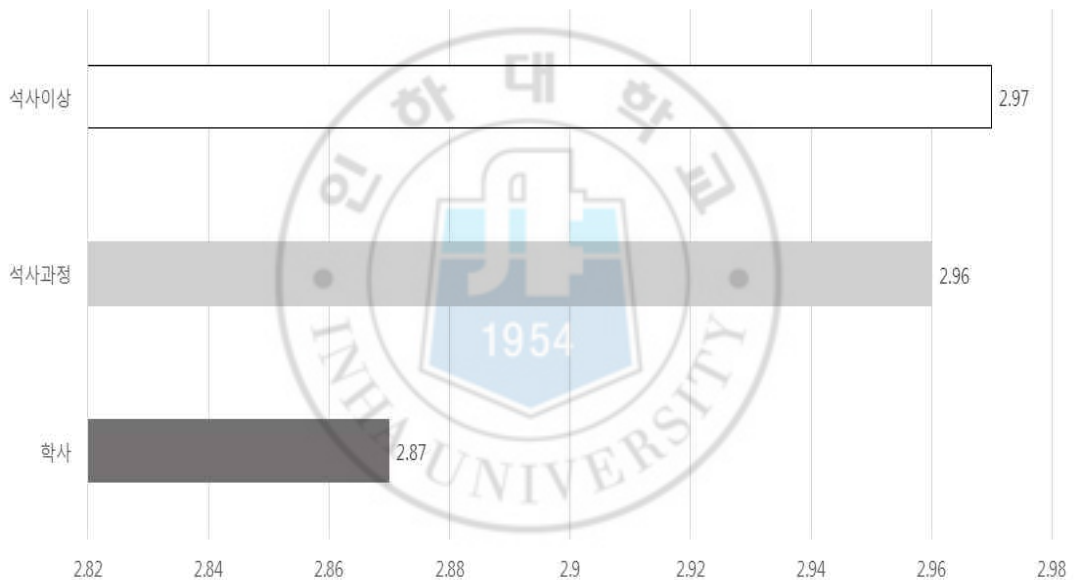


[그림 IV-22] 외국어 능력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 차이

이는 비록 표본의 동질성은 충족하지 못하였지만 외국어 능력에 따라 다문화 효능감에 차이가 있다는 지정우(2013)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문화 효능감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언어 능력이다. 왜냐하면 다문화인과의 성공적인 사회적 소통을 위해서는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능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즉, 이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외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다문화인과의 활발한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이며, 이는 곧 다문화 환경에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나타난 외국어 능력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의 차이는 ‘언어 능력’의 차이라는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⑩ 최종 학위

예비목회자의 최종 학위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석사이상의 평균이 2.9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석사과정의 평균이 2.96점으로 그 다음이었으며, 학사의 평균이 2.8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집단 간 차이에 대한 F점수는 1.081점으로 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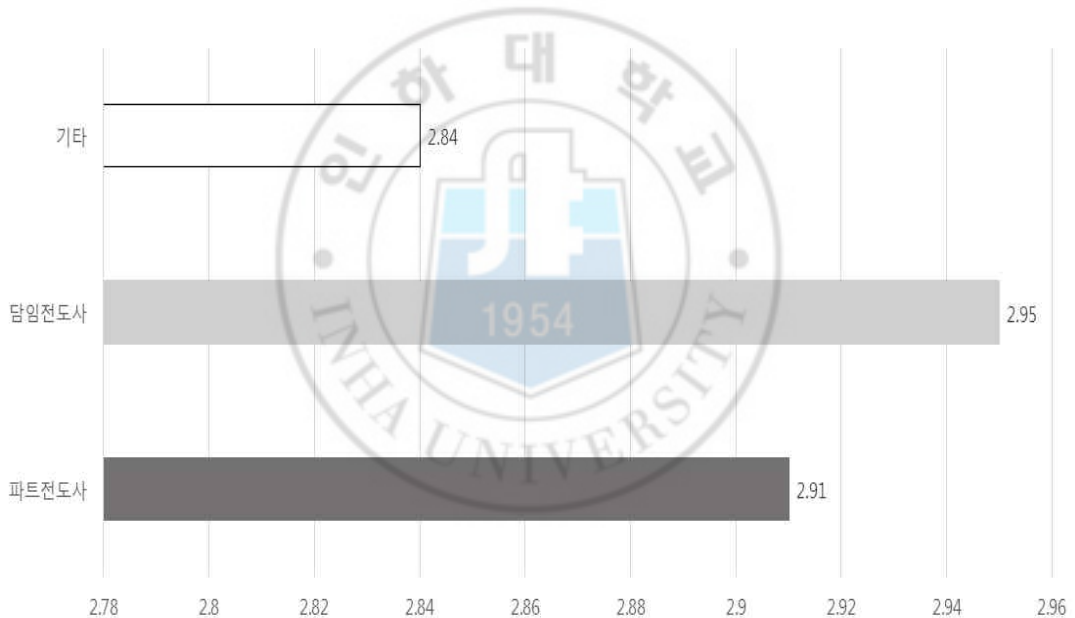


[그림 IV-23] 최종 학위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 차이

이와 같이 다문화 효능감은 석사이상 집단이 가장 높았고 석사과정 집단이 다음으로 높았으며 학사 집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최종 학위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⑪ 직책

예비목회자의 직책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담임전도사의 평균이 2.9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파트전도사의 평균이 2.91점으로 그 다음이었으며, 기타의 평균이 2.8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집단 간 차이에 대한 F점수는 .436점으로 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직책이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에 약간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지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그림 IV-24] 직책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 차이

이와 같이 다문화 효능감은 담임전도사 집단이 가장 높았고 파트전도사 집단이 다음으로 높았으며 기타 집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직책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연속형 변인별 다문화 효능감 차이

연속형 변인별 다문화 효능감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IV-8>과 같다. 다문화인식에 대한 회귀분석과 마찬가지로 분석을 실시하기 전 자기상관을 파악하기 위해 Durbin-Watson 지수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Durbin-Watson 지수는 1.837로 나타났으며, 이는 독립성 기준인 $1.8 < d < 2.2$ 를 만족하므로 다문화 효능감 역시 표본의 독립성이 확보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VIF(분산팽창요인) 지수를 확인한 결과, ‘연령’과 ‘해외 체류기간’ 모두 10 이하의 수치가 나타나 다중공선성 역시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다문화 효능감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 역시 회귀분석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회귀분석 결과, ‘연령’의 기울기는 .060로 연령이 1 증가할 때 마다 다문화 효능감은 .060만큼 증가하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 체류기간’의 기울기는 .120으로 해외 체류기간이 1 증가할 때 마다 다문화 효능감은 .120 증가하며,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적합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Kolmogorov-Smirnov’s $p = .073$ 이 나타났고, Breusch-Pagan’s $p = .081$ 이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 활용된 회귀모형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표 IV-8> 변인별 다문화 효능감 차이(regression)

구분	비표준화 계수(B)	표준 편차	표준화계수 ()	t값	유의 확률	VIF
상수	2.452	.075		32.84	.000***	
연령	.060	.027	.098	2.261	.024*	1.014
해외 체류기간	.120	.017	.296	6.853	.000***	1.014

Durbin-Watson = 1.837 , Breusch-Pagan’s $p = .081$, Kolmogorov-Smirnov’s $p = .073$

3) 다문화 효능감 하위영역별 차이

(1) 지식 영역의 범주형 변인별 다문화 효능감 차이

지식 영역의 범주형 변인별 다문화 효능감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9>, <표 IV-10>과 같다.

<표 IV-9> 지식 영역의 변인별 다문화 효능감 차이(t-test)

변인	집단	사례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다문화 교우 존재 여부	존재	224	2.73	.808	1.39	.166
	미 존재	269	2.63	.721		
다문화 교육과정 존재 여부	존재	93	2.68	.789	.243	.808
	미 존재	400	2.70	.754		
다문화 프로그램 진행 여부	경험	81	3.51	.892	6.484	.000***
	미 경험	412	2.62	.715		
다문화 교육 이수 여부	이수	124	3.01	.819	5.503	.000***
	미 이수	369	2.58	.718		
성별	남자	326	2.72	.788	1.703	.089
	여자	167	2.60	.706		
활동 지역	수도권	259	2.72	.769	1.191	.234
	비수도권	234	2.63	.759		
학부 출신	일반대	200	2.84	.790	3.801	.000***
	신학대	293	2.58	.731		

<표 IV-9>를 살펴보면 ‘다문화 교우 존재 여부’, ‘다문화 교육과정 존재 여부’, ‘성별’, ‘활동 지역’은 집단 간 다문화 효능감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다문화 프로그램 진행 여부’, ‘다문화 교육 이수 여부’, ‘학부 출신’은 집단 간 다문화 효능감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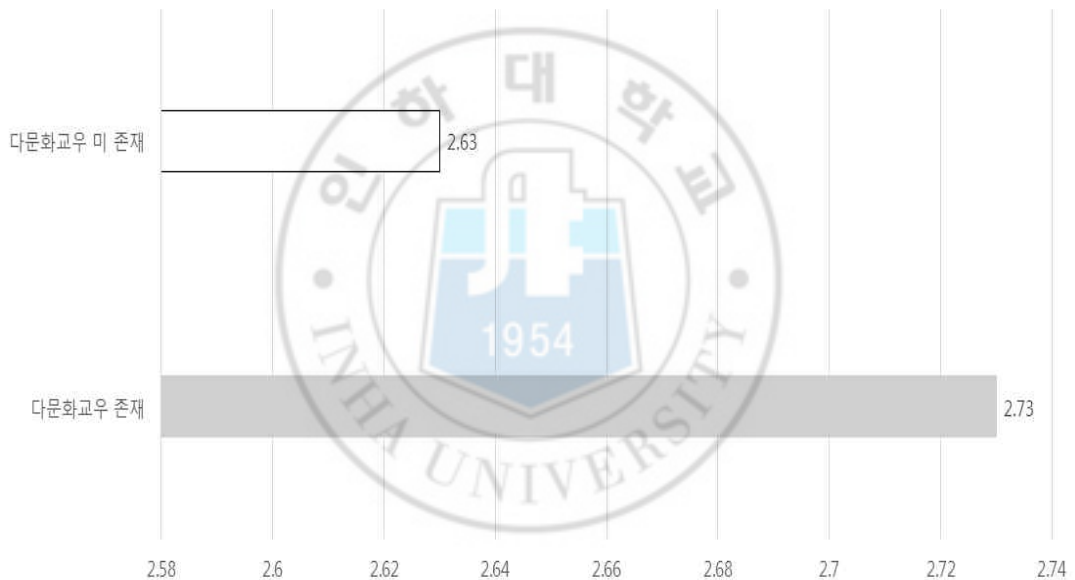
<표 IV-10> 지식 영역의 변인별 다문화 효능감 차이(ANOVA)

변인	집단	사례	평균	표준 편차	F값	Scheffe
직업	전도사(a)	366	2.68	.759	2.189	
	학생(b)	93	2.58	.754		
	기타(c)	34	2.91	.818		
외국어 능력	고급(a)	30	3.40	1.017	30.259** *	c < b < a
	중급(b)	97	2.99	.716		
	초급(c)	366	2.54	.696		
최종 학위	학사(a)	326	2.62	.740	3.017	
	석사과정(b)	113	2.77	.899		
	석사이상(c)	54	2.81	.752		
직책	파트전도사(a)	397	2.69	.772	.306	
	담임전도사(b)	15	2.52	.714		
	기타(c)	81	2.67	.741		

<표 IV-10>을 살펴보면 ‘직업’, ‘최종 학위’, ‘직책’은 집단 간 다문화 효능감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지만, ‘외국어 능력’은 집단 간 다문화 효능감 차이가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외국어 능력이 고급인 집단이 다문화 효능감이 가장 높게, 중급 집단이 그 다음으로, 초급 집단이 가장 낮은 효능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다문화 교우 존재 여부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교우 존재 여부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지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 교우가 존재하는 집단의 평균은 2.73점으로 존재하지 않는 집단의 평균 2.63점에 비해 약간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에 대한 t 점수는 1.39점으로 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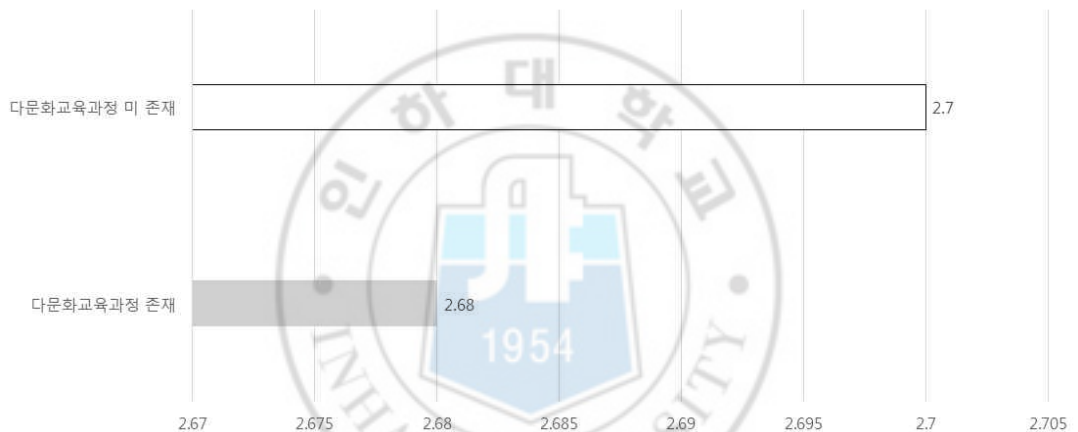


[그림 IV-25] 다문화 교우 존재 여부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지식) 차이

이와 같이 신학대학원 내에 다문화 교우가 존재할 경우에는 다문화 교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보다 다문화 효능감(지식)이 높게 나타났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② 다문화 관련 교육과정 존재 여부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교육과정 존재 여부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지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현재 재학 중인 신학대학원에 다문화 교육과정이 존재하는 집단의 평균은 2.68점으로 존재하지 않는 집단의 평균 2.70점에 비해 낮은 수치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에 대한 t 점수는 .243점으로 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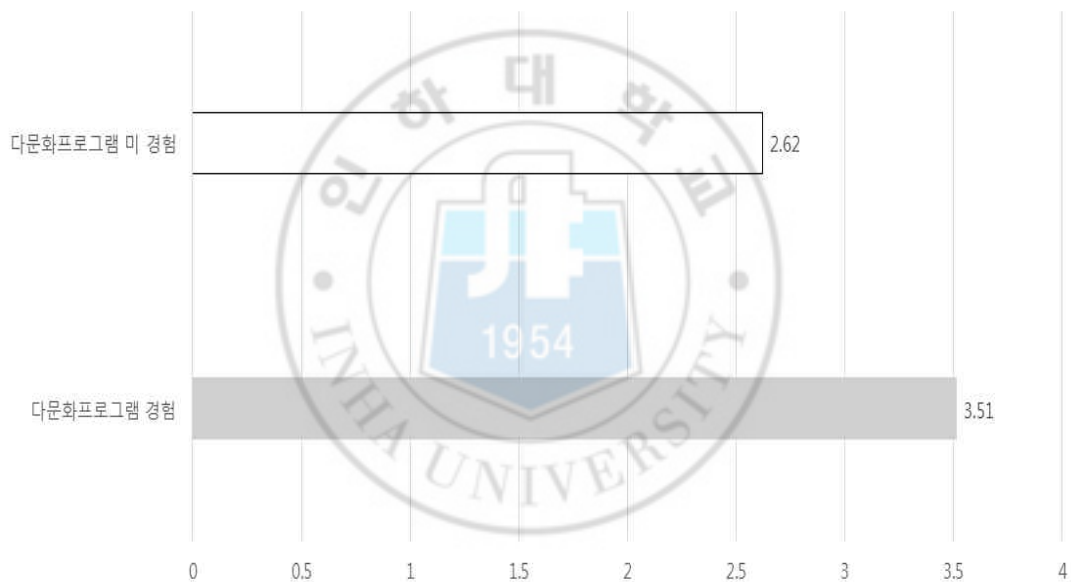


[그림 IV-26] 다문화 관련 교육과정 존재 여부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지식) 차이

이와 같이 신학대학원 내에 다문화 관련 교육과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문화 관련 교육과정이 존재하는 경우보다 다문화 효능감(기술)이 높게 나타났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다문화 관련 교육과정 존재 여부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지식)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다문화 프로그램 진행 여부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프로그램 진행 여부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지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해본 집단의 평균은 3.51점으로 다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해보지 못한 집단의 평균 2.62점에 비해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차이에 대한 t 점수는 6.484점으로 그 차이 역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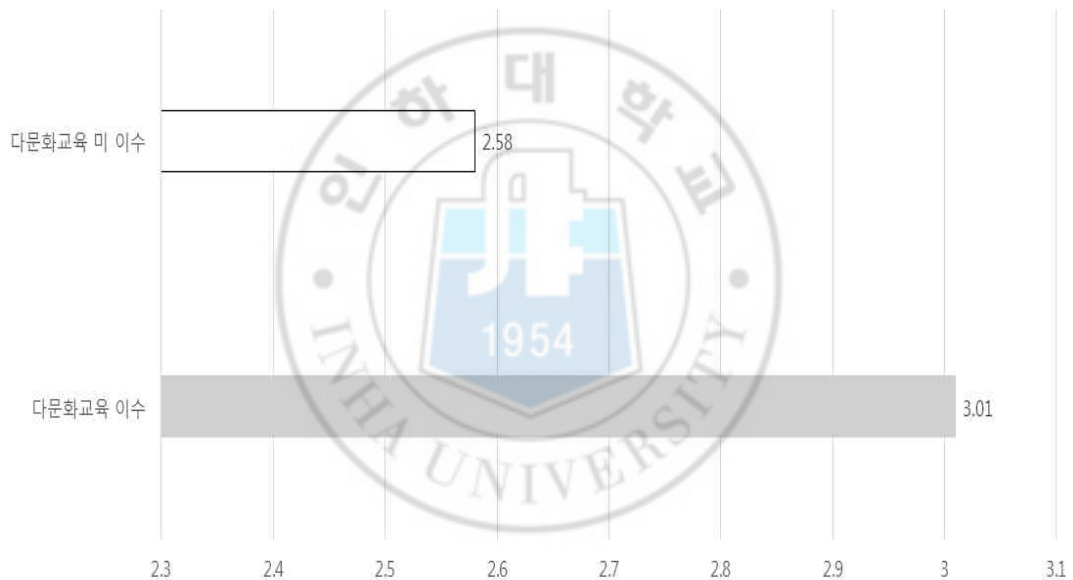


[그림 IV-27] 다문화 프로그램 진행 여부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지식) 차이

이와 같이 다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문화 프로그램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보다 다문화 효능감(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다문화 프로그램 진행 여부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지식)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④ 다문화 교육 이수 여부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교육 이수 여부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지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 교육을 이수한 집단의 평균은 3.01점으로 다문화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집단의 평균 2.62점에 비해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차이에 대한 t 점수는 5.503점으로 그 차이 역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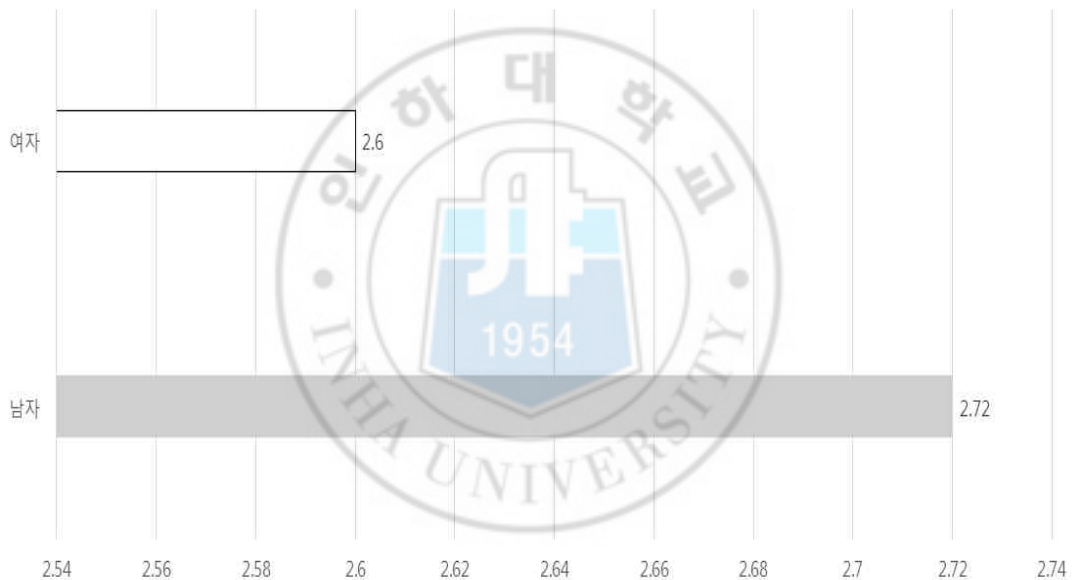


[그림 IV-28] 다문화 교육 이수 여부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지식) 차이

이와 같이 다문화 교육 기 이수자가 다문화 교육 미 이수자보다 다문화 효능감(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다문화 교육 이수 여부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지식)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성별

예비목회자의 성별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지식)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 표본 t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체 다문화 효능감의 차이와는 다르게 남자의 평균이 2.72점으로 여자의 평균 2.60점에 비해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에 대한 t 점수는 1.703점으로 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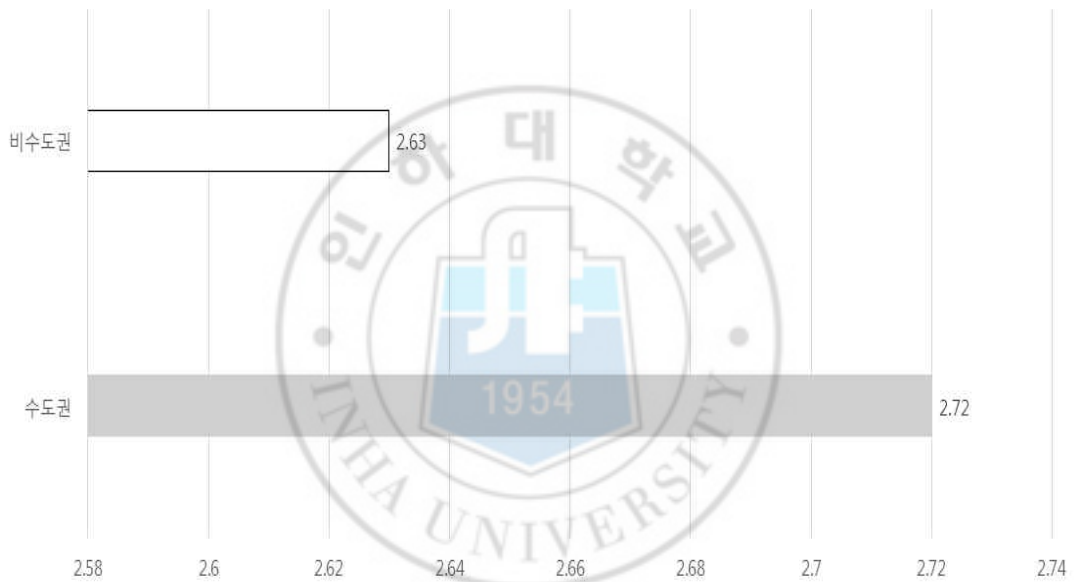


[그림 IV-29] 성별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지식) 차이

이와 같이 남자의 다문화 효능감(지식)이 여자의 다문화 효능감(지식)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성별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지식)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⑥ 활동 지역

예비목회자의 활동 지역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지식) 차이를 살펴본 결과, 수도권 집단의 평균은 2.72점으로 비수도권 집단의 평균 2.60점에 비해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에 대한 t 점수는 1.191점으로 그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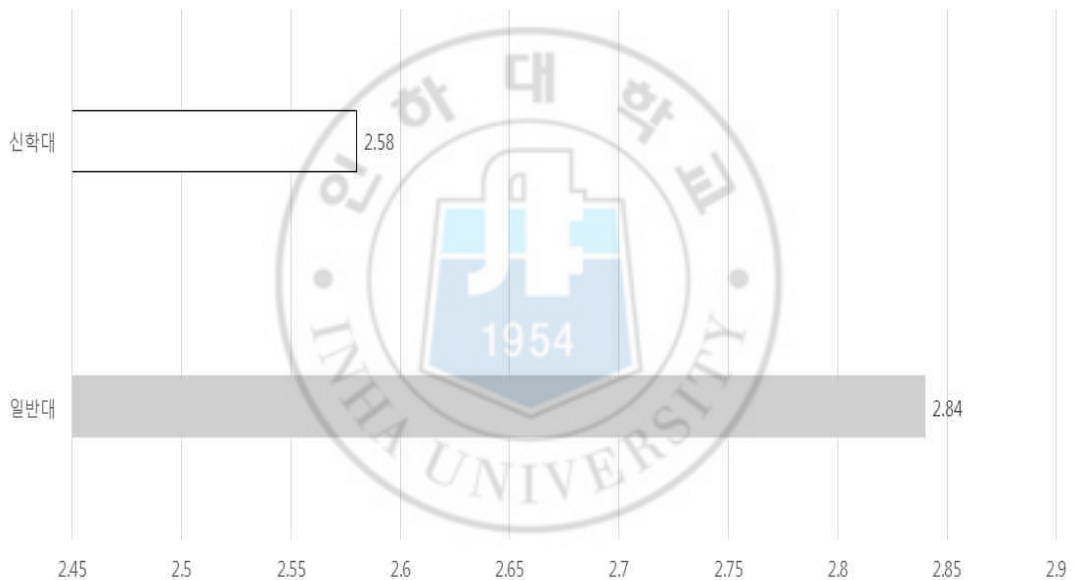


[그림 IV-30] 활동 지역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지식) 차이

이와 같이 수도권의 다문화 효능감(지식)이 비수도권의 다문화 효능감(지식)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활동 지역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지식)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⑦ 학부 출신

예비목회자의 학부 출신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지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일반대학을 졸업한 집단의 평균은 2.84점으로 신학대학을 졸업한 집단의 평균 2.58점에 비해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차이에 대한 t 점수는 3.801점으로 역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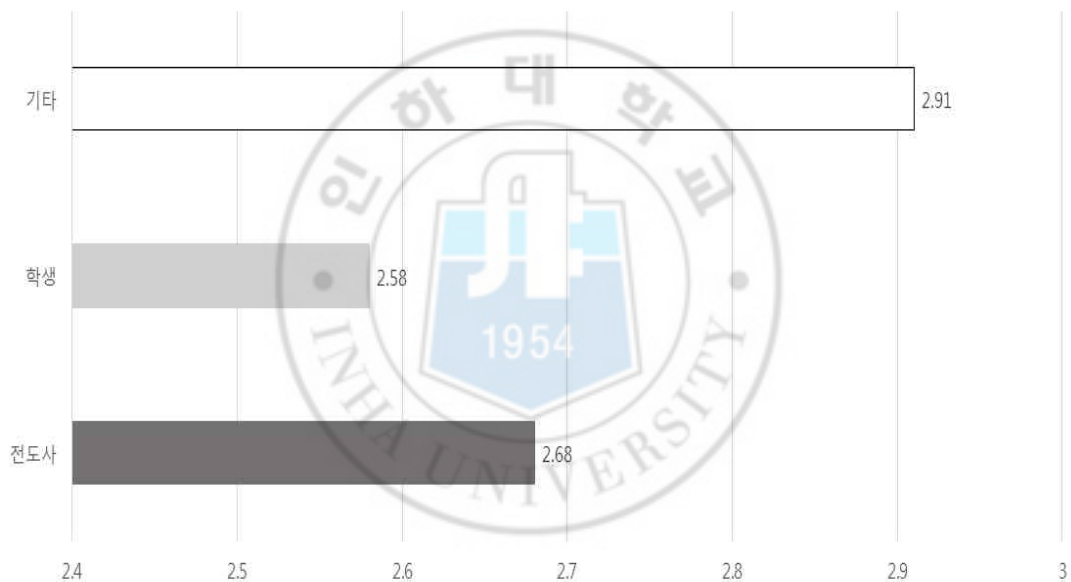


[그림 IV-31] 학부 출신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지식) 차이

이와 같이 다문화 효능감(지식)은 일반대학교 출신이 신학대학교 출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학부 출신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지식)의 차이는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⑧ 직업

예비목회자의 직업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지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타 집단의 평균이 2.9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도사 집단의 평균이 2.68점으로 그 다음이었으며, 학생 집단의 평균이 2.5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집단 간 차이에 대한 F 점수는 2.189점으로 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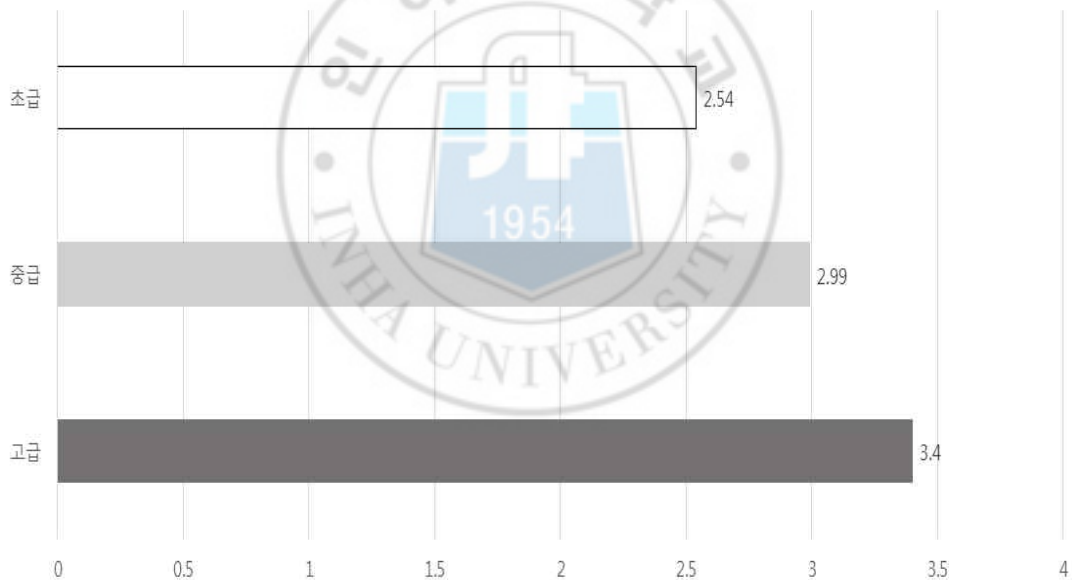


[그림 IV-32] 직업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지식) 차이

이와 같이 다문화 효능감(지식)은 기타가 가장 높고, 전도사가 다음으로 높으며, 학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아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직업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지식)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⑨ 외국어 능력

예비목회자의 외국어 능력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지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고급 집단의 평균이 3.4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급 집단의 평균이 2.99점으로 그 다음이었으며, 초급 집단의 평균이 2.5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집단 간 차이에 대한 F점수는 3.0259점으로 그 차이는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이에 Scheffe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다문화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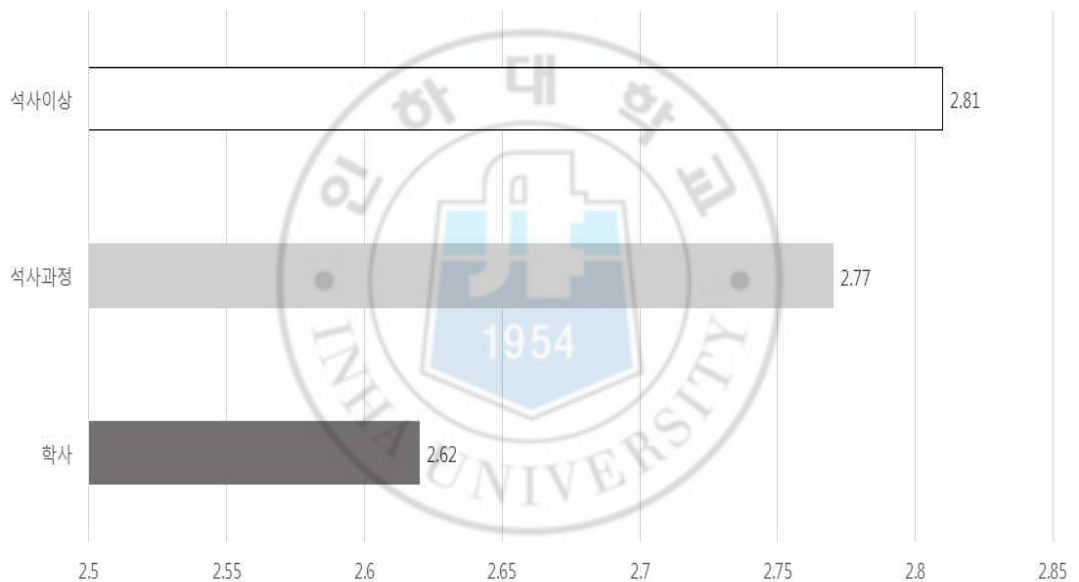


[그림 IV-33] 외국어 능력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지식) 차이

이와 같이 다문화 효능감(지식)은 외국어 능력을 가진 고급 집단이 가장 높고 중급 집단이 다음으로 높았으며 초급 집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어 능력에 따라 다문화 효능감(지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⑩ 최종 학위

예비목회자의 최종 학위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지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석사이상 평균이 2.8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석사과정 평균이 2.77점으로 그 다음이었으며, 학사의 평균이 2.6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집단 간 차이에 대한 F점수는 3.017점으로 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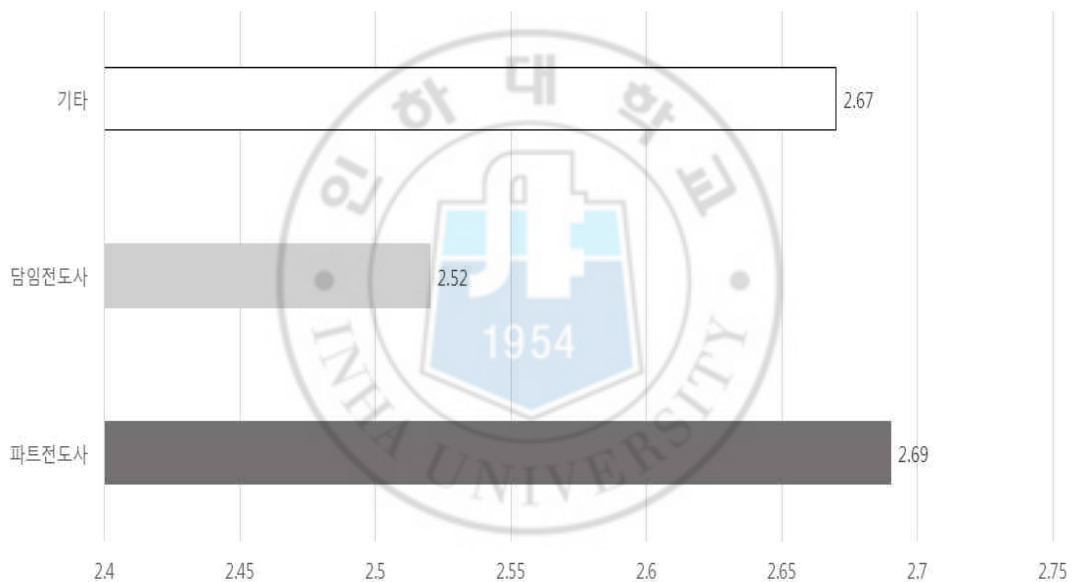


[그림 IV-34] 최종 학위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지식) 차이

이와 같이 다문화 효능감(지식)은 석사이상 집단이 가장 높았고, 석사과정 집단이 다음으로 높았으며, 학사 집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최종 학위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지식)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⑪ 직책

예비목회자의 직책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지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파트전도사의 평균이 2.6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타의 평균이 2.67점으로 그 다음이었으며, 담임전도사의 평균이 2.5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집단 간 차이에 대한 F점수는 .306점으로 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35] 직책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지식) 차이

이와 같이 다문화 효능감(지식)은 담임전도사 집단이 가장 높았고, 파트전도사 집단이 다음으로 높았으며, 기타 집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직책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지식)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지식 영역의 연속형 변인별 다문화 효능감 차이

지식 영역의 연속형 변인별 다문화 효능감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IV-11>과 같다. 위에서 다문화인식에 대한 회귀분석과 마찬가지로 분석을 실시하기 전 자기상관을 파악하기 위해 Durblin-Watson 지수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Durblin-Watson 지수는 1.912로 나타났으며, 이는 독립성 기준인 $1.8 < d < 2.2$ 를 만족하므로 다문화 효능감 역시 표본의 독립성이 확보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VIF(분산팽창요인) 지수를 확인한 결과, ‘연령’과 ‘해외 체류기간’ 모두 10 이하의 수치가 나타나 다중공선성 역시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다문화 효능감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 역시 회귀분석에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다.

회귀분석 결과, ‘연령’의 기울기는 .003로, 연령이 1 증가할 때 마다 다문화 효능감은 .003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 체류기간’의 기울기는 .141로 해외 체류기간이 1 증가할 때마다 다문화 효능감은 .141 증가하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적합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Kolmogorov-Smirnov’s $p = .062$ 가 나타났고, Breusch-Pagan’s $p = .089$ 가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 활용된 회귀모형은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다.

<표 IV-11> 지식 영역의 변인별 다문화 효능감 차이(regression)

구분	비표준화 계수(B)	표준 편차	표준화계수 ()	t값	유의 확률	VIF
상수	2.298	.088		26.144	.000***	
연령	.003	.031	.005	.106	.916	1.014
해외 체류기간	.141	.021	.298	6.857	.000***	1.014

Durblin-Watson = 1.912 , Breusch-Pagan’s $p = .089$, Kolmogorov-Smirnov’s $p = .062$

(3) 기술 영역의 범주형 변인별 다문화 효능감 차이

기술 영역의 범주형 변인별 다문화 효능감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12>, <표 IV-13>와 같다.

<표 IV-12> 기술 영역의 변인별 다문화 효능감 차이(t-test)

변인	집단	사례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다문화 교우 존재 여부	존재	224	2.65	.812	1.298	.195
	미 존재	269	2.55	.769		
다문화 교육과정 존재 여부	존재	93	2.61	.781	-.108	.914
	미 존재	400	2.62	.742		
다문화 프로그램 진행 여부	경험	81	3.37	.846	5.767	.000***
	미 경험	412	2.55	.739		
다문화 교육 이수 여부	이수	124	2.91	.868	4.936	.000***
	미 이수	369	2.48	.724		
성별	남자	326	2.57	.799	-.710	.478
	여자	167	2.62	.746		
활동 지역	수도권	259	2.57	.831	-.377	.707
	비수도권	234	2.60	.728		
학부 출신	일반대	200	2.72	.821	3.067	.002**
	신학대	293	2.49	.745		

<표 IV-12>를 살펴보면 ‘다문화 교우 존재 여부’, ‘다문화 교육과정 존재 여부’, ‘성별’, ‘활동 지역’은 집단 간 다문화 효능감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다문화 프로그램 진행 여부’, ‘다문화 교육 이수 여부’, ‘학부 출신’은 집단 간 다문화 효능감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IV-13> 기술 영역의 변인별 다문화 효능감 차이(ANOV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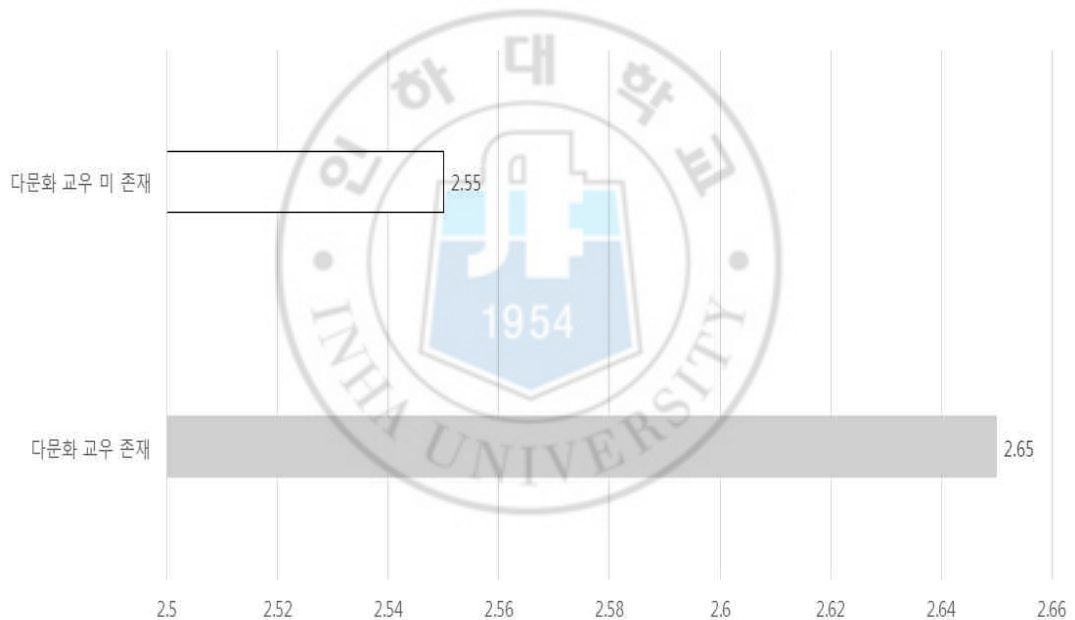
변인	집단	사례	평균	표준 편차	F값	Scheffe
직업	전도사(a)	366	2.59	.805	2.899	
	학생(b)	93	2.45	.671		
	기타(c)	34	2.82	.771		
외국어 능력	고급(a)	30	3.37	.985	33.007** *	c < b < a
	중급(b)	97	2.90	.771		
	초급(c)	366	2.43	.703		
최종 학위	학사(a)	326	2.54	.786	1.700	
	석사과정(b)	113	2.61	.873		
	석사이상(c)	54	2.69	.719		
직책	파트전도사(a)	397	2.58	.792	.301	
	담임전도사(b)	15	2.47	.572		
	기타(c)	81	2.63	.770		

<표 IV-13>을 살펴보면 ‘직업’, ‘최종 학위’, ‘직책’은 집단 간 다문화 효능감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지만 ‘외국어 능력’은 집단 간 다문화 효능감 차이가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다. 각 변인별 결과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① 다문화 교우 존재 여부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교우 존재 여부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기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 교우가 존재하는 집단의 평균은 2.65점으로 존재하지 않는 집단의 평균 2.55점에 비해 약간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에 대한 t 점수는 1.298점으로 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다문화 교우의 존재 여부가 다문화 효능감(기술)에 약간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지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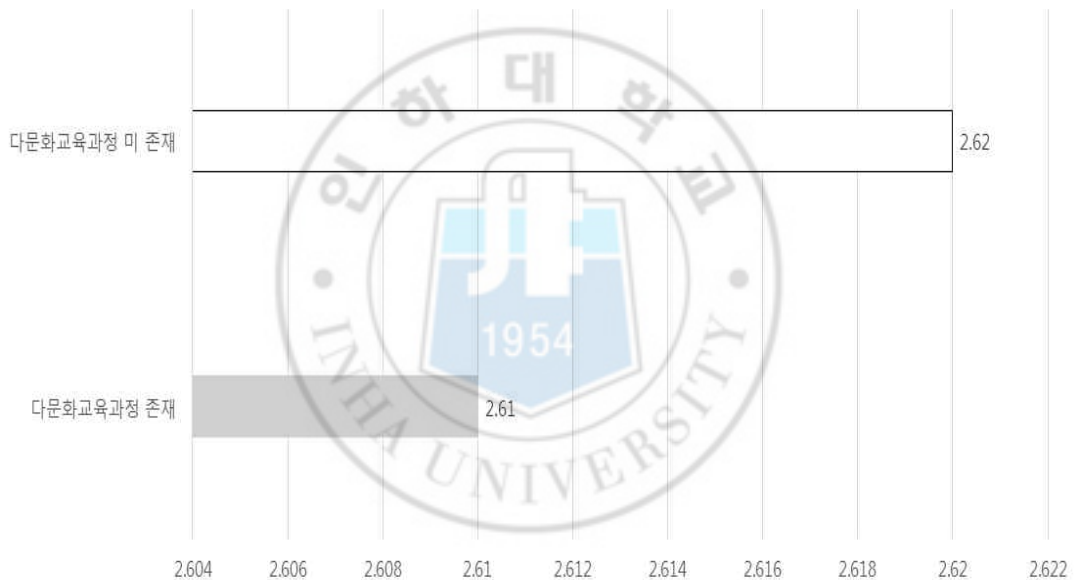


[그림 IV-36] 다문화 교우 존재 여부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기술) 차이

이와 같이 신학대학원 내에 다문화 교우가 존재할 경우에는 다문화 교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보다 다문화 효능감(기술)이 높게 나타났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다문화 교우 존재 여부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기술)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② 다문화 관련 교육과정 존재 여부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교육과정 존재 여부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기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현재 재학 중인 신학대학원에 다문화 교육과정이 존재하는 집단의 평균은 2.61점으로 존재하지 않는 집단의 평균 2.62점에 비해 낮은 수치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에 대한 t 점수는 .108점으로 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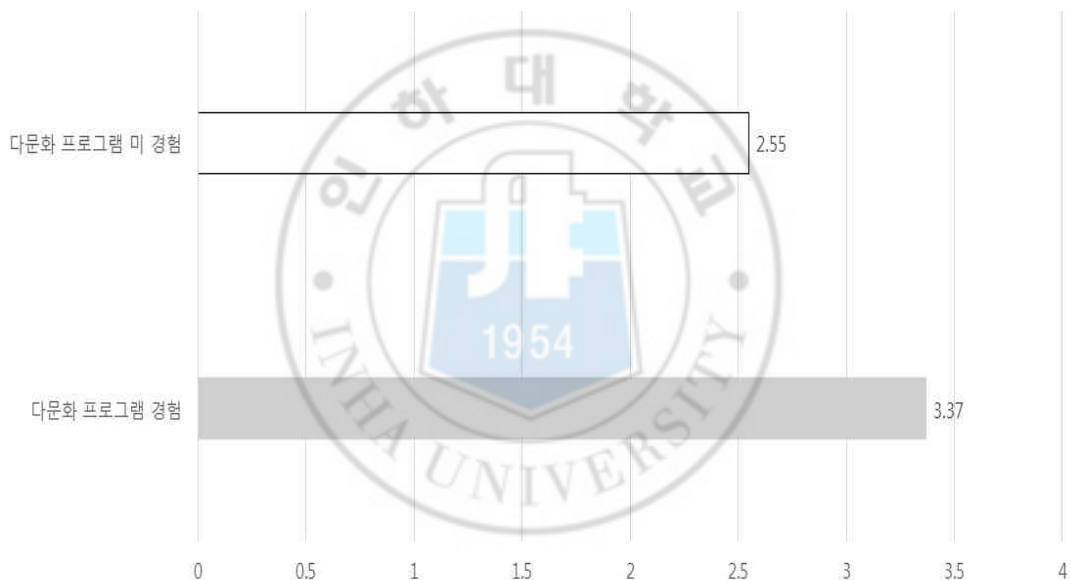


[그림 IV-37] 다문화 관련 교육과정 존재 여부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기술) 차이

이와 같이 신학대학원 내에 다문화 관련 교육과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문화 관련 교육과정이 존재하는 경우보다 다문화 효능감(기술)이 높게 나타났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③ 다문화 프로그램 진행 여부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프로그램 진행 여부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기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해본 집단의 평균은 3.37점으로 다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해보지 못한 집단의 평균 2.55점에 비해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차이에 대한 t 점수는 5.767점으로 그 차이 역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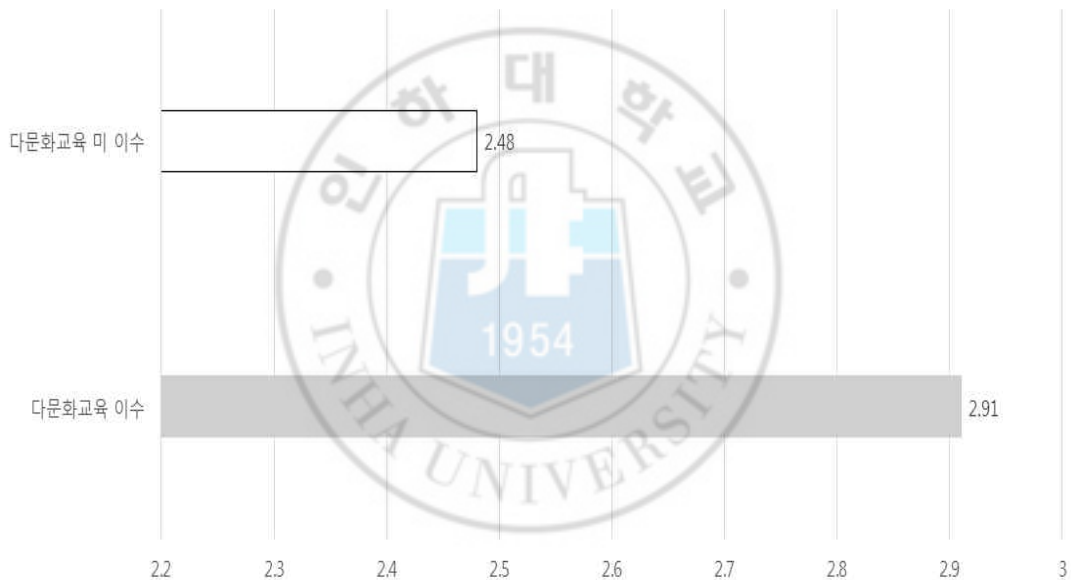


[그림 IV-38] 다문화 프로그램 진행 여부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기술) 차이

이와 같이 다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해본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문화 프로그램을 경험해보지 못한 경우보다 다문화 효능감(기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다문화 프로그램 진행 여부는 다문화 효능감(기술)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④ 다문화 교육 이수 여부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교육 이수 여부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기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 교육을 이수한 집단의 평균은 2.91점으로 다문화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집단의 평균 2.48점에 비해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차이에 대한 t 점수는 4.936점으로 그 차이 역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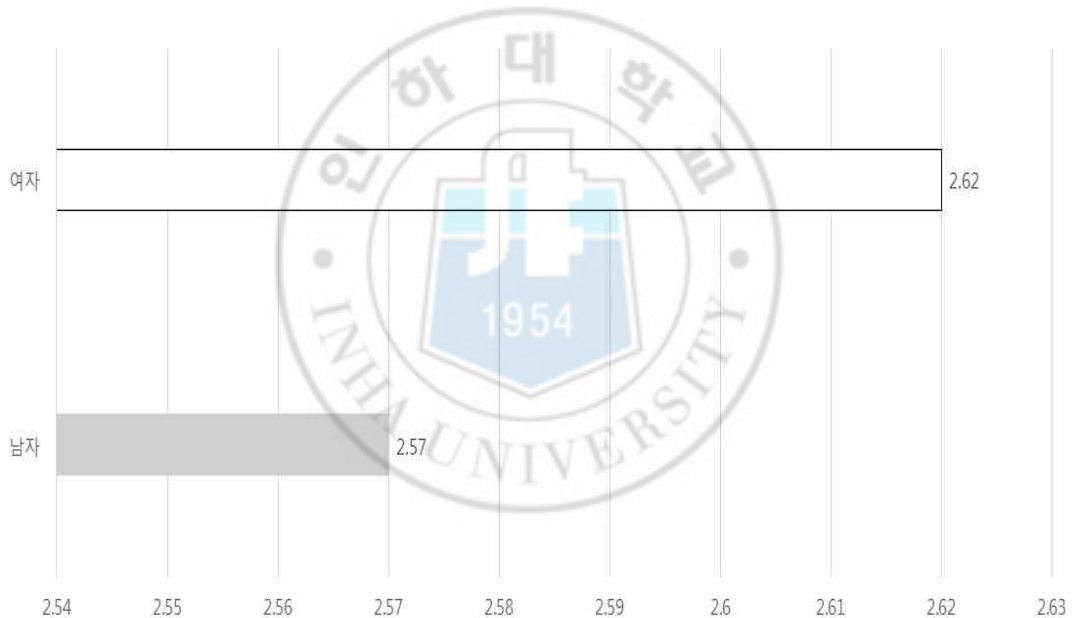


[그림 IV-39] 다문화 교육 이수 여부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기술) 차이

이와 같이 다문화 교육 기 이수자가 다문화 교육 미 이수자보다 다문화 효능감(기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 효능감(기술)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⑤ 성별

예비목회자의 성별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기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여자의 평균은 2.62점으로 남자의 평균 2.57점에 비해 약간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에 대한 t 점수는 .710점으로 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성별이 다문화 효능감(기술)에 약간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지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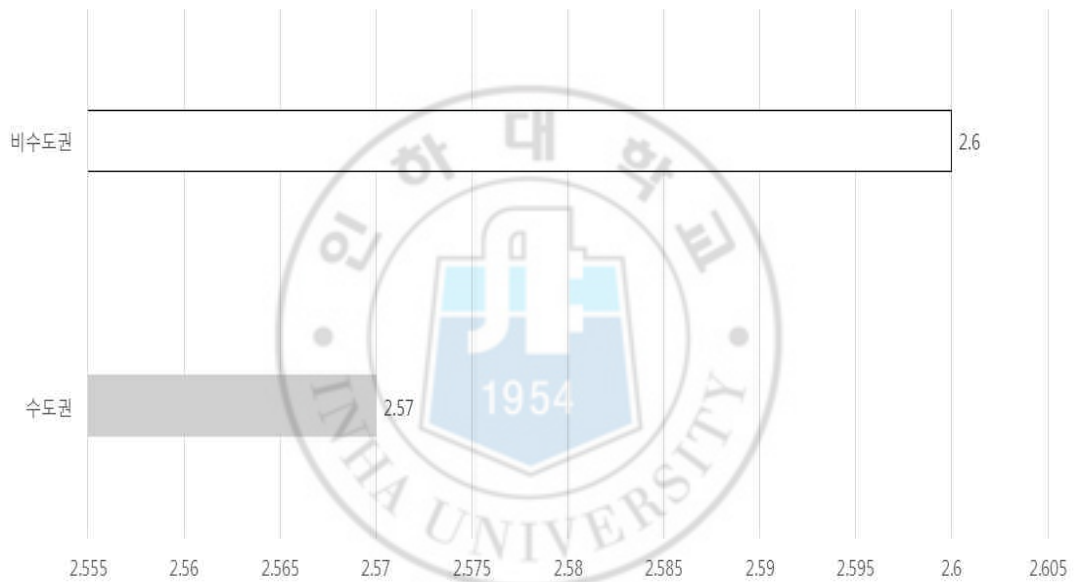


[그림 IV-40] 성별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기술) 차이

이와 같이 여자의 다문화 효능감(기술)은 남자의 다문화 효능감(기술)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성별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기술)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⑥ 활동 지역

예비목회자의 활동 지역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기술) 차이를 살펴본 결과, 수도권 집단의 평균은 2.57점으로 비수도권 집단의 평균 2.60점에 비해 낮은 수치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에 대한 t 점수는 .377점으로 그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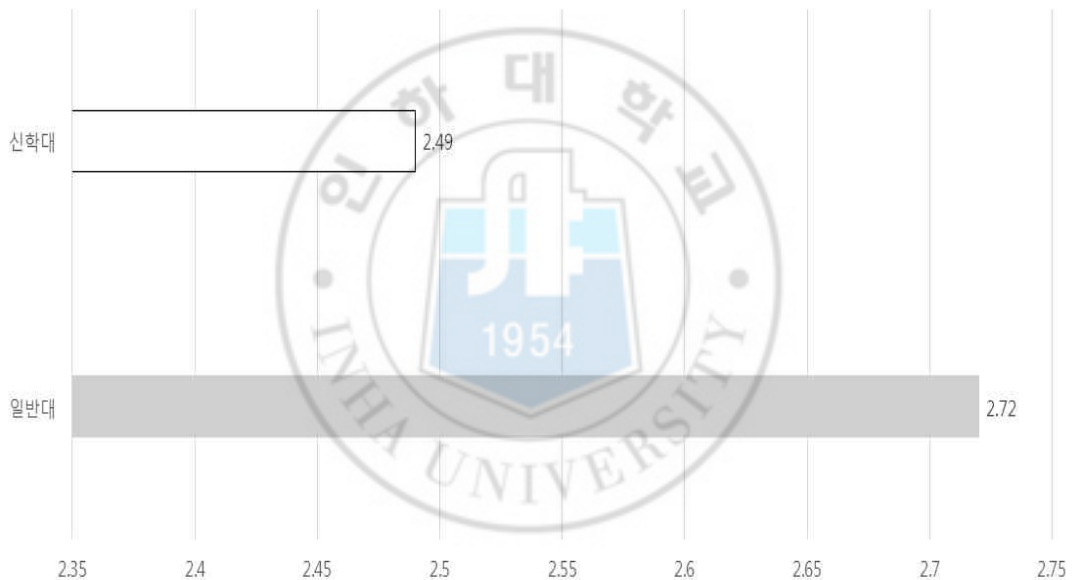


[그림 IV-41] 활동 지역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기술) 차이

이와 같이 수도권의 다문화 효능감(기술)이 비수도권의 다문화 효능감(기술)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활동 지역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기술)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⑦ 학부 출신

예비목회자의 학부 출신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기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일반대학을 졸업한 집단의 평균은 2.72점으로 신학대학을 졸업한 집단의 평균 2.49점에 비해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차이에 대한 t 점수는 3.067점으로 그 차이 역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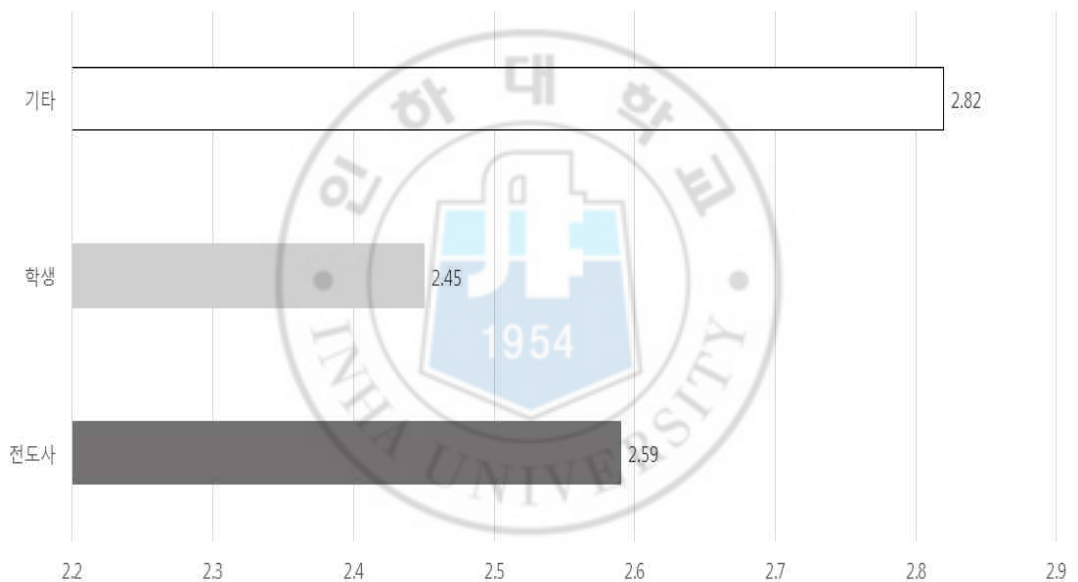


[그림 IV-42] 학부 출신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기술) 차이

이와 같이 다문화 효능감(기술)은 일반대학 출신이 신학대학 출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학부 출신은 다문화 효능감(기술)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⑧ 직업

예비목회자의 직업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기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타 집단의 평균이 2.8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도사 집단의 평균이 2.59점으로 그 다음이었으며, 학생 집단의 평균이 2.4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집단 간 차이에 대한 F 점수는 2.899점으로 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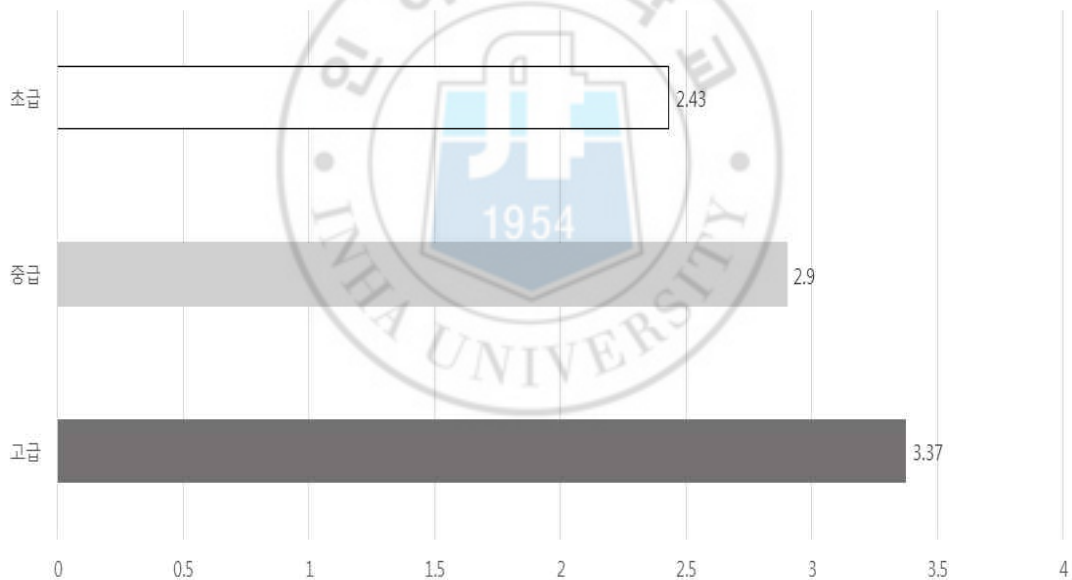


[그림 IV-43] 직업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기술) 차이

이와 같이 다문화 효능감(기술)은 기타가 가장 높고 전도사가 다음으로 높으며 학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아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직업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기술)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⑨ 외국어 능력

예비목회자의 외국어 능력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 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고급 집단의 평균이 3.3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급 집단의 평균이 2.90점으로 그 다음이었으며, 초급 집단의 평균이 2.4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집단 간 차이에 대한 F점수는 33.007점으로 그 차이는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이에 Scheffe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다문화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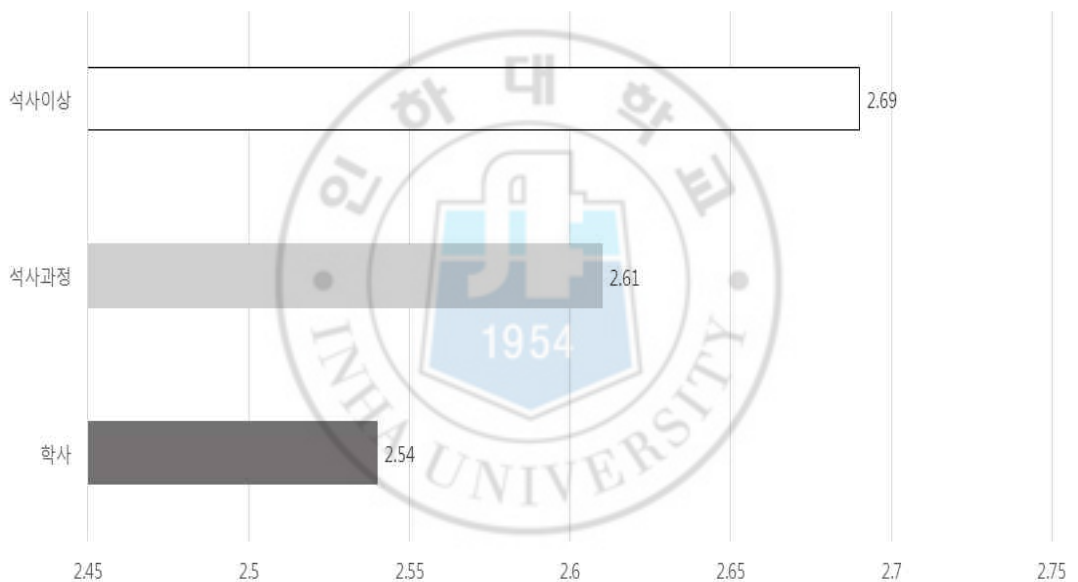


[그림 IV-44] 외국어 능력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기술) 차이

이와 같이 다문화 효능감(기술)은 고급 집단이 가장 높고, 중급 집단이 다음으로, 초급 집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어 능력에 따라 다문화 효능감(기술)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⑩ 최종 학위

예비목회자의 최종 학위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기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석사이상의 평균이 2.6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석사과정의 평균이 2.61점으로 그 다음이었으며, 학사의 평균이 2.5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집단 간 차이에 대한 F점수는 1.700점으로 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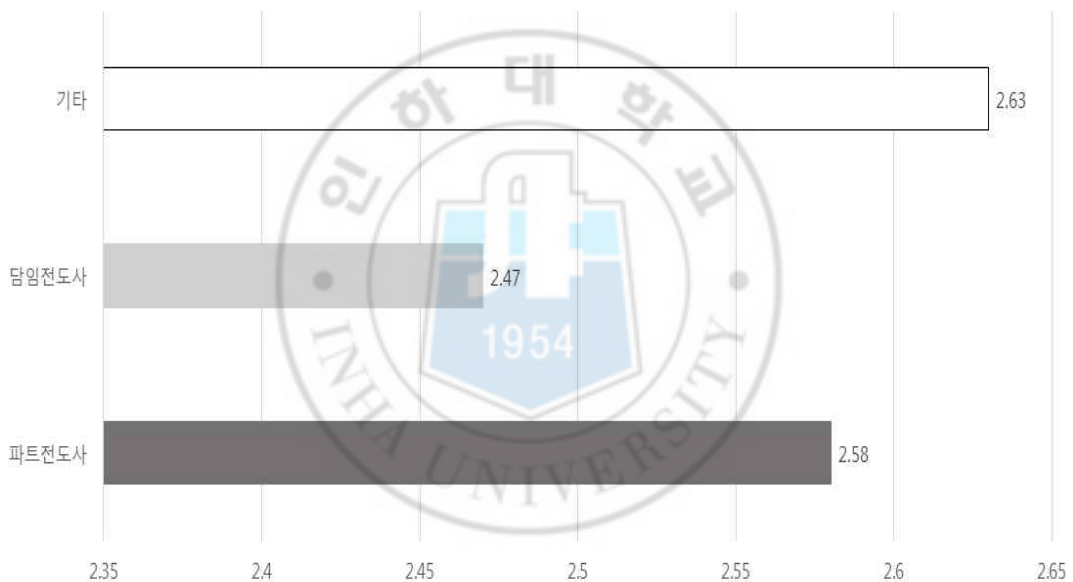


[그림 IV-45] 최종 학위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기술) 차이

이와 같이 다문화 효능감(기술)은 석사이상 집단이 가장 높았고 석사과정 집단이 다음으로 높았으며 학사 집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최종 학위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기술)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⑪ 직책

예비목회자의 직책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기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타의 평균이 2.6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파트전도사의 평균이 2.58점으로 그 다음이었으며, 담임전도사의 평균이 2.4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집단 간 차이에 대한 F점수는 .301점으로 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46] 직책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기술) 차이

이와 같이 다문화 효능감(기술)은 담임전도사 집단이 가장 높았고, 파트전도사 집단이 그 다음으로, 기타 집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직책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기술)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4) 기술 영역의 연속형 변인별 다문화 효능감 차이

기술 영역의 연속형 변인별 다문화 효능감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IV-14>와 같다. 다문화인식에 대한 회귀분석과 마찬가지로 분석을 실시하기 전 자기상관을 파악하기 위해 Durblin-Watson 지수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Durblin-Watson 지수는 1.876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독립성 기준인 $1.8 < d < 2.2$ 를 만족하므로 다문화 효능감 역시 표본의 독립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VIF(분산팽창요인) 지수를 확인한 결과, ‘연령’과 ‘해외 체류기간’ 모두 10 이하의 수치가 나타나 다중공선성 역시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다문화 효능감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 역시 회귀분석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회귀분석 결과, ‘연령’의 기울기는 .041로, 연령이 1 증가할 때 마다 다문화 효능감은 .041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외 체류기간’의 기울기는 .140으로 해외 체류기간이 1 증가할 때 마다 다문화 효능감은 .140 증가하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적합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Kolmogorov-Smirnov’s $p = .216$ 이 나타났고, Breusch-Pagan’s $p = .186$ 이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 활용된 회귀모형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표 IV-14> 기술 영역의 변인별 다문화 효능감 차이(regression)

구분	비표준화 계수(B)	표준 편차	표준화계수 ()	t값	유의 확률	VIF
상수	2.123	.090		23.601	.000***	
연령	.041	.032	.056	1.296	.195	1.014
해외 체류기간	.140	.021	.289	6.643	.000***	1.014

Durblin-Watson = 1.876 , Breusch-Pagan’s $p = .186$, Kolmogorov-Smirnov’s $p = .216$

(5) 태도 영역의 범주형 변인별 다문화 효능감 차이

태도 영역의 범주형 변인별 다문화 효능감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15>, <표 IV-16>과 같다.

<표 IV-15> 태도 영역의 변인별 다문화 효능감 차이(t-test)

변인	집단	사례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다문화 교우 존재 여부	존재	224	3.16	.669	.533	.594
	미 존재	269	3.13	.701		
다문화 교육과정 존재 여부	존재	93	3.24	.670	1.22	.224
	미 존재	400	3.14	.676		
다문화 프로그램 진행 여부	경험	81	3.74	.640	4.99	.000***
	미 경험	412	3.12	.658		
다문화 교육 이수 여부	이수	124	3.29	.730	2.702	.007**
	미 이수	369	3.10	.668		
성별	남자	326	3.12	.694	-1.164	.245
	여자	167	3.19	.674		
활동 지역	수도권	259	3.16	.696	.585	.559
	비수도권	234	3.13	.679		
학부 출신	일반대	200	3.25	.656	2.791	.005**
	신학대	293	3.07	.701		

<표 IV-15>를 살펴보면 ‘다문화 교우 존재 여부’, ‘다문화 교육과정 존재 여부’, ‘성별’, ‘활동 지역’은 집단 간 다문화 효능감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다문화 프로그램 진행 여부’, ‘다문화 교육 이수 여부’, ‘학부 출신’은 집단 간 다문화 효능감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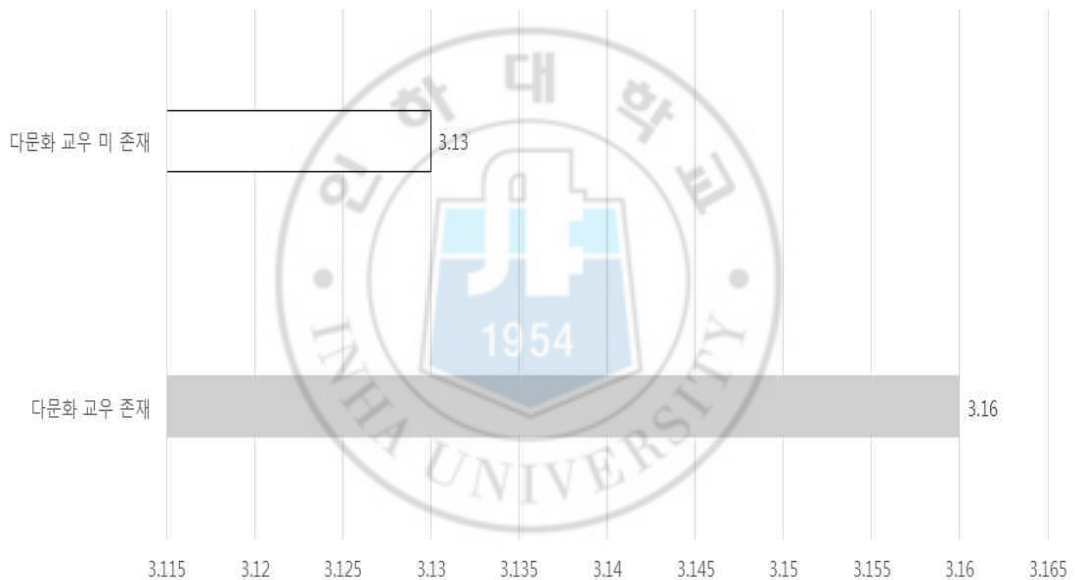
<표 IV-16> 태도 영역의 변인별 다문화 효능감 차이(ANOVA)

변인	집단	사례	평균	표준 편차	F값	Scheffe
직업	전도사(a)	366	3.16	.696	1.052	
	학생(b)	93	3.05	.626		
	기타(c)	34	3.13	.745		
외국어 능력	고급(a)	30	3.55	.770	15.961** *	c < a, b
	중급(b)	97	3.38	.658		
	초급(c)	366	3.04	.660		
최종 학위	학사(a)	326	3.12	.692	.583	
	석사과정(b)	113	3.23	.792		
	석사이상(c)	54	3.15	.621		
직책	파트전도사(a)	397	3.16	.675	2.400	
	담임전도사(b)	15	3.32	.636		
	기타(c)	81	3.00	.739		

<표 IV-16>을 살펴보면 ‘직업’, ‘최종 학위’, ‘직책’은 집단간 다문화 효능감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지만 ‘외국어 능력’은 집단 간 다문화 효능감 차이가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다.

① 다문화 교우 존재 여부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교우 존재 여부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태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 교우가 존재하는 집단의 평균은 3.16점으로 존재하지 않는 집단의 평균 3.13점에 비해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에 대한 t 점수는 .533점으로 그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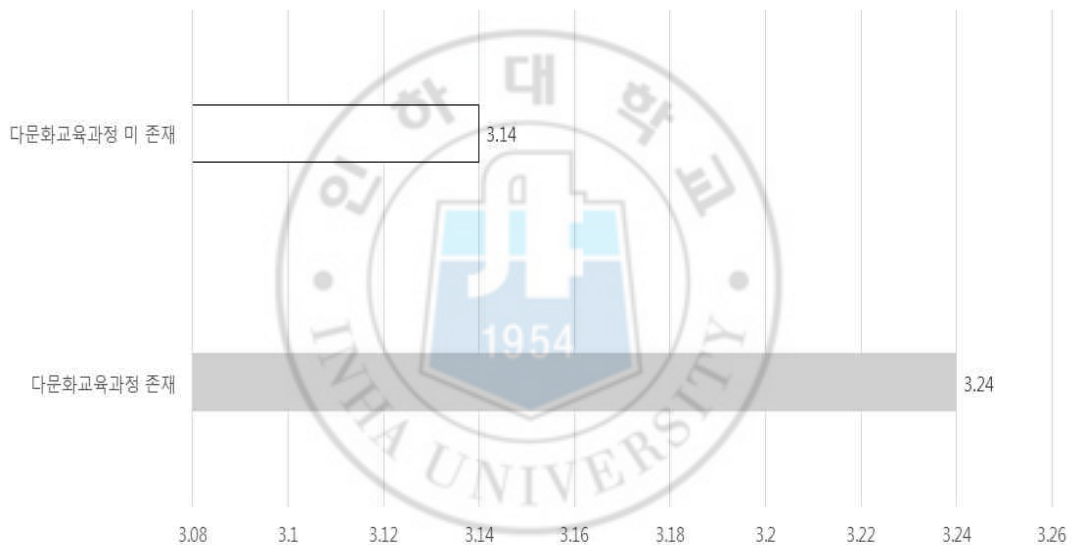


[그림 IV-47] 다문화 교우 존재 여부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태도) 차이

이와 같이 신학대학원 내에 다문화 교우가 존재할 경우에는 다문화 교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보다 다문화 효능감(태도)가 약간 높게 나타났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다문화 교우 존재 여부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태도)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② 다문화 관련 교육과정 존재 여부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관련 교육과정 존재 여부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태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현재 재학 중인 신학대학원에 다문화 교육과정이 존재하는 집단의 평균은 3.24점으로 존재하지 않는 집단의 평균 3.14점에 비해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에 대한 t 점수는 1.22점으로 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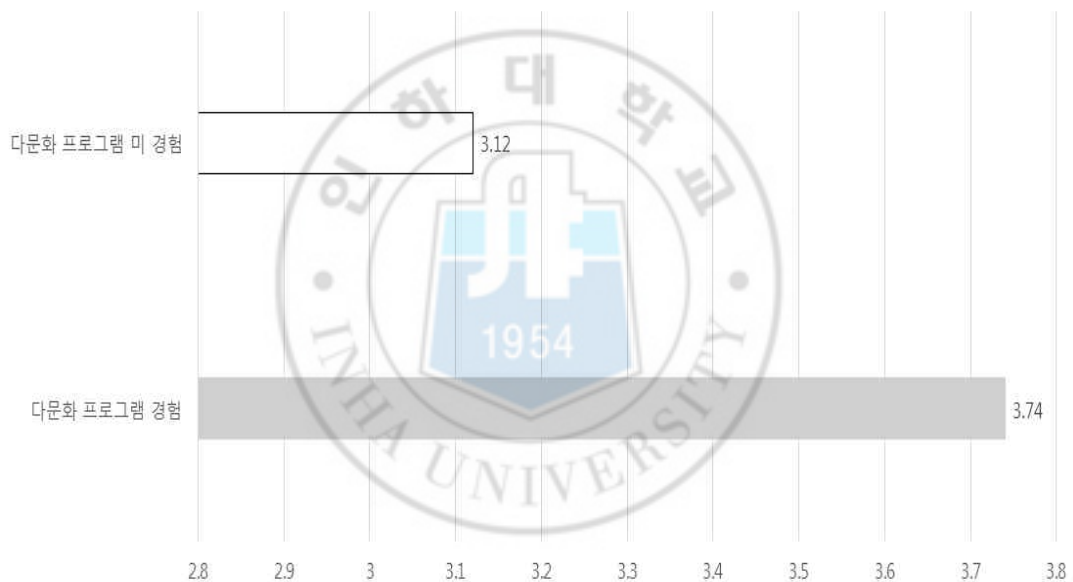


[그림 IV-48] 다문화 관련 교육과정 존재 여부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태도) 차이

이와 같이 신학대학원 내에 다문화 관련 교육과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문화 관련 교육과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보다 다문화 효능감(태도)이 높게 나타났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다문화 관련 교육과정 존재 여부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태도)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③ 다문화 프로그램 진행 여부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프로그램 진행 여부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태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해본 집단의 평균은 3.74점으로 다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해보지 못한 집단의 평균 3.12점에 비해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차이에 대한 t 점수는 4.99점으로 그 차이 역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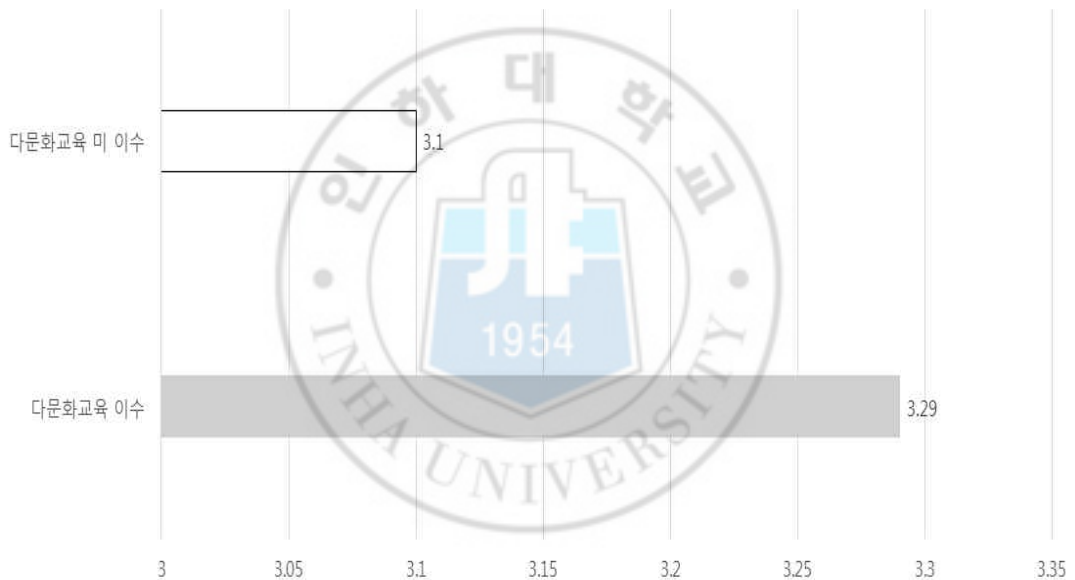


[그림 IV-49] 다문화 프로그램 진행 여부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태도) 차이

이와 같이 다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문화 프로그램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보다 다문화 효능감(태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다문화 프로그램 진행 여부는 다문화 효능감(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④ 다문화 교육 이수 여부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교육 이수 여부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태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 교육을 이수한 집단의 평균은 3.29점으로 다문화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집단의 평균 3.10점에 비해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차이에 대한 t 점수는 2.702점으로 그 차이 역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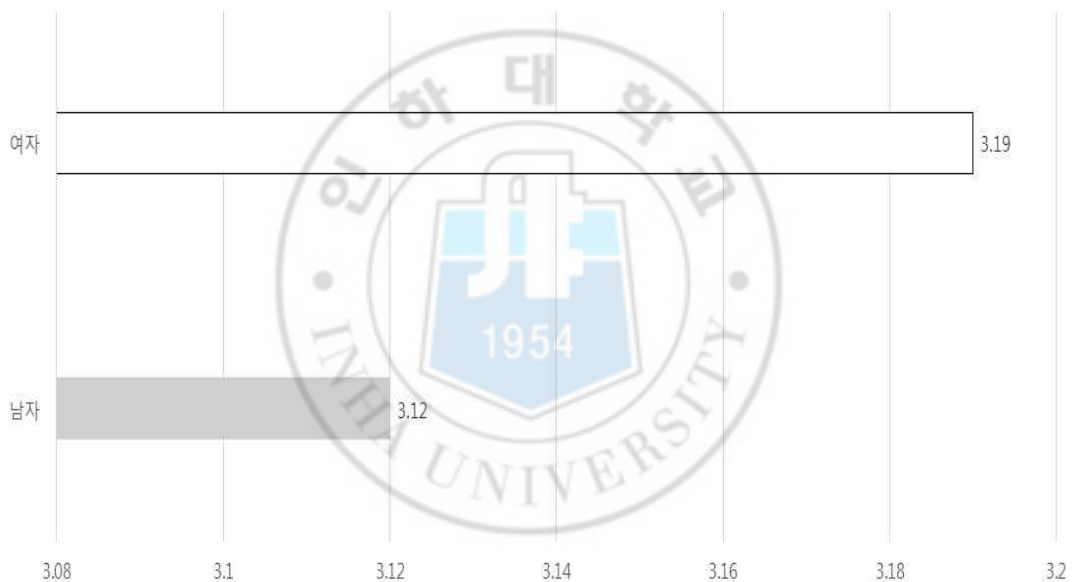


[그림 IV-50] 다문화 교육 이수 여부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태도) 차이

이와 같이 다문화 교육 기 이수자가 다문화 교육 미 이수자보다 다문화 효능감(태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다문화 교육 이수 여부는 다문화 효능감(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⑤ 성별

예비목회자의 성별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여자의 평균은 3.19점으로 남자의 평균 3.12점에 비해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에 대한 t 점수는 1.164점으로 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성별이 다문화 효능감에 약간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지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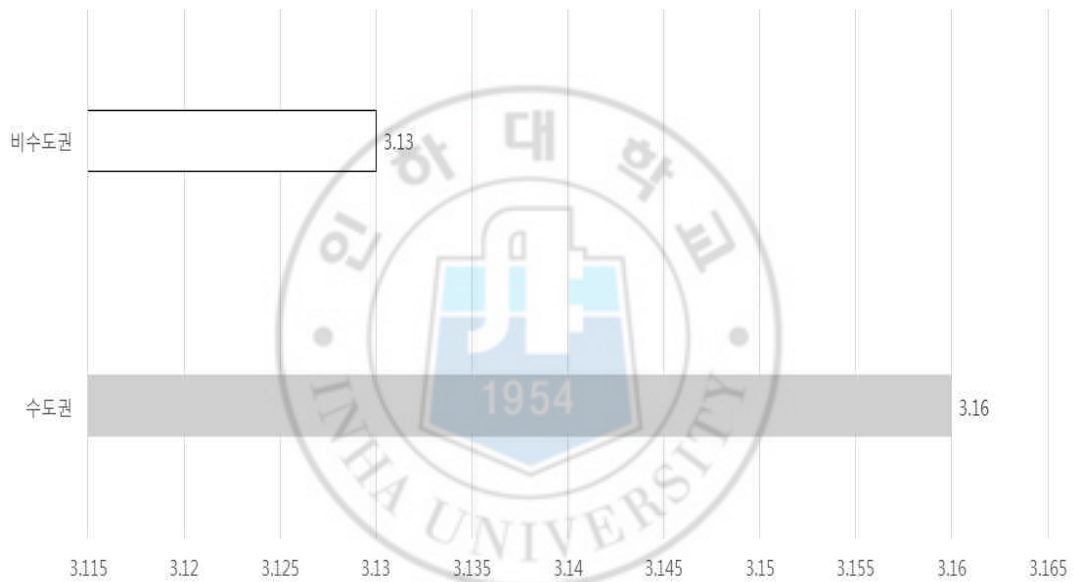


[그림 IV-51] 성별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태도) 차이

이와 같이 여자의 다문화 효능감(태도)은 남자의 다문화 효능감(태도)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성별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태도)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⑥ 활동 지역

예비목회자의 활동 지역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 차이를 살펴본 결과, 수도권 집단의 평균은 3.16점으로 비수도권 집단의 평균 3.13점에 비해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에 대한 t 점수는 .585점으로 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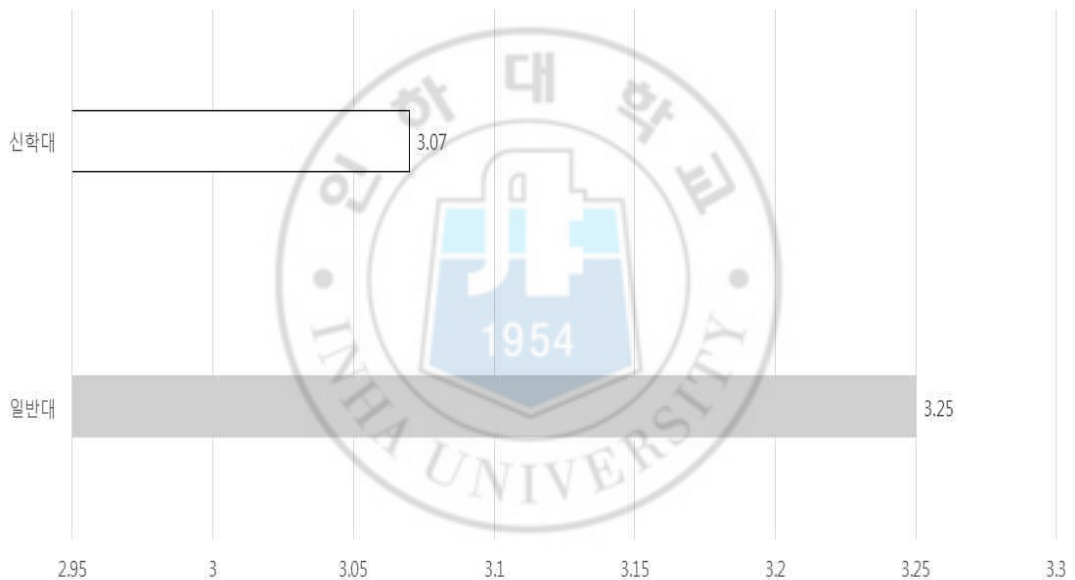


[그림 IV-52] 활동 지역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태도) 차이

이와 같이 수도권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비목회자들의 다문화 효능감(태도)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비목회자들의 다문화 효능감(태도)보다 높게 나타났다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활동 지역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태도)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⑦ 학부 출신

예비목회자의 학부 출신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일반대학을 졸업한 집단의 평균은 3.25점으로 신학대학을 졸업한 집단의 평균 3.07점에 비해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차이에 대한 t 점수는 2.791점으로 그 차이 역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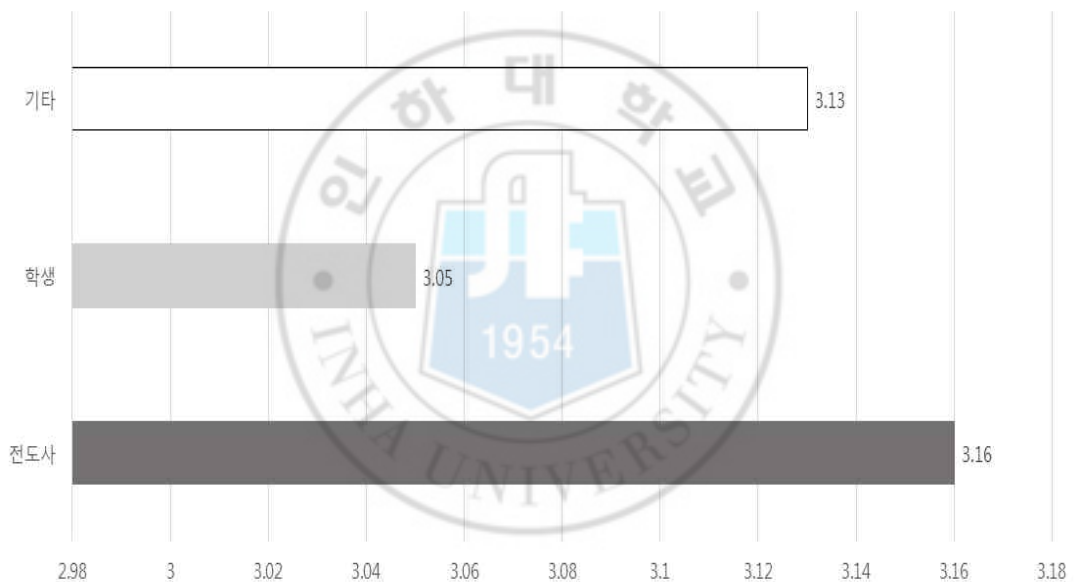


[그림 IV-53] 학부 출신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태도) 차이

이와 같이 다문화 효능감(태도)은 일반대학교 출신이 신학대학교 출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학부 출신이 다문화 효능감(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⑧ 직업

예비목회자의 직업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도사 집단의 평균이 3.1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타 집단의 평균이 3.13점으로 그 다음이었으며, 학생 집단의 평균이 3.0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집단 간 차이에 대한 F점수는 1.052점으로 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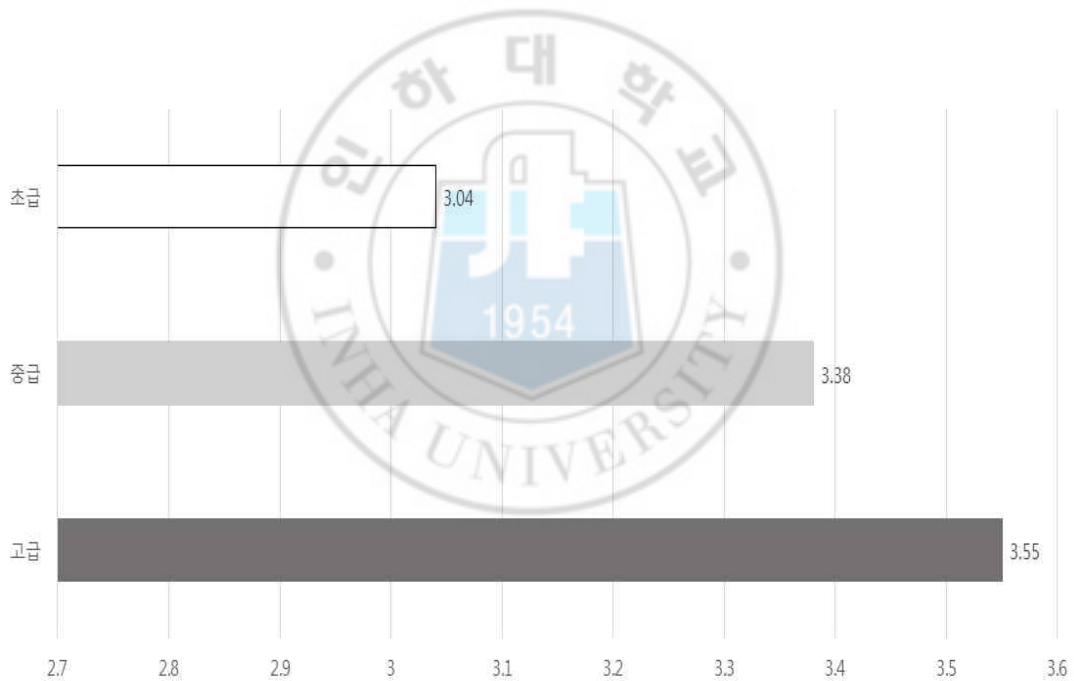


[그림 IV-54] 직업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태도) 차이

이와 같이 다문화 효능감(태도)은 기타가 가장 높고, 전도사가 다음으로 높으며, 학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아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직업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태도)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⑨ 외국어 능력

예비목회자의 외국어 능력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 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고급 집단의 평균이 3.5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급 집단의 평균이 3.38점으로 그 다음이었으며, 초급 집단의 평균이 3.0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집단 간 차이에 대한 F점수는 15.961점으로 그 차이는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이에 Scheffe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다문화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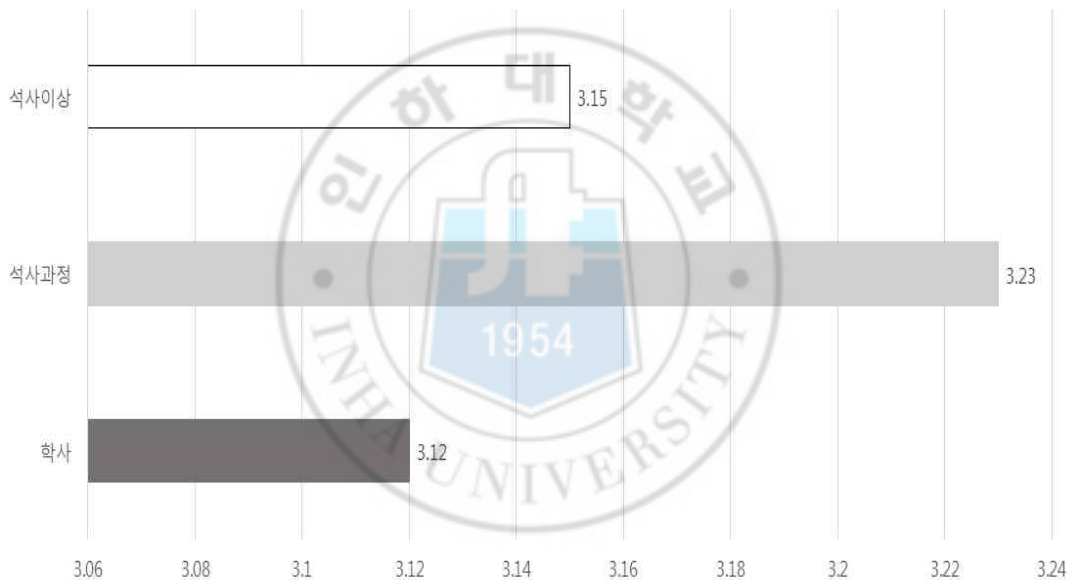


[그림 IV-55] 외국어 능력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태도) 차이

이와 같이 다문화 효능감(태도)는 고급 집단이 가장 높고, 중급 집단이 그 다음으로, 초급 집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효능감(태도)이 외국어 능력에 따라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⑩ 최종 학위

예비목회자의 최종 학위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석사과정의 평균이 3.2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석사이상의 평균이 3.15점으로 그 다음이었으며, 학사의 평균이 3.1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집단 간 차이에 대한 F점수는 .583점으로 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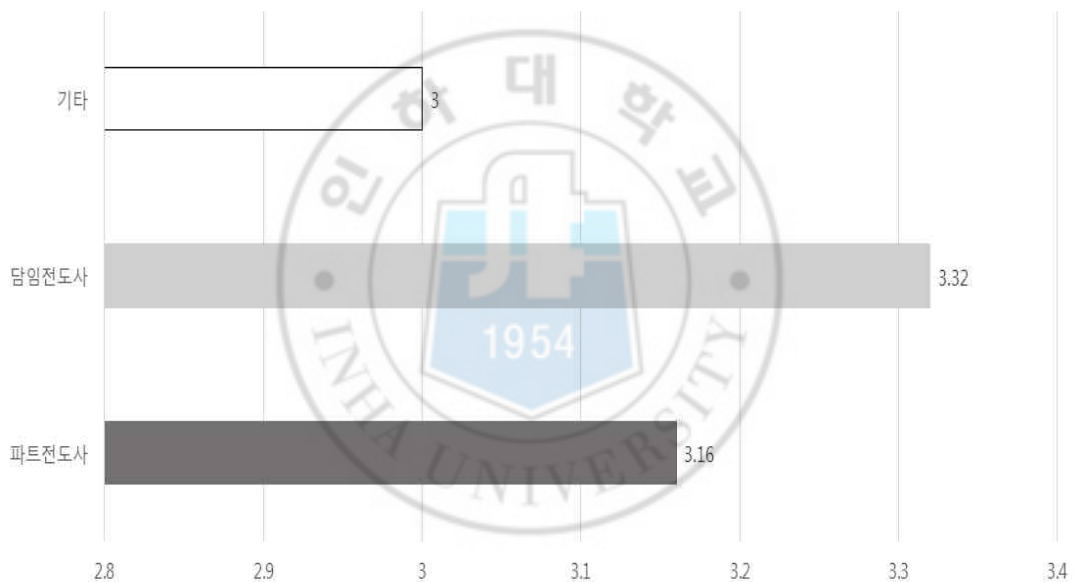


[그림 IV-56] 최종 학위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태도) 차이

이와 같이 다문화 효능감(태도)은 석사이상 집단이 가장 높았고, 석사과정 집단이 그 다음으로, 학사 집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최종 학위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태도)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⑪ 직책

예비목회자의 직책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담임전도사의 평균이 3.3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파트전도사의 평균이 3.16점으로 그 다음이었으며, 기타의 평균이 3.0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집단 간 차이에 대한 F점수는 2.400점으로 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57] 직책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태도) 차이

이와 같이 다문화 효능감(태도)는 담임전도사 집단이 가장 높았고, 파트전도사 집단이 그 다음으로, 기타 집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직책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태도)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6) 태도 영역의 연속형 변인별 다문화 효능감 차이

태도 영역의 연속형 변인별 다문화 효능감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IV-17>과 같다.

다문화인식에 대한 회귀분석과 마찬가지로 분석을 실시하기 전 자기상관을 파악하기 위해 Durblin-Watson 지수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Durblin-Watson 지수는 1.889로 나타났으며, 이는 독립성 기준인 $1.8 < d < 2.2$ 를 만족하므로 다문화 효능감 역시 표본의 독립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VIF(분산 팽창요인) 지수를 확인한 결과, ‘연령’과 ‘해외 체류기간’ 모두 10 이하의 수치가 나타나 다중공선성 역시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다문화 효능감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 역시 회귀분석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회귀분석 결과, ‘연령’의 기울기는 .079로, 연령이 1 증가할 때 마다 다문화 효능감은 .079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 체류기간’의 기울기는 .104로 해외 체류기간이 1 증가할 때마다 다문화 효능감은 .104 증가하며,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적합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Kolmogorov-Smirnov’s $p = .094$ 가 나타났고, Breusch-Pagan’s $p = .081$ 이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 활용된 회귀모형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표 IV-17> 태도 영역의 변인별 다문화 효능감 차이(regression)

구분	비표준화 계수(B)	표준 편차	표준화계수 ()	t값	유의 확률	VIF
상수	2.697	.079		34.014	.000***	
연령	.079	.028	.122	2.792	.005**	1.014
해외 체류기간	.104	.019	.245	5.612	.000***	1.014

Durblin-Watson = 1.889 , Breusch-Pagan’s $p = .081$, Kolmogorov-Smirnov’s $p = .094$

4) 소결

이 연구에서는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효능감을 살펴 보았으며, 각 변인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수준은 3.67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중간 이상의 값으로써, 목회자를 대상으로 다문화인식을 조사한 선행 연구와 비교했을 때 약간 낮은 수치이지만, 다른 집단을 대상으로 다문화인식을 조사한 선행 연구와는 비슷한 수치이다.

둘째, 변인별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 교육과정 존재 여부’, ‘다문화 프로그램 진행 여부’, ‘성별’, ‘최종 학위’, ‘연령’에 따라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즉, 현재 재학 중인 신학대학원에 다문화 관련 교육과정이 존재하는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높은 인식 수준을 보였고, 다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해 본 집단이 진행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높은 인식 수준을 나타냈다. 또한 남자에 비해 여자의 인식 수준이 높았고, 학사와 석사과정 집단에 비해 석사이상 집단의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에 .092만큼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예비목회자의 연령이 1 증가할 때 마다 다문화인식은 .092만큼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셋째,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은 2.9점으로 보통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교사 대상의 국내 선행 연구 결과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넷째, 변인별 다문화 효능감 차이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 프로그램 진행 여부’, ‘다문화 교육 이수 여부’, ‘학부 출신’, ‘외국어 능력’, ‘연령’, ‘해외 체류기간’에 따라 다문화 효능감은 차이가 나타났다. 즉, 다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해본 집단이 다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해보지 못한 집단에 비해 높은 다문화 효능감을 보였고, 다문화 교육을 이수한 집단이 다문화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집단에 비

해 높은 다문화 효능감을 나타냈다. 또한 일반대학교를 졸업한 집단이 신학대학교를 졸업한 집단에 비해 높은 수치가 나타났으며, 외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높은 다문화 효능감을 보였다. 연령은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에 .06만큼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외 체류기간은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에 .12만큼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예비목회자의 연령이 1 증가할 때마다 다문화 효능감은 .06 증가하고, 예비목회자의 해외 체류기간이 1 증가할 때마다 다문화 효능감은 .12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하위영역별 다문화 효능감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지식 영역에서는 ‘다문화 프로그램 진행 여부’, ‘다문화 교육 이수 여부’, ‘학부 출신’, ‘외국어 능력’, ‘해외 체류기간’에 따라 다문화 효능감의 차이가, 기술 영역에서는 ‘다문화 프로그램 진행 여부’, ‘다문화 교육 이수 여부’, ‘학부 출신’, ‘외국어 능력’, ‘해외 체류기간’에 따라 다문화 효능감의 차이가, 태도 영역에서는 ‘다문화 프로그램 진행 여부’, ‘다문화 교육 이수 여부’, ‘학부 출신’, ‘외국어 능력’, ‘연령’, ‘해외 체류기간’에 따라 다문화 효능감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 절에서는 개신교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 실태와 변인에 따른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및 다문화 효능감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양적 연구의 결과에서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수준과 다문화 효능감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 즉, 앞서 제시한 선행 연구들과는 다르게 개신교 예비목회자는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보통 이상이었지만, 다문화 효능감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효능감 차이를 비롯한 양적 연구에서 유의미하게 도출한 결과를 토대로 7인의 전문가와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개신교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 증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다.

4.2. 질적 연구 결과

이 절에서는 앞서 1절에서 도출된 주요 연구 결과를 해석하고 개신교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 증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절의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가는 개신교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 실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둘째, 전문가는 개신교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효능감 변인별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셋째, 전문가는 개신교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교육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넷째, 개신교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의 증진 방안은 무엇인가?

위와 같은 연구 내용을 다루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섭외하여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때 면담에 참여한 전문가는 <표 III-2>에 제시한 바와 같이 다문화학 전공 교수와 기독교 교육학 전공 교수, 성서신학 전공 교수, 언어문화전공 교수, 다문화 연구소 소장, 다문화 목회자, 현장 실천가, 다문화 관련 논문과 교재 저자, 단체장 등 7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심층 면담은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또한 면담은 구조화된 질문지와 비구조화된 질문을 함께 사용하였으며, 이 가운데 중요한 내용을 발췌하여 코딩하였다.

1)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 실태

(1)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수준

개신교 예비목회자의 인식이 보통 이상을 나타낸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가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으며, 그 이유로 ‘신앙은 연민과 관련이 있음’, ‘사람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 ‘신앙인은 기본적으로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제시하였다.

“신앙은 사람에게 대한 연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비목회자들이 이주인과 함께 살아간다는 다문화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반인 보다는 높을 것이라고 보입니다.”(전문가 A)

“목회자의 경우 교인들에 대한 관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교회로 전도하는 것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향후 목회를 할 예비목회자 역시 타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 것이며, 최근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자연스럽게 다문화에 대한 인식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전문가 B)

“신앙을 가진 분들은 기본적으로 약자나 소외된 계층에 대해 마음이 열려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주민인 우리들에 비해 비교적 사회적으로 약자인 다문화인에게도 열린 마음을 갖고 있을 것이며 그렇다는 것은 다문화에 대한 인식 수준도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전문가 C)

이처럼 대부분의 전문가는 예비목회자의 다문화인식이 높을 것이라 예상하였으며, 이는 양적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하지만 반대로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인식이 낮을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다문화인식은 외국인, 이주민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나와 다른 존재에 대한 존중감,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스킬, 감수성, 민감성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현재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예비목회자들을 보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험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전문가 F)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예비목회자의 경험 부족이다. 즉, 예비목회자의 경우 타인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경험, 타인의 특별한 상황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경험, 다문화적 환경에 노출되는 경험 등 다양한 경험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몇몇 연구자들이 신학대학원의 이론중심적인 교육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정일웅, 2006; 김상구, 이성진, 2016). 또한 2004년 신학교육개선공동연구협의회에서는 “지금의 신학교육은 지나치게 이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예비목회자의 목회 역량 증진이라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황재동, 2018).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예비목회자의 다문화인식이 긍정적인 수준임을 확인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적 경험과 다문화인식에 대한 다양한 담론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에 대한 전문가들의 답변 내용을 분석한 결과, 7명 중 4명의 전문가들이 ‘교육의 부재’, ‘경험 부족’, ‘집단 문화’ 등을 이유로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이 낮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일단 유효한 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효능감이 높아질 터인데, 작년에 강의를 했던 경험에 비추어보면 특별히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전문가 D)

“우선 다문화 효능감이 높아지려면 다문화와 관련된 경험이 많아야 하는데, 신학대학원생들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험보다는 간접적인 경험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효능감은 낮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전문가 F)

이처럼 대부분의 전문가는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봤을 때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이 낮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전문가 C는 예비목회자들이 신학대학원에서 배운 이론과 지식을 교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교회 운영 시스템 상으로 이 부분이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전문가 F는 신학대학원 내에 존재하는 집단 문화가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 형성을 방해한다고 말하였다.

“조금 안타까운 것이 지금 신학대학원생들의 경우 대부분 교회에서 전도사와 같은 사역자로 일하고 있는데, 워낙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교회현장에서 써먹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상황이 그렇다보니 아무래도 교회 내에 다문화 교육에 대한 필요가 있더라도 본인이 주도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죠.”(전문가 C)

“효능감이 없죠, 되게 낮죠. 왜냐하면 또래집단, 끼리끼리 문화, 동질성 추구 문화 이런 것이 있어서 몇 기야, 고향이 어디야, 나라가 어디야, 성별이 뭐야 이런 식으로 동질 집단을 형성하려고 해요. 이는 권력 집단화와 똑같은 말이 거든요? 집단화는 친밀감이라는 낭만적 표현 뒤에 권력적인 욕구가 숨어있는 것이죠. 친밀함은 좋은 것이지만 그 뒤에 있는 욕구들에 대한 자기인식에 신대원생들이 아무래도 좀 취약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효능감이 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전문가 F)

김영순(2015)의 연구에서는 인간은 몇 가지 부분에서 서로 동질성을 공유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동일하지 않은 존재임을 강조하며, 개인의 유사함을 토대로

동종의 집단을 창출하여 다양성을 대체하려는 것은 비현실적인 시도임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신학대학원 내에 존재하는 집단문화는 다문화사회로의 진입과 예비목회자의 다문화적 역량 증진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 다문화 효능감 실태에서 도출된 변인별 차이

(1) 변인별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

전문가를 대상으로 예비목회자의 다문화인식이 변인별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조사하였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다문화 교육과정 존재 여부

다문화 교육과정 존재 여부에 따라 예비목회자의 다문화인식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 B와 전문가 C는 교육을 통한 패러다임의 전환, 호감도의 상승 등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 교육과정의 개설과 함께 실제 교육을 수행하는 교수자의 역량 역시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다문화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관심도가 다른 사람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음식도 본인이 먹어봤던 음식에 더 호감이 발생하는 것처럼 교육과정을 통해 다문화 교육을 수강했던 학생은 아무래도 선호도나 호감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생각이나 패러다임의 전환도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다문화 교육과정 존재 여부는 당연히 다문화인식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전문가 B)

전문가 B는 다문화 교육을 실시할 경우, 선호도나 호감이 높아질 것이며, 이를 통해 패러다임이 긍정적인 측면으로 변화될 경우, 다문화인식 역시 긍정적으로 형성될 것이라 예상하였다. 한편 다문화인식에는 교육과정 그 자체뿐만 아니라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교수자의 역량도 중요함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예컨대 전문가 C는 그저 과목의 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가르치는 교수자의 역량도 매우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커리큘럼 안에서 다문화와 관련된 과목의 개설 여부는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인식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저 과목만 개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가르치는 교수자의 역량도 매우 중요하겠지요.”(전문가 C)

이처럼 다문화 교육과정 존재 여부는 예비목회자의 다문화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상수 외(2012)에 의하면, 다문화 교육을 받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다문화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예비목회자의 긍정적인 다문화인식 함양을 위해서는 신학대학원의 다문화 교육과정 개설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② 다문화 프로그램 진행 여부

다문화 프로그램 진행 여부가 다문화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전문가 A만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이유로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우선은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교육 방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걸 통해 향후 사역의 방향성을 구축할 수 있는 ... 스스로 깨우치고 생각할 수 있는 현장을 만나 현장이 자신의 사역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다문화인식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전문가 A)

다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해 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다양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이주민의 어려움을 직접 들어보거나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험은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이어질 것이며, 이로 인해 다문화인식이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③ 성별

성별에 따른 다문화인식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가를 묻는 질문에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여성과 남성의 성격(Character) 차이와 시대적 변화를 이유로 제시하며, 다문화인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대체로 남성들은 경쟁하고 비교하고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여성들은 협력하고 유대하려는 훈련이나 연습들이 잘 되어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연대하고 협력하는 연민의 마음이 다문화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요?”(전문가 A)

“경험상 남자들은 주로 일 중심의 사고를 많이 하고 여자들은 관계 중심의 사고를 많이 한다. 그리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남성의 경우 선호도가 분명하지만 여성의 경우 조화를 중요시한다. ... 사실은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생활 모습들이 있다.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여성이 포용성과 조화에 대해 많은 학습이 되었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다문화에 대해 좀 더 수용적일 것이라 생각한다.”(전문가 B)

“예전에는 주로 남성 목회자들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남성 신대원생들이 많았다면 요즘은 여성들의 발언권이 높아지고, 여성에게 안수도 허용되는 등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약자를 아우를 수 있는 감성은 여성이 좀 더 발달되어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페미니즘을 여성을 위한 운동이라고 오해하는데 페미니즘

은 기본적으로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운동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선주민에 비해 약자와 소수자의 입장에 있는 이주민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전문가 C)

“아무래도 여자들이 감수성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미투 운동⁹⁾만 보더라도 지금까지 여성이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 혹은 약자의 입장에 위치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소수자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을 것 같다.”(전문가 F)

대부분의 전문가는 여성들이 그동안 소수자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소수 집단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전문가 C는 최근 신학대학원에서도 여성의 발언권이 높아지고 안수가 허용되는 등 사회적인 변화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가장 심한 곳 중 하나가 바로 종교계이다. 비록 최근 여성 목회자에게 안수를 허용하는 교단이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특정 교단에서는 여성 전도사로 하여금 목사가 안 된다는 서약을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김성영, 2014).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여성 예비목회자들은 직·간접적으로 차별을 경험하였을 것이며, 이에 평등함을 강조하는 다문화적 가치관과 인식이 남성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편견과 차별은 다문화 교육이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영역이다. 왜냐하면 다문화 교육은 민주주의적 관점에서의 평등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임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예비목회자의 다문화적 가치관과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신학대학원에서는 이를 위한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9) 운동은 2006년 미국의 여성 운동가인 타라나 버크에 의해 시작되었다. 타라나 버크는 미국에서 가장 약자인 소수인종의 여성과 아동들이 당했던 차별이나 피해 사실을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도록 독려하고 피해자들끼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여 조금씩 사회를 바꾸고자 노력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문화계 성추행 폭로와 2018년 검찰청 내부의 성추행 폭로로 미투 운동이 확산되었다.

④ 최종 학위

최종 학위에 따른 다문화인식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교육적 경험’과 ‘사회의 필요성’을 이유로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작년에 제 수업을 들은 한 학생이 생각나는데요, 그 학생은 수업 초반 다문화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수업을 듣고 나서는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형성되었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학력이 높다는 것은 교육적 경험이 많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따라서 교육에 노출된 정도가 어떠한가에 따라 다문화인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전문가 A)

전문가 A는 학력을 교육적 경험으로 해석하였다. 즉, 학력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적 경험이 많다는 의미이며, 교육에 노출된 정도가 증가할수록 다문화 인식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성영(2014)의 연구에서는 학력에 따라 다문화 교육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다양한 학문적 지식’, ‘인적 교류’, ‘다문화인들에 대한 지식’ 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즉, 상위 수준의 학위 과정을 이수하며 얻게 되는 다양한 학문적 지식과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지적인 성취로 인해 인식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 결과 역시 비슷한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전문가 F는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의 필요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무래도 고학력자들이 사회의 필요성을 민감하게 인식하겠죠. 사회 구조의 변화라든지 이것이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전문가 F)

한 개인의 학력은 자신의 진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임금의 차이도 발생시키며,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의 학업 성취와 진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최강식, 1997; 남기곤, 2008). 이처럼 우리나라 사회에서 학력은 다양한 영역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전문가 A의 주장처럼 학력의 증가는 곧 교육적 경험의 증가를 의미하며, 이러한 교육적 경험의 증가는 인식의 확장을 야기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위 학교로의 진학을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교육적 경험 측면을 강조하여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시 말해서, 예비목회자의 다문화인식 확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⑤ 연령

연령에 따른 다문화인식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전문가 B, 전문가 C, 전문가 D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그 이유로 ‘포용성’, ‘누적 경험’, ‘고용 불안과 수용성’ 등을 주장하였다.

“젊을 때는 선호도가 분명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긴다. 아무래도 다문화에 대한 적응도는 젊은 사람들이 빠를 것이며, 다문화에 대해 굉장히 개방적일 것이다. 하지만 포용성과 개방성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한다.”(전문가 B)

“젊은 층은 아무래도 고용의 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청년 실업률이 계속해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민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침해하고 있고, 또 세금 분배 문제 등이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면서 젊은 이들은 아무래도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반대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어려운 과거를 보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려운 사람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전문가 D)

전문가 B는 젊은 사람들이 나이든 사람에 비해 적응도나 개방성은 높을 수 있지만, 이는 포용성과는 다른 개념이라 말하였다. 즉, 다문화에 대한 개방성은 젊은 사람들이 높을 수 있지만 개방성이 높다고 해서 그것들을 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젊은이들이 다문화에 대한 개방성은 가지고 있지만 이것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 D는 그 원인으로 고용불안과 마스크를 제시하였다. 즉, 최근 청년실업률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주민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SNS나 마스크 등을 통해 이주민들에 대한 부정적 뉴스가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예비목회자들의 다문화인식이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전문가 C는 반드시 연령이 경험과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경험이 많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다문화인식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저는 연령보다는 각자가 다문화적 현상을 경험한 횟수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20, 30대라 하더라도 외국인 유학생을 많이 접해봤거나 봉사활동을 많이 했으면 다문화인식이 높을 것이며, 반대로 40대, 50대라 하더라도 자신만의 틀 안에 갇혀 있으면 다문화인식이 낮을 것이라 생각해요. 하지만 어찌되었든 평균적으로 볼 때 나이가 많을수록 경험을 많이 해봤을 확률이 높죠.”(전문가 C)

이처럼 예비목회자의 연령이 낮을 때 다문화인식 수준도 낮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목회자 양성기관인 신학대학원에서는 향후 수강자의 연령을 고려한 차별화된 다문화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2) 변인별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 차이

전문가를 대상으로 개신교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이 변인별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조사하였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다문화 교육 이수 여부

다문화 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다문화 효능감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콘텐츠의 접촉 여부’, ‘타자에 대한 인식 여부’ 등의 이유로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저는 다문화 교육 이수 여부가 다문화 효능감에 필수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다문화에 대한 콘텐츠를 접해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효능감이 높을 것이라 예상됩니다.”(전문가 D)

“내 가족 중에 이주민이 있느냐 없느냐, 내 교회에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내가 타자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떤 존재라는 인식이 들고 그것을 인간 중심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가 효능감인데 아무래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효능감이 발달되지 않겠죠. 여기서 발달 된다는 것은 교육에 의한 건데 교육이 되지 않았으면 당연히 효능감으로 이어지지 않겠죠.”(전문가 E)

다문화인식과 마찬가지로 다문화 효능감 역시 교육에 의해 계발될 수 있다. 즉, 다문화와 관련된 교육적 경험이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문가 E는 타문화 사람을 만났을 때 자신의 생각을 인간 중심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다문화 효능감이라 정의하며, 다문화 효능감은 경험에 의해 발달하고, 발달은 곧 교육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염미경(2012)의 연구에 의하면, 다문화 교육을 이수한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다문화 교육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즉, 다문화 교육을 이수한 학생은 다문화 교육에 대해 높은 인식수준을 보였다. 다문화 인식과 다문화 효능감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다수의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다문화 교육 이수 여부 역시 다문화 효능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② 학부 출신

학부 출신에 따라 다문화 효능감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학업 능력’, ‘소명의식’, ‘사고의 폭’ 등을 이유로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요즘 신학교에 오는 사람들의 학업능력이 일반대학에 비해 조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또한 일반대학에서는 교양과목으로 다문화 교육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전문가 A)

“아무래도 일반대학 전공을 살리지 않고 신학대학원에 진학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이나 소명의식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전문가 C)

“저도 일반대 출신인데 ... 신학대와 일반대는 세계가 다릅니다. 일반대에서는 무신론자도 만나고 학문도 신학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을 배울 수 있는데, 신학대에서는 교회에서 살고 교회에서 길러지기 때문에 교회 중심으로 사고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사고의 폭이 좁은 신학대학원생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전문가 D)

전문가 A는 일반대학교 학생들과 신학대학교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비교하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였고, 전문가 C는 일반대학교 출신자들의 확고한 소명의식이 차이를 발생시켰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전문가 D는 일반대학교의 경험에 비추어 신학대학교에 비해 일반대학교가 좀 더 다양한 관점의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시하며, 다문화 효능감의 차이 역시 이 부분에 기인한 것이라 예상하였다.

③ 외국어 능력

외국어 능력에 따라 다문화 효능감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융합적 사고’와 ‘문화적 언어’ 등을 이유로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융합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은 언어, 이중 언어 환경에서 훨씬 잘 드러납니다. 언어라는 것은 그 사회의 가치관과 관습 등이 다 반영되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언어를 한다는 것은 두 세계를 사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전문가 D)

“언어는 문화거든요? 문화적인 이해가 없이는 언어를 구사할 수 없기 때문에 경험의 폭에 있어 언어를 잘 하는 사람이 기본조건은 된다고 봐요. 언어를 잘한다고 효능감이 높다고 확정지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효능감이 높을 확률은 높다는 거죠.”(전문가 E)

두 전문가의 주장처럼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의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타인에 비해 특정 언어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것은 해당 집단의 문화를 좀 더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언어능력이 높을 경우, 이주민들과의 활발한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다문화 효능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④ 연령

연령에 따라 다문화 효능감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전문가 D만이 ‘다양한 정체성을 만나본 경험’ 등을 이유로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보통 나이가 많을수록 인생의 성찰 정도나 성숙도가 다르잖아요,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보는 관점이 넓어지고 수용성도 넓어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체성을 만나봤을 확률이 높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 다문화 효능감도 높을 것이라 예상됩니다.”(전문가 D)

다문화인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령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의 차이 역시 경험의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 E는 이러한 해석을 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즉, 나이는 우리사회의 보수성을 드러내는 요소일 뿐 나이가 문화적 민감성에 대한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이에 대한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저는 나이의 편견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20대에도 여행이나 공부를 남들에 비해 높은 효능감을 가질 수 있고 반대로 50대라도 남들에 비해 여행도 안가고 그랬다면 효능감이 낮을 수 있는 거죠. 저는 나이를 일반화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해요. 나이는 우리사회의 보수성을 드러내는 거죠. 따라서 연령이 문화적 민감성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전문가 E)

본 연구에서는 예비목회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다문화 효능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목회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다문화 교육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김성영(2014)의 연구결과와 비교했을 때 배치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인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 증진을 위해서는 예비목회자의 연령을 고려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⑤ 해외 체류기간

해외 체류기간에 따른 다문화 효능감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경험의 반영’, ‘사고의 전환’ 등을 이유로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낯선 세계에 이주민으로 살아보던 자신의 경험이 반영되어 삶에서 확장되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전문가 A)

“본인이 이주민으로 살아가면서 분명히 직간접적으로 차별이나 편견 등을 경험해 봤을 겁니다. 따라서 모국에 돌아와서는 이전과는 다른 사고를 갖고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이주민들을 이해할 수 있고 이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전문가 C)

“이민자로 살아본 사람과 선주민으로만 살아본 사람은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효능감의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전문가 D)

대부분의 전문가는 이주민으로서의 경험이 다문화 효능감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즉, 이주민으로서 당했던 차별이나 편견 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주민들을 좀 더 호의적으로 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현재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다문화 효능감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된다. Garmon(2000)이 제시한 다섯 가지의 다문화 감수성 발달 요인은 ‘개방성’, ‘자기 인식’, ‘문화적 경험’, ‘교육 경험’, ‘집단 경험 지지’이다(김영순, 2015 재인용). 이 가운데 ‘교육 경험’ 단계는 다른 문화에서의 경험을 학습하는 단계이며, 이를 통해 ‘집단 경험 지지’ 단계에 이르러 타

문화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지지하게 된다. 이처럼 타문화에 대한 직접적인 학습과 경험은 타문화를 지지하는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다.

3) 인식과 효능감의 차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다문화인식은 다문화 효능감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조윤주, 2010; 권미은, 권미지, 이미아, 2012; 김남희, 임선영, 2014; 이기용, 박창언, 2014; 장익준, 이기용, 2014). 하지만 이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개신교 예비목회자는 보통보다 높은 수준의 인식 수준을 보였지만, 다문화 효능감은 보통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먼저 경험의 차이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인식과 효능감 수준의 차이는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의 차이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는 방송과 언론을 통해 다문화사회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매체를 통해서 많은 간접 경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곧바로 다문화 효능감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간접 경험만으로는 다문화사회에 대처하는 실질적인 능력이 배양되지 않습니다. 이주민들을 직접 만나고 다문화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쌓일 때 자연스럽게 다문화 효능감 수준이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건은 신학대학원생들이 다문화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전문가 D)

전문가 D는 신학대학원생들의 다문화적 경험이 직접적이냐 아니면 간접적이냐에 따라 다문화인식과 다문화 효능감 수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즉, 언론이나 방송을 통한 간접적 다문화 경험은 신학대학원생의 긍정적인 다문화인식 함양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다문화 효능감 증진을 위해서는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문

가 D는 개신교 예비목회자에게 이주민들을 직접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경험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문화인식이 높다는 것은 신학생으로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사람(사회적 약자 포함)에 대한 인식과 연결됩니다. 하지만, 다문화 효능감, 즉 다문화적 상황에 시기적절하게 대처하고 시도하는 문제에 대해 낮게 나온 결과는 수동적인 교육과 관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신앙이 개인적인 신앙에 머물 경우,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기보다는 자신의 삶, 사역과 크게 관련 없는 일에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신학대학원생들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이미 지쳐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신학대학원생 개개인의 상황과 감정을 살펴보는 것이 우선 필요할 것 같습니다.”(전문가 A)

다문화인식과 다문화 효능감의 차이는 수동적 교육과도 연결될 수 있다.

전문가 A는 신학대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수동적 교육이 다문화인식과 다문화 효능감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신학대학원생들의 경우, 예비목회자로서, 또는 신앙인으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을 갖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신학대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수동적인 교육이 신학대학원생들로 하여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자세보다는 본인의 사역과 본인의 신앙에 안주하게 만드는 원인일 수 있다. 임마누엘 칸트는 ‘환대의 윤리’를 강조하며 주체에 의해 베풀어지는 이방인에 대한 환대가 기독교적 윤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주장하였다(이한구, 1992). 즉, 레비나스의 타자 중심 윤리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타인이 나에게 간청하며 도움을 호소할 때, 이를 외면할 수 없음이 바로 책임이 되고 윤리가 되며, 이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양명수, 2011). 하지만 이와 같은 윤리적 호소는 우리에게 행복보다는 부담과 고통을 가져다준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자유를 내려놓고 우리의 것을 포기하며 그 이방인을 환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8장과 19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

기를 통해 성경에 나타난 환대의 실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았던 경험을 떠올리며 이방 나그네들을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으며(출 22장 21절, 23장 9절), 신명기 10장 18-19절 역시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신학대학원생들은 좀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신학대학원의 교육이 수동적인 관점이 아닌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점에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는 전문가 B의 의견에서 잘 나타나 있다.

“다문화인식과 다문화 효능감은 일반적으로 서로 관련이 깊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문화인식은 여론이나 매체를 통해 많이 좌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문화 효능감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많이 좌우됩니다. 예를 들어, 예비교사, 교사 등등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계층은 다문화 효능감과 다문화인식이 깊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이 다문화인식보다 낮게 나온 것은 커리큘럼이나 실제 목회현장에서 경험이 아주 없거나 목회현장에서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학대학생, 신대원생일 때 교육경험이 별로 없을 경우에는 다문화 효능감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이해, 체험 중심 다문화 교육, 봉사 활동 등의 교육경험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전문가 B)

전문가 B는 앞서 전문가 D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다문화인식은 여론이나 매체에 좌우될 수 있지만 다문화 효능감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형성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신학대학원생들의 부족한 교육경험이 다문화인식과 다문화 효능감의 차이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전문가 B는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체험 중심의 다문화 교육과 봉사 활동 중심의 교육경험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문화인식과 다문화 효능감이 높은 상관관계를 나

타낸다는 선행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신학대학원생들의 경우, 그 반대의 결과를 나타낸 점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첫째, 신학대학원생들의 경험이 직접적이냐 아니면 간접적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 둘째, 신학대학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수동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신학대학원생들의 다문화적 교육경험이 부재하다. 이처럼 신학대학원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 교육은 신학대학원생들의 다문화 효능감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에 다음 절에서는 개신교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 증진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4)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 증진 방안

이 절에서는 개신교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 증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전문가 면담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개신교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 증진을 위해 ‘교육과정 개편’,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 경험’, ‘긍정적 네트워킹을 통한 소명의식 함양’, ‘외적인 환경변화’와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 개편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사회는 곧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예비목회자들의 목회관의 변화를 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개신교 예비목회자들은 적절한 교육을 통해 다문화 효능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연구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학대학원 홈페이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과정에서는 다문화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과목은 전무하였다. 전문가 D 역시 현재의 신학대학원 교육에서는 다문화 교육이 매우 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현재 대다수의 목회자 양성기관에서 다문화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 과목을 배워야 하는 상황에서 피하기 어려운 커리큘럼상의 한계이기도 하고,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 저조한 탓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 중 다문화 관련 내용을 배울 수 있는 과목은 ‘문화와 현대 한국사회’나 ‘선교와 사회변동’ 정도입니다. 이 또한 다문화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신학대학원에서는 다문화를 적시하여 다문화사회와 현상을 배울 수 있는 과목을 찾기가 힘듭니다. 이에 앞으로 다문화와 관련된 과목의 개발과 개설이 시급하다고 여겨집니다.”(전문가 D)

다문화사회에 진입하는 현 시점에서 다문화 교육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다문화 교육이 직접적인 형태가 아니라 간접적인 형태로 진행된다면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 교육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대학원 내에 다문화 교육과 관련된 과목이 부재한 이유 그리고 관련 교육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전문가 A와 전문가 B는 학교 관계자의 인식 부족, 전문가의 부재, 학습 부담 등을 제시하였다.

“그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관계자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과 강의의 필요성을 안다고 해도 한국사회의 특성을 살려 다문화 관련 내용을 신학화한 이론과 교육전문가의 부재, 짧은 신학대학원 기간 중 수학해야 할 신학 전반의 내용이 이미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전문가 A)

“신학대학원에서 아직까지는 다문화 교육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신학대학에서조차 커리큘럼에 다문화 교육이나 다문화 교육 관련 과목에 개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문화 교육과 관련된 강의를 담당할 교수조차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고, 신학만 가르치고 있는 신학대학교에서 다문화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전문가 B)

이처럼 개신교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 증진을 위해서는 적절한 다문화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신학대학원의 교육과정 개편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다문화와 관련된 이론교육을 통해 지식적 이해를 돕고, 체험 학습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다문화 교육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체계화된 교육과정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내면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 내면화라 하는 것이 결국 수용성의 변화가 와야 하고 정체성에 충실한 타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체성의 이해와 같은 교과목이 교육과정에 추가될 필요가 있다. ... 설교학도 다문화적인 관점에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애용들을 다뤄야 하며 성서학에서도 다문화적인 성서 읽기 노력이 필요하다.”(전문가 D)

“만약 다문화 교육의 커리큘럼을 만든다고 하면 첫 번째 학기는 기초이론이겠죠. 다문화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주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기초적인 것.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문적 이론을 가르치겠죠. 예를 들면 E9 나 F6이 무엇이며 현재 시행되는 다문화 정책이 무엇인지 등등에 관한 내용들. 마지막은 직접 가서 몸으로 부딪히는 활동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현장 학습이나 인턴활동 같은 부분을 커리큘럼에 추가해야 할 것 같아요.”(전문가 A)

전문가 D는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 증진을 위해서는 다문화 교육 강의를 개설하여 직접적인 교육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설교학, 성서학 등의 강의에서도 간접적으로나마 다문화에 대한 부분이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신학대학원 교육과정에 다문화 교육과 관련된 과목이 좀 더 개설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선지서를 살펴보면 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로 나아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자신들의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의 믿음과 구원 역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비목회자로서 사역을 계획할 경우, 우리 민족, 우리 교회, 우리 사회 등과 같은 미시적 관점이 아닌 하나님 나라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계획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나와 같은 문화권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권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성경적 세계관을 조직신학에 포함하고 실제적으로 다문화 사역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실체를 실천신학에 포함한다면 양질의 다문화 교육이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다문화 교육 관련 강의는 다문화에 대한 정의나 이론 측면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효능감이라는 것은 지식적인 이해가 아닌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에 의해 증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 A 역시 다문화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정책적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기초이론 과목과 실제 현장을 체험할 수 있다는 현장학습이나 인턴제도 등이 신학대학원 내에 개설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정부는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수행하였다. 하지만 다수의 다문화인은 언어적 어려움과 접근성의 부재로 인해 이와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다문화 사역을 수행하며 다문화인들을 돕기 위해서는 예비목회자들이 이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앞으로 다문화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 즉 다문화 효능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개신교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 증진을 위해서는 다문화에 대한 이론 과목뿐만 아니라, 실제 다문화 사역에 필요한 정책론이나 교수론 등에 대한 강의를 개설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의무적으로 다문화 교육을 신학교에 신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교육은 글로벌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문화 교육이 신학대학 내에 영성교육이나 인성교육 이런 것보다 더 강조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구요, 특히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커리큘

력을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전문가 A)

“앞으로는 도시에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목회현장이 시골이나 NGO 단체 쪽으로 이동하는데, 그렇다면 다문화 사역이 본인들의 직업 현장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신학대학원에서는 사회복지처럼 다문화 교육을 복지의 한 영역으로 추가하여 구체적인 실습과 이론 연구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체성의 이해 같은 과목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요.”(전문가 D)

“내가 어떤 사람과 더불어 사역을 할까 고민하게 하고 그들에게 효과적인 목회를 하도록 공부시키고 이를 연습 및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장과 신학이 맞물린 커리큘럼이 신학교에도 개설되어야 한다고 봐요.”(전문가 E)

이처럼 모든 전문가들은 개신교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 증진 방안으로 신학대학원의 다문화 교육과정의 개설과 이를 통한 다문화 교육 강좌 개설을 주장하고 있다. 즉, 예비목회자들이 좀 더 체계적이고 다양한 다문화 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목회자는 교사의 역할도 감당해야 한다. 그렇다면 반드시 다문화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올바른 인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개념, 원리, 이론 등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목회현장에서 올바른 다문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김선미, 김영순, 2008; 김영순, 2010; 김영순, 2013).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신학대학원의 다문화 교육 개설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교육과정에 다문화 강좌를 포함하는 형태의 변화만으로는 개신교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 증진을 담보할 수 없다. 왜냐하면 효능감이라는 것은 해당 지식을 얼마나 아느냐가 아닌 얼마나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자신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개편 역시 이론 중심이 아닌 실천적인 측면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예비목회자들이 다문화에 대한 이

론적 지식과 함께 현장을 체험하거나 인턴에 참여해봄으로써 실제 이주민들의 삶을 느껴보고 이를 내면화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신학대학원의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다문화 교육은 이론과 현장이 중시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문화에 대한 한국적 상황과 신학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신학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성서 내의 다문화 사례들을 찾아본다든지, 같은 하나님의 백성(시민)으로 평화로운 공존을 할 수 있는 여러 구체적인 신학적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기관이나 직접 현장을 찾아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론과 실제로 두 학기의 내용을 담을 수 있으며, 한 학기 15-16주차의 교육과정으로 보면 선행되어 있는 교재를 중심으로 권력, 성별, 인종, 종교, 계급 등을 넘어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장으로서 다문화인식 개선 교육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전문가 A)

“우선은 한국사회의 현실과 현상을 직시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문화사회 선교 혹은 다문화사회 목회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 요소입니다. 현재 한국사회의 이주민 실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앞으로 사회변화 전망은 어떠한지에 대한 인식과 전망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사회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지만, 다문화사회가 주는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개받고 진단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대처는 단순히 수동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고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태도로 임할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다문화사회 속에서 가져야 할 목회자의 자질과 적절한 대응이 모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다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주민이나 선주민들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하고 다문화 사역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그들의 사역 현장을 방문하는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문화사회를 먼저 경험한 외국의 사례들을 통해서도 한국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대응과 전망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입

니다.”(전문가 B)

“신대원의 커리큘럼이 이론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측면에서 현장을 체험하고 실제 이주 여성, 이주민 노동자, 난민, 유학생, 북한이탈주민을 만나보고 그들과 다름을 인정하는 경험의 제공이 필요한 것 같아요.”(전문가 C)

“다문화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신학대학원의 커리큘럼이 바뀔 필요가 있어요. 즉, 다문화와 관련된 이론수업의 개설뿐만 아니라 현장을 체험하거나 인턴을 경험해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설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다문화정책의 이해 등과 같은 과목도 개설되어 다문화에 대한 당위성을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전문가 D)

“따라서 성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은 다문화사회에 대한 거부감, 민족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교회나 목회자가 술선수범하여 다문화 교육을 실시한다면, 이질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교회가 이주민과 더불어 문화와 정체성을 서로 나누고 차이를 인정하며 존중하는 공존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전 교인 대상으로 설교해야 합니다. 따라서 목회자 교육에서 다문화 교육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신대원에서는 체험 중심의 다문화 교육 과정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문화 멘토링’이라는 수업이 있다면, 이 수업에서는 지역 교회에 다니는 외국인 신도들(결혼이주여성, 외국인 노동자 등) 또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지역 교회에 다니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멘토를 정해서 매주 활동사항들을 보고하는 등의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역사와 신학을 통한 다문화 교육’과 같은 수업도 개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민족이 더 이상 단일민족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역사를 통해 재미있게 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사회속의 복음’이라는 과목도 신대원의 특성상 개설될 수 있습니다. 이 과목에서는 신대원생들

이 각각 본인들이 전도사로 사역하는 교회에서 어떻게 전 교인과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달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설교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즉, 매주 설교한다는 심정으로 설교를 작성하고 발표하는 수업입니다.”(전문가 E)

이처럼 개신교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 증진을 위해서는 신학대학원의 교육과정이 이론적인 접근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목회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경험해보고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다양한 지식과 스킬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신학대학원의 교육과정의 변화를 위해서는 교육학적 관점에서 교육과정의 정의와 원리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 접근이다. 즉, 학생들이 무엇을 배워야 할지 교육 목표를 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론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다. 타일러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네 단계를 제시하였는데, 첫째, 구체적인 교육 목표를 정하고, 둘째, 학습 경험을 선정한 뒤, 셋째, 학습 경험을 조직하고, 넷째, 학습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바로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다(Tyler, 2013).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먼저 신학대학원에 다문화 교육과 관련된 새로운 교육과정이 개설되기 위해서는 다문화 교육의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다문화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뿐만 아니라, 다문화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의 다양한 상황과 경험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론적인 접근이 다음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을 통한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 경험의 제공

개신교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 증진을 위해서는 예비목회자로 하여금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수행해볼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특정 행위에 대한 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그 행위에 대한 경험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을 증진시키고자 한다면, 먼저 예비목회자들이 다문화와 관련된 현장으로 나가 직접 다문화 교육을 경험해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다문화 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다문화 상황을 예를 들어, 다문화가정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는 상황을 설정하여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선교를 중심으로 외국인을 교육시켜 해외로 파견하는 식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선교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설정하여 수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이 한 학기에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다른 수업과도 연계하여 다문화수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천신학 과목에서 예배학이 있다면, 이 예배학 강의를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전 교인을 대상으로 예배를 이끌어보시오 라고 과제 중심의 수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교인이 많은 교회에서 탐방 수업 및 봉사 활동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신대원에서의 교육경험은 커리큘럼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전문가 A)

“제일 중요한 것은 직접적이던 간접적이던 경험적인 부분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아카데미 하게보다는 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전문가 B)

“위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다문화 경험을 많이 하게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은 학내에서부터 그러한 경험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외국인 학생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한국에서 정착하여 살고 있는 이주민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선주민들의 경험을 듣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위해 가장 좋은 곳은 다문화 목회와 그와 관련된 일을 감당하고 있는 다양한 다문화 사역 현장을 찾는 것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직접 그러한 사역을 하지 않더라도 한국사회의 현실과 전망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고 장차 자신이 감당할 사역에 대한 통찰도 얻을 것입니다. 또한,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서는 다양한 해외 선교현장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서구이든 아시아이든 다문화사회를 경험하지 않는 곳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선교현장에 가서 다문화사회를 체험하는 것은 한국에 와 있는 이주민들의 상황과 태도를 이해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전문가 D)

“실제 이주민들이 와서 공부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학교 안에서는 이러한 장이 펼쳐지고 학교 밖으로는 현재 다문화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 현장을 탐방하여 실제 현장을 경험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전문가 F)

이처럼 개신교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 증진을 위해서는 예비목회자들이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특히, 전문가 E의 주장처럼 예비목회자들이 이주민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고 이들에 대한 어려움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교육적 효과는 더욱 증대될 것이며, 다문화 효능감 증진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 현장에 대한 체험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교육과정의 개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신학대학원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역시 예비목회자로 하여금 다양한 문화를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우수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글로벌 인재유치 센터를 신설하는 한편, 센터와 대학 간의 연계를 위해 법무부와 교육부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8). 만약 신학대학원에서도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경

우 대학으로의 직접적 효과도 발생하겠지만 예비목회자로 하여금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다문화 효능감 증진이라는 간접적인 효과도 나타날 것이다. 또한 신학대학원의 유학생 유치는 선교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나라 신학대학원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유학생이 본국으로 귀국할 경우, 본인 스스로의 믿음을 심화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역할을 함께 수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E는 다문화 사역에 환대 신학적 관점이 매우 중요하며, 이와 관련된 교육 경험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예비목회자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대원생들을 현장으로 계속해서 보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는 사회적 약자라는 것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신학이라면 그들의 관점으로 성서를 보는 목회를 하려면 사회적 약자가 누구인지 끊임없이 묻고 그들과 연대하는 현장을 찾고 그들에게 배우고 듣고 그래야 한다 생각합니다. 현재 많은 교회에서 소그룹 혹은 셀 목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기본적으로 소그룹에 참여하는 구성원에 대한 환대가 이루어져야 해요. 다문화 사역 역시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환대 신학이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전문가 E)

환대(Hospitality)와 관련된 사건은 성경에서 자주 언급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목회에 매우 필요한 주제이다. 환대는 소그룹 안에서의 치유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만약 소그룹 구성원들이 서로를 환대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난다면 소그룹 구성원들은 다양한 차원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거 팔머가 말했듯이, 환대란 치유가 확산되는 공간으로 규정할 수 있다(김기영, 2002). 환대는 사람들이 마음의 벽을 허물고 해당 공동체에 소속할 수 있도록 만드는 동기를 제공한다. 즉, 다문화인에 대한 환대는 다문화인으로 하여금 상처와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교회에 정착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동기가 된다. 따라서

예비목회자를 다문화센터 혹은 다문화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로 초대하여 다문화인에 대한 환대의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다문화적 역량의 발달은 다문화 교육의 주된 목적이다(김영순, 2015). 즉, 다문화사회에 살아가는 우리는 상대방과의 차이를 인정하며,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다문화적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이는 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예비목회자들이 다문화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 경험을 부여한다면, 이는 곧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 증진으로 이어질 것이다.

(3) 긍정적 네트워킹을 통한 소명의식 함양

개신교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 증진을 위해서는 긍정적 네트워킹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목회자로서의 소명의식 함양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전문가 E는 신학대학원 내에 옹지 않은 집단 문화가 형성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이것이 개신교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방금 말한 것처럼 신학대학원에는 집단 문화, 즉 끼리끼리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의 끈끈함과 친밀함을 매우 강조하죠. 신학대학원이라는 특성상 졸업 후에 동역자로 만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동질성 그 이면에 있는 권력 욕구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즉, 순수한 집단 문화가 아닌 권력적 집단을 형성하여 자신보다 후배나 약자를 억압하고 괴롭히는 이런 문화가 신학대학원생의 다문화 효능감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따라서 신학대학원생의 다문화 효능감 증진을 위해서는 먼저 집단 문화가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전문가 E)

이와 같이 신학대학원 내에 형성되어 있는 집단 문화는 개신교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집단 문화 그 자체가 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전문가 E 역시 마지막에 다문화 효능감 증진을 위해서는 집단 문화가 긍정적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사회적 관계망 이론은 바로 이러한 집단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사회 관계망 이론은 관계론적 접근을 강조하며, 이것의 기본 가정은 행위자들의 인식, 신념, 태도 등이 다른 행위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Knoke & Kuklinski 1982). 이와 같은 사회 관계망 이론에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다. 부르디외는 이를 특정 집단에 소속됨으로써 획득하는 실제적, 잠재적 자원의 총합으로 정의하였다(Bourdieu, 1986). 즉,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은 특정 집단에 속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과의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 물질, 정보, 가치관 등의 자원을 교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지면서 결국 해당 집단을 발전할 수 있게 된다. 안선영, 장원섭(2009) 역시 사회적 자본이 구성원들의 특정 행위를 유도하고 사회 구조 안에 속한 개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사회 관계망 이론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올바른 집단 문화가 형성된다면 해당 집단에 소속된 구성원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만약 신학대학원 내에 다문화 사역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체험 등이 공유될 경우, 이는 곧 신학대학원생들의 다문화 효능감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개신교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 증진을 위해서는 올바른 집단 문화 형성을 통한 정보의 공유뿐만 아니라, 소명의식에 대한 공유 역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앞으로 직면하게 될 다문화사역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이 사회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에 대한 소명의식과 자부심을 가질 것이며 자연스럽게 다문화 효능감 역시 증진될 것이다. 전문가 B 역시 다문화 효능감의 증진을 위해서는 개신교 예비목회자들 스스로가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선은 관심을 갖게 하여 접촉점을 넓혀야 하고,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인이 하는 것에 대해 발견을 하고 소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억지로 시키는 것은 효능감에 하등 도움이 안 된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목회 소명감을 고취시킬 때 효능감은 증진된다.”(전문가 B)

이처럼 개신교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 증진을 위해서는 소명의식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대부분의 교육학자들이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자발적인 동기에 의한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조하는 것처럼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 역시 확고한 소명의식에 근거한 실천이 이루어질 때 증진이 가능하다.

코메니우스는 교육학 형성에 필요와 용이성을 강조하였다(Comenius, 1986). 이때 교육에 대한 필요는 그 교육이 존재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용이성은 효과적인 방법론을 의미한다(안영혁, 2016).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적 환경에 필요한 요구를 채우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용이한 다문화사역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예비목회자로 하여금 다문화 목회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들의 소명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면 다문화 효능감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4) 외적 환경의 변화를 위한 대책 마련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 증진을 위해서는 예비목회자들의 변화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외적인 환경도 변해야 한다. 즉, 법제화를 통해 다문화 교육에 대한 당위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동시에 다문화 교육을 수행하는 강사의 질 재고도 필요하다.

“현재 다문화 교육 강사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한 전문 강사를 만나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소위 전문가 행색을 하는데 실제로는 다문화적 인식이 전혀 없더라고요. ... 예비목회자들의 다문화 효능감을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

그럼의 도입도 중요하지만 우선 강사들의 질적 수준에 대한 고민도 필수적인 것 같아요.”(전문가 D)

“저는 법제화가 필수라고 봐요. 여성안수에 대한 인식의 경우에도 결국 법제화를 통해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듯이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평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요.”(전문가 E)

전문가 D는 현재 다문화 교육 강사들의 질적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문화 교육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다문화 교육을 수행하는 교수자의 질적인 제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가 E는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 증진을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수적이라 주장하였다. 즉, 여성 안수의 경우에도 법제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여성 안수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고, 이를 통해 여성 목회자들의 효능감이 증진되었던 것처럼 다문화 효능감의 증진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법제화가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5) 소결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 증진 방안에 대한 소결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신교 예비목회자의 다문화인식 수준이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 점에 대해 전문가들은 ‘신앙은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연민으로부터 출발한다.’, ‘목회자는 사람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신앙인은 기본적으로 약자를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와 같은 원인을 제시하였다. 다문화사회로의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더 이상 과거 단일민족의 자부심을 고수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이제는 한국사회가 타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태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예비목회자로 하여금 다른 문화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충

분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김영순, 2015). 따라서 앞으로 예비목회자의 다문화인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이 낮은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현재 신학대학원에서는 다문화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예비목회자들이 다문화와 관련된 경험이 많지 않다.’, ‘현재 신학대학원 내에는 집단주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등을 제시하였다. 앞서 제 1장에서 소개한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다문화인식과 다문화 효능감의 경우 정적 상관관계를 가진다. 하지만 예비목회자들은 보통보다 높은 다문화인식 수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다문화 효능감을 보였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다문화 효능감이 낮은 이유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변인별 예비목회자의 다문화인식 차이는 ‘다문화 교육과정 존재 여부’, ‘다문화 프로그램 진행 여부’, ‘성별’, ‘최종 학위’, ‘연령’과 같은 변인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표 IV-18>과 같다. 또한, 변인별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 차이는 ‘다문화 교육 이수 여부’, ‘학부 출신’, ‘외국어 능력’, ‘연령’, ‘해외 체류기간’과 같은 변인에 의해 차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표 IV-19>와 같다.

<표 IV-18> 예비목회자의 다문화인식 차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

변인	전문가 의견
다문화 교육과정 존재 여부	· 다문화 교육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선호도나 호감도가 상승하였을 것이다.
다문화 프로그램 진행 여부	· 다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해봄으로써 다문화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성별	· 대부분의 여성이 소수자의 입장이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이 클 것이다. · 여성 예비목회자로서 경험하였던 차별로 인해 평등을 중요시하는 다문화 교육의 가치관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변인	전문가 의견
최종 학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이 높다는 것은 교육적 경험이 많다는 의미이며, 경험이 많을수록 다문화인식을 높아질 것이다. ·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의 필요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연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젊은 사람들이 개방성은 높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든 사람이 다문화에 대한 포용성은 더 높을 것이다. · 연령이 높을수록 다문화에 대한 경험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

<표 IV-19> 변인별 다문화 효능감 차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

변인	전문가 의견
다문화 교육 이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능감은 경험에 의해 발달되는데 결국 경험이라는 것은 교육에 의한 것이다.
학부 출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으로 일반대학교에 비해 신학대학의 학생이 학업능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 일반대학의 전공을 살리지 않고 신학대학원에 진학했다는 것은 확고한 소명의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일반대학에서는 다양한 학문을 배울 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사람을 만날 기회가 많다.
외국어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는 그 사회의 가치관과 관습 등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언어를 구사한다는 것은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연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이가 들수록 보는 관점이 넓어져 수용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체성을 만나봤을 확률이 높다.
해외 체류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민으로서 경험했던 차별이나 편견으로 인해 이주민을 좀 더 호의적으로 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주민으로서의 경험으로 인해 이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선행 연구 결과와는 다르게 개신교 예비목회자의 다문화인식과 다문화 효능감이 차이를 보인 점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험의 차이’, ‘수동적 교육’, ‘부족한 교육 경험’을 제시하였다. 즉, 신학대학원생들은 직접적인 다문화 경험이 부재하고 대부분 간접적 경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신학대학원 내의 교육 역시 수동적 교육에 머물고 있어 개신교 예비목회자들의 다문화인식은 보통 이상의 수준이지만 다문화 효능감은 낮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넷째, 전문가들은 개신교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 증진 방안으로 ‘교육과정 개편’,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경험’, ‘긍정적 네트워킹을 통한 소명의식 함양’, ‘외적인 환경변화’을 제시하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교육과정 개편’은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마련과 실천적 측면의 다문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경험’은 효능감 증진에 필수적인 직접적 경험을 개신교 예비목회자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긍정적 네트워킹을 통한 소명의식 함양’은 신학대학원 내에서 긍정적인 집단 문화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체험 등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적인 환경변화’는 법제화를 통해 다문화 교육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해야 하며 다문화 교육을 실천하는 교수자의 질재고 역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5.1. 요약

오늘날 우리나라는 기술적 발달이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과거에 비해 경제적 풍요와 삶의 질이 매우 높아진 상태이다. 하지만 이와 비례하여 정신적 가난과 낮은 삶의 만족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으며, 빈부격차와 같은 사회적 갈등요인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또한 다문화사회로의 급격한 진입은 편견과 차별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종교계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개신교의 경우 성서의 배경이 다문화적 환경일 뿐만 아니라, 그 지향점이 약자에 대한 배려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점에서 다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개신교에서는 현재 다문화 교육과 종교교육을 융합한 다문화 종교교육이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때 다문화 종교교육을 수행하는 교수자 즉, 목회자의 다문화 교육 역량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목회를 준비하는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다문화인식 개선과 다문화 효능감 증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양적 연구를 통해 예비목회자의 다문화인식과 다문화 효능감 실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목회자의 전반적인 다문화인식 수준은 3.52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중간 이상의 값으로써, 목회자를 대상으로 다문화인식을 조사한 선행 연구와 비교했을 때 약간 낮은 수치이지만 다른 집단을 대상으로 다문화인식을 조사한 선행 연구와는 비슷한 수치이다. 또한 예비목회자의 다문화인식은 ‘다문화 교육 과정 존재 여부’, ‘다문화 프로그램 진행 여부’, ‘성별’, ‘최종 학위’, ‘연령’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였다.

둘째,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은 2.9점으로 보통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이는 교사 대상의 선행 연구 결과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또한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은 ‘다문화 프로그램 진행 여부’, ‘다문화 교육 이수 여부’, ‘학부 출신’, ‘외국어 능력’, ‘연령’, ‘해외 체류기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였다.

셋째, 다문화 효능감은 지식, 기능, 태도와 같은 세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하위영역별 다문화 효능감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지식 영역에서는 ‘다문화 프로그램 진행 여부’, ‘다문화 교육 이수 여부’, ‘학부 출신’, ‘외국어 능력’, ‘해외 체류기간’에 따라 다문화 효능감의 차이가 나타났고, 기술 영역에서는 ‘다문화 프로그램 진행 여부’, ‘다문화 교육 이수 여부’, ‘학부 출신’, ‘외국어 능력’, ‘해외 체류기간’에 따라 다문화 효능감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태도 영역에서는 ‘다문화 프로그램 진행 여부’, ‘다문화 교육 이수 여부’, ‘학부 출신’, ‘외국어 능력’, ‘연령’, ‘해외 체류기간’에 따라 다문화 효능감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양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질적 연구를 통해 예비목회자의 다문화인식과 다문화 효능감 실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목회자의 다문화인식 수준이 보통 이상인 점에 대해 전문가들은 ‘신앙은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연민으로부터 출발한다.’, ‘목회자는 사람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신앙인은 기본적으로 약자를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와 같은 원인 등을 들었다. 또한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이 낮은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현재 신학대학원에서는 다문화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예비목회자들이 다문화와 관련된 경험이 많지 않다.’, ‘현재 신학대학원 내에는 집단주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등을 제시하였다. 이 밖에 선행 연구와는 달리 예비목회자들의 경우, 다문화인식과 다문화 효능감 수준의 차이가 발생한 점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험의 차이’, ‘수동적 교육’, ‘부족한 교육 경험’을 제시하였다.

둘째, 개신교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 증진을 위해 전문가들은 ‘교육과정 개편’,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경험’, ‘긍정적 네트워킹을 통한 소명의식

함양', '외적인 환경변화'와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문화 효능감은 저절로 키워지는 것이 아닌 교육적 접근을 통해 증진 가능한 요인이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신학대학원에서는 다문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루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피상적으로만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개신교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 증진을 위해서는 신학대학원의 교육과정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지식적 이해를 돕는 이론교육과 실제 다문화 교육을 수행할 수 있다는 체험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때 직접적인 다문화 교육 역시 중요하지만 성경 자체가 다문화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접근, 예컨대, 성경적 세계관을 조직신학에 포함하거나 실제적으로 다문화 사역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실천신학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다문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문화 교육 관련 강의는 다문화에 대한 정의나 이론 측면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효능감이라는 것은 지식적인 이해가 아닌 실제 현장에서 성공 경험에 의해 증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다문화인이 필요로 하는 내용들, 예컨대, 다문화인에 대한 정책이나 지원 방법 등을 현장 학습이나 인턴제도 등을 통해 직접 체험할 수 있다면 향후 다문화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 즉, 다문화 효능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개신교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 증진을 위해서는 다문화에 대한 이론 과목뿐만 아니라, 실제 다문화 사역에 필요한 정책론이나 교수론 등에 대한 교과가 개설될 필요가 있다.

다문화 효능감 증진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개편뿐만 아니라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 경험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특정 행위에 대한 효능감 증진을 위해서는 그 행위에 대한 경험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비목회자들이 다문화와 관련된 현장으로 나가 직접 다문화 교육을 경험해보고 이주민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면 개신교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만약 신학대학원에서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경우, 예비목회자로 하여금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 증진이라는 간접적인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셋째, 다문화 효능감 증진은 교육적 경험의 ‘환대 신학’적 관점에서도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환대(Hospitality)와 관련된 사건은 성경에서 자주 언급될 뿐만 아니라, 환대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환대는 사람들이 마음의 벽을 허물고 해당 공동체에 소속할 수 있도록 만드는 동기를 제공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다문화인에 대한 환대는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주고, 이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예비목회자들이 다양한 치유가 일어나는 환대의 현장을 경험한다면 다문화 효능감이 증진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다문화센터 혹은 다문화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 현장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 밖에 전문가 면담 결과에서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디아스포라¹⁰⁾ 선교와 관련된 내용 역시 신학대학원에 교육과정 개편 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서론에서 제시한 것처럼 다수의 목회자가 현재 다문화 교육을 동화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신학대학원의 교육과정에 이주민들이 가진 문화와 언어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들의 관점에서 선교를 실시하는 디아스포라 선교 내용이 포함된다면 개신교 예비목회자들은 타문화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진정한 다문화 교육의 의미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10)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자신이 태어난 나라 혹은 고향을 떠나 사는 이주민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하지만 이주민과 디아스포라의 차이점은, 이주민이 단순히 타지에 정착해 사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라면 디아스포라는 자신의 문화나 언어를 가진 채 새로운 정착지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한다(박찬식, 정노아, 2012).

5.2. 논의 및 제언

이 절에서는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예비목회자의 전반적인 다문화인식 수준은 평균보다 높은 수치이긴 하지만 김성영(2014)이 제시한 목회자의 다문화인식 수준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에서 김성영은 비록 목회자의 다문화인식이 높은 수준이지만 특정 영역에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나타났으며, 이에 목회자의 다문화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다문화, 다종교 사회가 도래하는 현재, 다양성에 대한 측면은 종교계에서도 강조되어야 하며 이에 목회자의 다문화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문화, 성, 계급과 같은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돕는 것이 다문화 교육의 목표임을 강조하며 목회자들에 대한 다문화 교육을 통해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예비목회자의 경우, 역시 평균보다 높은 다문화인식 수준을 보였지만 전문가의 의견에서 도출된 바와 같이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담론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다문화 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 이때 다문화 교육의 내용은 전문가 E가 제시한 것처럼 이론적인 부분에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다른 집단과의 상호작용을 경험해볼 수 있는 실천적 영역에도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둘째, 개신교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 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교수법과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임한나(2016)는 청소년지도사의 다문화인식 개선 방안으로 교수법 강화와 현장 적용이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였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지도사의 다문화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적절한 다문화 교육이 필요하며, 이때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법과 학습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문화 효능감 역시 다양한 교수법과 학습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예비목회자들이

재학 중인 신학대학원에는 다문화 교육과 관련된 강좌나 교육과정 자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신학대학원에 다문화 교육 강의를 개설하고 실천적 영역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

셋째, 개신교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은 평균보다 낮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술한 것처럼 다문화 효능감은 개인의 다문화인식과 직접적인 상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문화 교육의 성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Perkins & Mebert(2005)가 주장한 것처럼 다문화 효능감이 낮을 경우 문화적 갈등을 초래하거나 타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 교육을 실시할 경우, 다문화 교육 목표를 달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학습자의 성취나 실패여부를 좀 더 강조하여 성공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힘들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 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넷째,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 증진을 위해서는 ‘교육과정 개편’,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경험’, ‘긍정적 네트워킹을 통한 소명의식 함양’, ‘외적인 환경변화’와 같은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임한나(2016)는 다문화 교육 수행 경험이 다문화 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즉, 다문화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다문화 효능감 증진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즉, 체계적 교육과정 마련을 통해 다문화적 교육경험을 제공해야 하며, 나아가 예비목회자의 소명의식을 함양을 위해 적절한 교육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과거 여성 목사 안수의 예시에서 알 수 있듯이 법제화는 인식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법제화가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에서 비롯된다는 교육학의 오랜 주장처럼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교수자의 질 제고도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예비목회자를 대상으로 다문화인식 수준과 다문화 효능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2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다문화 교육에 대한 과급력은 실제 목회를 수행하는 목회자의 역량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에는 본 연구를 토대로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예비목회자들의 다문화인식 개선과 다문화 효능감 증진 방안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부분이 신학대학원생들의 경험과 관련된 부분이었다. 즉,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이 예비목회자의 다문화인식 개선과 다문화 효능감 증진에 도움이 될 거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는 전문가의 인식과 통찰력에 기반 한 의견이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현장 경험이 다문화인식과 다문화 효능감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다문화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주로 교육학과 사회학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 등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하지만 종교계 역시 다문화에 대한 영향력이 크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다문화와 관련된 종교적 연구, 예컨대 ‘개신교 영역의 다문화 연구 실태 조사’ 혹은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 교육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등과 같은 종합적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넷째, 이 연구에서는 개신교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 증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면담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시사점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통해 개신교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 증진을 위한 거시적인 방향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개신교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 증진을 위한 미시적인 방향, 예컨대 구체적으로 어떤 강의가 개설되고, 어떤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개신교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 증진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과목과 프로그램이 개설되고 개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가스펠서브(2013). 교회용어사전. 서울: 생명의말씀사.
- 강선경·김현진(2011).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다인종 및 다문화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성 연구. 청소년학연구, 18(11), 25-282.
- 강성열(2009). 구약성서의 이주민 신학과 한국사회의 다문화가정. 신학과 목회, 31, 11-46.
- 권미은·권미지·이미아(2012). 예비특수교사의 다문화 경험, 다문화인식 및 다문화 효능감 연구. 특수교육, 11(3), 5-25.
- 김기영(2002). 환대의 신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김남희·임선영(2014).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인식, 다문화 태도 및 다문화 효능감의 관계. 다문화 교육연구, 7(4), 169-184.
- 김상구·이성진(2016). 2015년 한국 신대원생들의 의식과 사역에 관한 이해: 아이굿뉴스의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복음과 실천신학, 41, 39-71.
- 김상섭외 7인(2017). 이민 다문화법전. 서울: DAMDA.
- 김선미·김영순(2008). 다문화 교육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 김성영·오영훈(2013). 한국 개신교 목사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연구. 종교연구, 72, 207-235.
- 김성영(2014). 한국 개신교 목사의 다문화 교육 인식에 관한 통합적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성영(2016). 개신교 목회자의 다문화 교육 태도에 관한 연구-수도권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2(3), 277-299.
- 김영순(2010). 다문화사회를 위한 시민인문학; 다문화사회와 시민교육: '다문화 역량을 중심으로. 시민인문학, 18, 33-59.

- 김영순 · 이미정(2010). 다문화 교육사의 실천적 역량과 기능에 관한 연구. *다문화 교육*, 1(1), 77-94.
- 김영순(2013). 다문화사회에서 공존하는 방법.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학술대회*, 2013, 3-15.
- 김영순 · 배현주(2013). 케이팝(K-pop)을 통한 성인 여성의 다문화시민성 함양에 관한 경험 연구. *사회과교육*, 52(2), 29-44.
- 김영순 · 방현희 · 홍정훈(2014).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 멘토링 참여 대학생 멘토의 열린 인식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열린교육학회*, 22(4), 1-22.
- 김영순(2015). 다문화사회와 인간 발달. *한국 인간발달학회 학술대회지*, 2015(1), 1-19.
- 김영순 외(2017). 처음 만나는 다문화 교육. 북코리아.
- 김영순(2018). 다문화사회와 공존의 인문학. 디비북스.
- 김영인(2011). 보육교사의 배경과 다문화 환경이 다문화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천 · 김경식 · 이현철(2011). 교육연구에서의 통합연구방법 (Mixed Research Methods): 개념과 시사점. *초등교육연구*, 24(1), 305-328.
- 김영천(2013a). *질적 연구방법론 1*.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 김영천(2013b). *질적 연구방법론 II*.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 김태동(2011). 영유아 보육교사의 다문화 효능감영향요인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66, 89-108.
- 남기곤(2008).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학력 및 직업지위에 미치는 효과: 국제비교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17(1), 61-92.
- 모경환 · 황혜원(2007). 중등 교사들의 다문화적 인식에 대한 연구: 수도권 국어·사회과 교사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39(3), 79-100.
- 모경환(2009). 다문화 교사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국교원교육연구*, 26, 245-270.
- 문수백(2009).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박선미·성민선(2011). 교사의 다문화 교육 경험이 다문화적 인식에 미친 영향. 사회과교육, 50(3), 1-15.
- 박선미·최정호·정이화(2012). 다문화 역량의 구성 요소 중 '다문화인식'의 개념적 모호성에 대한 소고. 다문화 교육, 3, 47-67.
- 박순덕·김영순(2013). 초등학교 다문화미술교육 방향 탐색을 위한 초등교사 인식에 관한 연구. 교육과정평가연구, 16(2), 103-126.
- 박순덕·김영순(2014). 미술과에서 다문화인식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연구. 미술교육논총, 28(1), 221-246.
- 박종석(2012). 미국 신학대학원의 교육과정 연구: 신학교협의회(ATS)를 중심으로. 복음과교육, 11, 123-158.
- 박종수(2010). 다문화현상에 대한 한국개신교의 인식과 대응. 종교문화연구, (14), 83-110.
- 박찬식·정노아(2012). 세계 속의 디아스포라 선교와 이주자 선교. 서울: 기독교산업사회연구소.
- 박충일(2006). 해석학과 하나님 나라: “해석학적 사유”를 통한 타자들의 “타자성 회복”.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은경·김영순(2015).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의 ‘가정생활 문화’ 단원에 나타난 다문화 교육 내용 분석. 교육문화연구, 21(1), 169-198.
- 법무부(2018). 출입국·외국인정책 내부용 통계월보(2018년 1월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서종남(2009).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다문화 교육의 역할과 과제. 교육문화연구, 15(2), 75-104.
- 선곡유화·이영선·서우석(2016). 청소년의 다문화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교육문화연구, 22(6), 483-511.
- 심우엽(2010). 초등학생의 다문화 아동에 대한 인식과 태도. 초등교육연구, 23(4), 43-63.
- 안상수 외(2012).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안선영·장원섭(2009).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VII :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09, 3-75.
- 안영혁(2016). 다문화 선교에서 목회자 교육 -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신학 지남, 83(4), 255-290.
- 양명수(2012). 레비나스, 근대의 자율적 주체에 대한 비판.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7, 141-162.
- 염미경(2012). 대학 다문화 교육과 대학생들의 다문화인식. 현대사회와다문화, 2(1), 211-233.
- 오현선(2011). 다문화사회와 기독교의 종교교육. 한국종교교육학회 자료집.
- 윤인진(2011). 민족에서 국민으로: 재외동포,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변화.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 윤인진(2016). 다문화 소수자에 대한 국민인식의 지형과 변화. 디아스포라연구, 10(1), 125-154.
- 이경운(2011). 교사들의 다문화적 효능감 증진방안. 다문화 교육 연구와 실천, 3(단일호), 111-136.
- 이기용·박창언(2014). 예비 중등교사의 다문화인식이 다문화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수산해양교육연구, 26(5), 1026-1036.
- 이승구(2003). 다문화 교육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 기독교적 다문화 교육의 가능성과 시도. 국제신학, 5, 132-167.
- 이일현(2016). EasyFlow 회귀분석. 한나래.
- 이정인(2009).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이 비판적 사고 성향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교육학회, 15(2), 166-174.
- 이종승(2009). 교육, 심리, 사회 연구방법론. 서울: 교육과학사.
- 이종식(2013). 중학교 교사의 다문화인식이 다문화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17, 161-179.
- 이한구(1992).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서울: 서광사.

- 장봉석(2010). 중등 예비 교사의 다문화 효능감 측정과 그 결과가 교사 교육 교육과정개발에 주는 시사점. 한국교원교육연구, 27, 349-372.
- 장익준 · 이기용(2014). 초등학교 교사의 다문화인식이 다문화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 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8(3), 1-20.
- 장태한(2001). 한국 대학생의 인종·민족 선호도에 관하여. 당대비평, 14, 99-113.
- 정경호(1995). 오늘 우리들에게 본회퍼(Dietrich Bonhoeffer)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 본회퍼의 삶의 신학/윤리를 중심으로. 신학과 목회, 9, 153-190.
- 정일웅(2006). 한국 신학교육 이대로 좋은가?: 교육방법론과 커리큘럼을 중심으로: 주제논문 1; 한국교회, 신학교육 이대로 좋은가?-커리큘럼과 교육방법론을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40, 1-40.
- 정지현 · 김영순 · 홍정훈(2014). 다문화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참여 고등학생의 다문화인식에 관한 연구. 열린교육연구, 22(2), 19-41.
- 정해숙 외(2016).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연구보고 2016-03). 여성가족부 연구 보고서.
- 조광미 · 안병환(2016). 초등학생의 다문화 경험이 다문화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9(2), 143-160.
- 조민식 · 송시형(2011).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적 차별문제-수도권 거주 다문화가정 자녀를 중심으로. 글로벌사회복지연구, 1(1), 53-72.
- 조윤주(2010). 초등학생의 다문화인식이 다문화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관계.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3(3), 43-58.
- 지술현 · 김고은(2011). 부모의 다문화에 대한 태도가 초등학생 자녀의 다문화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콘텐츠연구, 11, 81-105.
- 지정우(2013).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다문화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민성(2008). 성격선호지표, 학업적 자기효능감, 시험불안이 치의학전문대학원

- 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강식(1997). 학력별 상대적 임금격차의 변화와 원인분석. 경제학연구, 45(4), 193-226.
- 최종임·김영순(2016). 다문화 중점학교 프로그램 참여자의 다문화 시민성 인식에 관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4), 597-621.
- 최충욱·모경환(2007). 경기도 초·중등 교사들의 다문화적 효능감에 대한 조사 연구. 시민교육연구, 39(4), 163-182.
- 통계청(2018). 다문화가족 관련 연도별 통계(18년 1월).
- 하숙현(2000). 다문화 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양육실제 연구조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재동(2017). 역사를 통해 발견하는 다문화와 다문화 인물. 강원: 청솔.
- 황재동(2018).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분석. NGO연구 제13권 제1호(2018):69-98.
- 황정미 외(2007). 한국사회의 다민족, 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 연구(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7-19-0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 해외문헌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 증진 방안에 대한 통합연구“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
- Banks, J. A. (2008).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Boston: Pearson Education Allyn and Bacon.
- Bennett, C. I. (2001). Genres of research in multicultural education.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71(2), 171-217.
- Bennett, C. I. (2007). Comprehensive multicultur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6th ed.). Boston, MA. : Pearson.

- Bonhoeffer, D. (1966). *Christ the center*. (Trans John Bowden). New York: Harper & Row.
- Bourdieu, P. (1986). The force of law: Toward a sociology of the juridical field. *Hastings LJ*, 38, 805.
- Burnett, G. (1994). *Varieties of Multicultural Education: An Introduction*. ERIC Digest 98.
- Castro, A. J. (2010). Themes in the Research on Preservice Teacher's Views of Cultural Diversity: Implications for Researching Millennial Preservice Teachers. *Educational Researcher*, 39(3), pp. 198-210.
- Coleman, J. A. (1989). The Two Pedagogies: Discipleship and Citizenship, In Boys, M. C. (Ed.). *Education for citizenship and discipleship*. New York: Pilgrim Press.
- Comenius, J. A. (1986). *Pampaedia or Universal Education*, trans, by Dobbie, AM.
- Constantine, M. G., & Ladany, N. (2001). New visions for defining and assessing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e.
- Creswell, J. W., & Clark, V. L. P. (2007). *Designing and conducting mixed methods research*.
- Dilworth, P. P. (2004). Multicultural citizenship education: Case studies from social studies classrooms. *Theory & Research in Social Education*, 32(2), 153-186.
- Gay, G. (1977). Curriculum for multicultural teacher education. *Pluralism and the American teacher: Issues and case studies*, 31-62.
- Gibson, S., & Dembo, M. (1984). Teacher efficacy: A construct validation. *Journal of Education Psychology*, 76(4), 569-582.
- Greene, J. C., Caracelli, V. J., & Graham, W. F. (1989). Toward a conceptual framework for mixed-method evaluation designs.

-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11(3), 255-274.
- Greene, J. C. (2007). *Mixed methods in social inquiry* (Vol. 9). John Wiley & Sons.
- Glockshuber, E. (2005). Counsellors' self-perceived multicultural competencies model. *European journal of psychotherapy, counselling and health*, 7(4), 291-308.
- Guyton, E. M., & Wesche, M. V. (2005). The multicultural efficacy scale: Development, item selection, and reliability. *Multicultural Perspective*, 7(4), 21-29.
- Habel, N. C. (1995). *The land is mine: six biblical land ideologies*. Augsburg Fortress Publishing.
- Holcomb-McCoy, C. C., & Myers, J. E. (1999). Multicultural competence and counselor training: A national survey.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7(3), 294-302.
- Knoke, D., & Kuklinski, J. H. (1982). *Network analysis*. Sage Publication.
- Lawshe, C. H. (1975). A quantitative approach to content validity. *Personnel psychology*, 28(4), 563-575.
- Levinas, E. (1996). *시간과 타자(강영안 역)*. 서울: 문예출판사.
- Morse, J. M. (1991). Approaches to qualitative-quantitative methodological triangulation. *Nursing research*, 40(2), 120-123.
- Onwuegbuzie, A. J., & Teddlie, C. (2003). A framework for analyzing data in mixed methods research. *Handbook of mixed methods in social and behavioral research*, 2, 397-430.
- Perkins, D. M., Mebert, C. J. (2005). Efficacy of multicultural education for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6(4), 497-512.
- Pope, R. L., & Reynolds, A. L. (1997). Student affairs core

- competencies: Integrating multicultural awareness, knowledge, and skill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8(3), 266-277.
- Robbins, J. (1991). *Visage, figure: Reading Levinas's Totality and infinity*. *Yale French Studies*, (79), 135-149.
- Schlesinger, P. (1991). *Media, state, and nation: political violence and collective identities (Vol. 4)*. Sage Publications Ltd.
- Sue, D. W. (1990). Culture-specific strategies in counseling: A conceptual framework.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21(6), 424.
- Tashakkori, A., & Teddlie, C. (1998). *Mixed methodology: Combining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es (Vol. 46)*. Sage.
- Tucker, C. M., Porter, T., Reinke, W. M., Herman, K. C., Ivery, P. D., Mack, C. E., & Jackson, E. S. (2005). Promoting teacher efficacy for working with culturally diverse students. *Preventing School Failure: Alternative Education for Children and Youth*, 50(1), 29-34.
- Tyler, R. W. (2013). *Basic principles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Von Rad, G. (1966). The form-critical problem of the hexateuch. *The problem of the hexateuch and other essays*, 1-78.
- Walton, J. H. (2009). *Zondervan Illustrated Bible Backgrounds Commentary (Old Testament) Volume 1: Genesis, Exodus, Leviticus, Numbers, Deuteronomy*. Grand Rapids, MI: Zondervan.

설문지

제목 : 예비목회자들의 다문화인식 및 효능감 증진방안에 대한 통합연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예비목회자인 신학대학원생들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 및 다문화 효능감을 살펴보기 위한 기초조사 연구를 위한 것입니다.

저는 현재 이주민들과 선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목회자로서 예비목회자들의 다문화인식 및 다문화 효능감 증진방안에 대한 통합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문화사회를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예비목회자로서 다문화 감수성 및 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예비목회자의 다문화인식을 살펴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예비목회자의 다문화인식과 다문화 효능감을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다문화 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답변은 비밀이 보장되며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

용됩니다.

설문에 응해주신 예비목회자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연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전자우편 주소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하대학교 대학원 이민다문화학과 박사수료 황재동

지도교수 김영순

E-mail : jaedonghwang@hanmail.net / 010 7912 8291



다음은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입니다.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해당 번호에 V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 내용	혀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아주그렇다
다문화 인식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잘 도와주는 편에 속한다.	①	②	③	④	⑤
	타문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편에 속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외국인을 만날 때 선입견을 갖지 않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타문화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갖지 않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자부심이 강한 편에 속한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 민족에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국제결혼이나 이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편에 속한다.	①	②	③	④	⑤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	다문화 교육은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융통성과 개방성을 가진 인재 양성에 필요한 교육이다.	①	②	③	④	⑤
	다문화 교육은 모든 인간이 인종·성·소수자·종교 등에 관계없이 평등을 알게 하고 실천하는 교육이다	①	②	③	④	⑤
	다문화 교육은 지역 및 사회공동체에서 타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공존할 수 있도록 일깨우는 교육이다.	①	②	③	④	⑤
	다문화 교육은 문화적 다양성과 공통성을 경험하게 하는 교육이다.	①	②	③	④	⑤
	다문화 교육은 자문화와 타문화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갖게 함으로써 합리적인 사고를 길러준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입니다.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해당 번호에 V 표 하여 주십시오.

	문항내용	혀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아주그렇다
다문화 효능감 (지식)	다문화인(, 결혼이주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위한 정책을 잘 알고 있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다문화인을 만나면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다문화인과의 관계에서 반응하고 대응하는 법을 알고 있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다문화인을 대할 때 어떤 상황에서 문화적 가치가 충돌하는지를 알고 있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다문화 효능감 (기술)	나는 다문화인이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다문화인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잘 아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다문화인의 문제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안다.	①	②	③	④	⑤
다문화 효능감 (태도)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다문화인이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과 다문화인이 좋아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다문화인의 편견을 없애기 위해 지역사회에 다문화 기관과 협력 할 수 있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다문화인이 정보를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 친절하게 여러 번 반복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다문화인의 권리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다문화인들이 말할 때 공감적인 태도로 들어주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다문화인과 의사소통에서 난감한 상황에 처할 때 지속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개방형 질문지

(“예 / 아니오” 괄호 안에 √ 에 표 해 주시고 써 주세요)

1. 예비목회자인 신학대학원 학우 중 다문화인(외국유학생,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등)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있으면 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예비목회자 양성 신학대학원 교육과정에 다문화 교육과 관련된 과목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없다면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3. 예비목회자로서 다문화인식 개선 및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본인이 사역 할 때, 다문화 교육 관련 강의이나 프로그램을 이주민이나 선주민에게
진행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 , 아니오(). *있다면 진행 후에
이주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예비목회자로서 다문화인식 개선과 다문화 효능감 증진을 위한 대안은 무엇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 작성 할 면이 부족하면 뒤 면을 사용하세요.

♥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사항으로 질문에 답하여 주십시오.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사항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 ① 남자 () ② 여자 ()

2. 귀하의 연령대는?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3. 귀하의 직업은?

- ① 교사() ② 공무원() ③ 회사원() ④ 상담사() ⑤ 전도사(파트포함)()
⑥ 학생() ⑦ 기타()

4. 해외여행이나 해외 체류경험이 있다면 기간은 총 얼마입니까?

- ① 없음() ② 1달 미만() ③ 1달 이상 6개월 미만() ④ 6개월 이상 1년 미만()
⑤ 1년 이상 2년 미만() ⑥ 2년 이상 5년 미만() ⑦ 5년 이상()

5. 귀하의 외국어 사용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고급() ② 중급() ③ 초급() ④ 전혀()

6. 귀하의 학부 출신은?

- ① 일반대학교() ② 신학대학교()

7. 귀하의 최종 학위는?

- ① 학사학위() ② 석사학위() ③ 석사학위 예정() ④ 박사학위(수료포함)()

8. 귀하의 직책은?

- ① 파트전도사() ② 담임전도사() ③ 기타()

9. 귀하의 거주지역은?

- ① 서울() ② 경기도() ③ 경상도() ④ 충청도()
⑤ 전라도() ⑥ 제주도() ⑦ 강원도() ⑧ 기타지역()

10. 귀하의 다문화 교육 관련 과목 이수 경험은?

- ① 학부() ② 신학대학원() ③ 없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 2> 인터뷰 질문지

분류	Q&A	인터뷰 내용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과 다문화 효능감	Q	현재 신학대학원의 다문화 교육 실태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Q	예비목회자인 신학대학원생들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수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신대원 학생들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수준이 신대원에 다문화 교육 과정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Q	요즘 들어 신대원에 여학생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신대원 남학생과 여학생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수준에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차이가 있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Q	신대원 학생들의 연령분포도가 20, 30, 40, 50대인데 연령대에 따라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수준에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Q	조사 결과 신학대학원생들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인식 수준은 보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문화 효능감은 보통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다문화 인식이 높은 사람은 다문화 효능감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Q	신대원생들의 다문화 효능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낮으면 왜 낮다고, 높으면 왜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Q	신대원 교육과정에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류	Q&A	인터뷰 내용
	Q	신대원생들 중에서 일반대 출신과 신학대 출신들이 있습니다. 일반대 출신과 신학대 출신의 다문화 효능감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Q	신대원생들의 외국어 능력이 다문화 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Q	신대원생들의 해외 체류기간도 다문화 효능감에 영향을 미칠까요?
	Q	신대원 학생들의 연령분포도가 20, 30, 40, 50대인데 연령대에 따라 다문화 효능감에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Q	예비목회자의 다문화 효능감을 증진시키거나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Q	성공적인 다문화 교육 사례 혹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약 있으시다면 성공적인 다문화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필요하고, 또 해당 사례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ABSTRACT

An Integrated Study on the Improvement in Multicultural Efficacy of Protestant Prospective Pastors

Hwang, Jae Dong


Ph. D. Dissertation

Directed by Prof. Kim, Young Soon

Dept. of Multicultural

Inha University

August, 2018



Although Korean society is rapidly entering a multicultural society, there is a negative awareness of multiculturalism. In order to improve the awareness of multiculturalism, a variety of efforts from government and religious initiatives are being carried out. Especially, protestantism is actively practicing multicultural religious education, which combines concepts of multicultural education and religious education. At this time, proper recognition of multiculturalism and capacity of multicultural education are very important for pastors who are the subject of multicultural education. However,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there are many pastors who have improper multicultural awareness in their ministry, or pastors who interpret multicultural education in terms of assimil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a pastor to help in the

formation of proper multicultural awareness and multicultural education at the stage of cultivating a pastor could be an alternative. In other words, to ensure multicultural education is carried out in order for a pastor to have the proper multicultural awareness and multicultural effica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rospective of pastor's level of multicultural awareness and multicultural efficacy using with integrated research methods,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multicultural awareness and multicultural efficacy.

In order to accomplish the research purpose, this study is divided into five chapters. First, chapter 1 describes the necessity and purpose of the research, and presents the theoretical basis through study of the contents. In addition, there is information to help the reader understand the research motivation and terminology used by the researcher. In Chapter 2, we discuss topics such as 'diversity of Korean society members', 'multicultural education and multicultural awareness', and 'biblical understanding of multiculturalism' in order to present the rationale of this study. In the "diversity of Korean society members," the present status of the immigrants has been suggested by the recent transformation of Korean society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The 'multicultural education and multicultural awareness' presented various definitions and theories related with multicultural education. As this study also focuses on the capacity for multicultural education of the preacher, the topic of multicultural efficacy, which is a sub - domain of multicultural awareness, is also presented. Lastly, in 'Biblical Understanding of Multicultural People', I presented the background of multiculturalism in the both New Testament and the Old Testament and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multicultural education through biblical

justification.

In this study, an integrated research method was used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and that presented in Chapter 3. While various integrated research models are employed throughout this study, the study chose to use Morse's research model, which is a model in which sequential design is made from quantitative research to qualitative research. For this sake, we identified the level of multicultural awareness and multicultural efficacy in a survey of 700 theological graduate students across the country. After that, we conducted in - depth interviews with 7 experts of multicultural education. Based on the results, we developed measures to improve the multicultural awareness of prospective pastors and multicultural efficacy.

In chapter 4, the present status of prospective pastors' multicultural awareness is presented based on result of the analysis. In detail, the perceived multicultural awareness of prospective pastors was higher than the average, and multicultural awareness is a variable such as the existence of a multicultural curriculum, the progress of multicultural programs, gender, education level, and age. Also, the prospective pastor 's multicultural efficacy was lower than the average and multicultural efficacy varied according to 'whether multicultural program progress', 'multicultural education', 'undergraduate', 'foreign language ability', 'age', 'period of stay abroad'.

Also chapter 4, expert opinion on the results the quantitative research and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multicultural awareness in prospective pastors are presented. The details are as follows. First, the experts suggested reasons for the multicultural awareness of prospective pastors to be higher than average, such as 'religion is related to

compassion', 'high interest in people', and 'faith is basically considering the weak'. Second, the experts suggested 'absence of education', 'lack of experience', 'group culture' as reasons for the prospective pastor's multicultural efficacy to be lower than average. Third, proposals to improve the multiculturalism awareness of a pastor were suggested such as 'opening curriculum related to multiculturalism at the 'Graduate School of Theology', 'changing into a practical curriculum', and 'stimulating the need for multiculturalism'. Fourth, the provision of systematic curriculum, the provision of various experiences, the promotion of the vocation, and the quality management control of lecturers were suggested as measures for enhancing the multicultural efficacy of the prospective pastors.

In Chapter 5, we summarize the results of the study and gives conclusions based on the results. Along with the presented conclusions,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for further research. First, the impact of multicultural education is likely to depend on the capacity of pastors to perform actual ministry work.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further research on pastors based on this study. Second, the prevailing theme following the interviews with the experts was that actual field experience would help improve the multicultural awareness of the pastor and promote multicultural efficacy. Therefore, in future research, it is necessary to empirically analyze whether the experience, specifically in the multicultural field, in pre-pastors affects multicultural awareness and multicultural efficacy.

Third,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comprehensive research such as religious research related to multiculturalism, for example,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 of multicultural studies in the Protestant sphere' or 'Meta analysis on the effects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 the church'.

Key words : Multicultural Awareness, Multicultural Efficacy, Prospective
Pastor, Multiculturalism, Multicultural Education, Mixed Method

